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 연구

2023년 8월

지도 교수 : 강 민 규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김 효 정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 연구

지도교수 강민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김효정

김효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

부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시 읽기 교육이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경험적인 성질을 질적으로 변형하며 시를 읽는 학습자의 상상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시적 몽상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 교육에서 학습자의 상상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문학 언어에서 기표와 기의의 멀어짐 및 오독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하여 '몽상' 개념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몽상의 개념은 기존 시 교육에서 논의된 '상상'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기존 시 교육에서는 텍스트가 제안하는 상상의 경로가 비교적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학습자의 상상 활동에 주목해온 면이 있다. 즉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시와 관련된 다양한 연상을 활성화하거나, 경험적인 대상에 깊은 가치를 부여하며 그 내부를 질적으로 변형하는 상상 활동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져 왔으며, 이와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풍부한 시 읽기의 가능성 역시 주목받지 못한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바슐라르의 상상력 논의에 주목해 몽상의 개념을 '어떤 대상을 형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운동적 특성을 변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대상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주관적 가치 부여를 통해 대상 및 그를 둘러싼 배경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상상'의 활동으로 개념화하였다.

한편 시 읽기 과정은 텍스트에 내포된 시인의 상상력과 독자의 상상력이 서로 만나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인 의미를 산출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 읽기 교육에서 몽상의 활동은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거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문학 경험이 된다고 보고, 시적 몽상의 개념을 시 텍스트와의 대화 속에서 몽상하며 그것을 의미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바슐라르의 상상력 논의에 근거하여 시적 몽상의 구조를 '형태적 상상에 기반한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성 감지,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에 대한 주관적 가치의 투사와 대상의 역동화',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의미화'로 제시하였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양상의 경우, 시적 몽상의 구조와 학습자의 시 수용물 분석을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첫째,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에 따른 대상 관계의 연상적 탐색은 학습자의 형태적인 연상의 유무 및 그 의미화 수준에 따라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 형태적 유사성에 기반한 대상 관계의 탐색, 이미지의 자유 연상과 의미 구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과 가치의 결부 및 대상의 역동화는 대상의 비가시적인 특성 및 내부 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가치 부여 또는 몰입 정도에 따라 촉각적 특성 환기와 이미지의 연상, 대상의 내부에 대한 가치의 은유적 투사, 대상의 경계선과 주변 영역에 대한 운동성 부여로 나타났다. 셋째,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형상화 및 의미화는 시 텍스트 전체의 언어 표현을 세밀하게 의식하며 의미화하는 과정의 유무에 따라 텍스트의 맥락에 기반한 몽상의 형상화,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의미화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시적 몽상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상황과 원인의 경우 합리주의적 태도로 인한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 실패, 시적 대상에 대한 심미적 거리 조절 실패에 따른 몽상의 비활성화, 몽상 내용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와의 대화 실패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교육 내용으로 친모호성을 통한 시적 대상의 형태 형성 지연, 은유의 활용을 통한 몽상의 방향 설정, 텍스트와의 대화를 위한 동기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 대상의 형태 형성 지연을 위한 시각 자료의 제공, 사물 내부의 상상적 지각을 위한 '되기'와 현미경 체험, 텍스트와의 대화 가이드 활용, 질문 및 해석 기반의 교실 내 대화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상상적 사고를 추동하고,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를 확대하여 텍스트의 창조적 의미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핵심어: 시적 몽상, 시 읽기 교육, 오독, 몽상, 상상, 내부 영역, 질료적 상상력

학 번: 2020-24662

목 차

국문 초록 ····· i
목 차 ····· iii
그림 목차 ····· vi

I.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2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9

II.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이론 ····· 17
1. 시 읽기에서 시적 몽상의 활용 가능성 ····· 17
1) 문학 언어의 수사성과 오독의 문제 ····· 17
2) 시적 몽상의 본질 ····· 22
(1) 몽상의 개념 ····· 22
(2) 시적 몽상의 개념 ····· 29
2. 시 읽기에서 시적 몽상의 구조 ····· 34
1) 형태적 상상에 기반한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성 감지 ···· 35
2)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에 대한 주관적 가치의 투사와
대상의 역동화 ····· 38
3)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의미화 ····· 44
3.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의의 ····· 47
1) 학습자 중심의 상상적 사고 추동 ····· 47
2)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 확대 ····· 48
3) 텍스트의 창조적 의미화 능력 신장 ····· 49

III.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양상 ····· 50
1.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에 따른
대상 관계의 연상적 탐색 ····· 50
1)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 ····· 51
2) 형태적 유사성에 기반한 대상 관계의 탐색 ····· 55
3) 이미지의 자유 연상과 의미 구성 ····· 59
2.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과 가치의 결부 및 대상의 역동화 ····· 67
1) 대상의 촉각적 특성 환기와 이미지의 연상 ····· 68
2) 대상의 내부에 대한 가치의 은유적 투사 ····· 74
3) 대상의 경계선과 주변 영역에 대한 운동성 부여 ····· 81
3.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형상화 및 의미화 ····· 86
1) 텍스트의 맥락에 기반한 몽상의 형상화 ····· 86
2)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의미화 ····· 92
4.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문제 상황 및 원인 ····· 99
1) 합리주의적 태도로 인한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 실패 ····· 100
2) 시적 대상에 대한 심미적 거리 조절 실패에 따른
몽상의 비활성화 ····· 102
3) 몽상 내용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와의 대화 실패 ····· 106

IV.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설계 ····· 110
1.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목표 ····· 110
1) 상상력의 신장과 세련화 ····· 110
2) 주체적 체험 능력의 신장 ····· 111
3) 창의적 사고의 발달 ····· 112
2.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내용 ····· 113
1) 친모호성을 통한 시적 대상의 형태 형성 지연 ····· 113
2) 은유의 활용을 통한 몽상의 방향 설정 ····· 115
3) 텍스트와의 대화를 위한 동기화 ····· 118

3.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방법 ····· 121
1) 대상의 형태 형성 지연을 위한 시각 자료의 제공 ····· 121
2) 사물 내부의 상상적 지각을 위한 '되기'와 현미경 체험 ···· 126
3) 텍스트와의 대화 가이드 활용 ····· 130
4) 질문 및 해석 기반의 교실 내 대화 활성화 ····· 132

V. 결론 ····· 134

참고 문헌 ····· 137
부 록 1 ····· 144
부 록 2 ····· 148
영문 초록 ····· 153

그림 목차

[그림 1] 환영적 모티프(잔잔한 호수) ····· 122
[그림 2] 질료적 변환을 유도하는 이미지(구름과 눈) ····· 123
[그림 3] 원근감과 크기의 모호함을 유발하는 이미지 ····· 124
[그림 4]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 간 구분의 모호함을 유발하는 이미지 ····· 125
[그림 5] 백합꽃의 싹을 자른 단면 ····· 128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시 읽기가 독서 주체와 시 텍스트 간의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독자가 체험해내는 능동적인 과정[1]이라고 할 때, 내 눈앞에 부재하는 텍스트의 세계를 이미지로 떠올려보는 상상력은 이러한 시적 체험이 일어나기 위한 핵심 능력이 된다. 시 교육에서는 시인의 상상력과는 다른 학습자의 상상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습자가 스스로 떠올리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적극 장려해 오며 '이해와 표현의 통합'[2]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해왔다.

이렇게 이미지를 산출하는 주체로서 학습자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 텍스트의 이미지 및 문학 이미지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는 여전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지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가 현실 세계의 특정한 감각과의 연관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3]과 관련이 있다. 학습자들은 시 이미지를 그 감각적인 생생함이라는 효과의 측면에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시 전체에서 그 이미지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의미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미지의 도식화 문제, 예컨대 무언가가 하강하는 이미지가 그려질 경우 부정적인 의미, 상승하는 이미지가 그려질 경우 긍정적인 의미로 도식화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학습자들은 일상에서 축적된 감각 경험을 중심으로 시의 이미지를 세부적으로 묘사해나가며 시를 읽을 수는 있지만, 기존의 경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적 표현을 대면할 경우 그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지

---

1) L. M. Rosenblatt(1978), 김혜리·엄해영 역(2008),『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론』, 한국문화사, p.35.
2) 윤여탁(1999),「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 시의 표현과 이해 과정을 중심으로」,『문학교육학』3, 한국문학교육학회, p.251.
3) 강민규(2015),「이미지즘 시의 공간 연출(演出)과 시 읽기 교육」,『문학교육학』47, 한국문학교육학회, p.11.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의 언어를 통해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묘사적으로 상세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며 읽는 것 역시 시 읽기의 즐거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시 텍스트의 언어를 통해 암시되는 대상은, 그 언어에 대응되는 일상적인 대상으로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감각적 특성을 벗어나거나 그에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학습자들은 해당 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데에, 그리고 그 의미를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구성하는 데 실패하기 쉬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 읽기에서 학습자의 상상이 기존 경험에 기반한 세부적이고 표면적인 묘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시의 언어를 통해 활성화되는 다양한 정신심리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대상의 가시적인 특성 이면의 영역을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나아가 대상의 질적인 변화까지를 실현하는 방식의 상상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이 중심이 되는 시 읽기를 '시적 몽상(詩的 夢想)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 교육에서 시적 몽상의 활용 가능성을 논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본질과 구조를 규명한다.

둘째, 학습자의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양상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현상과 지체 요인을 살펴 교육의 이론을 정립한다.

셋째, 앞선 과제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을 설계한다.

2. 연구사 검토

그간의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은 문학 체험과 이해의 가능 조건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어떤 사물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는 특성을 질적으로 변형하는 상상력의 경우 학습자의 층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 변형으로서의 상상력은 장기간에 걸쳐 길러지는 고급화된 상상력으로서 다루어져 왔으며, 학습자의 것이라기보다는 텍스트의 언어에 표현된 시인의 상상력의 몫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읽기 중 학습자의 상상적 변형 활동, 즉 몽상 활동은 학습자의 삶의 맥락과 관련되어 진행되기보다는 시인의 상상적인 변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제한되어 왔다. 시 읽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의 상상적 변형은 그 경로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에서는 그러한 변형 과정의 풍부함 자체 및 그것이 시 해석의 풍부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제인 상상(력), 이미지 등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상상 활동과 관련된 논의들과 이해 및 해석과 관련된 논의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연구사적 위치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구인환 외(1996)[4]는 상상력을 인지와 정의의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구성적 능력(constructive power)으로 보고,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을 '인식적 상상력', '조응적 상상력', '초월적 상상력'으로 나누었다. 해당 논의에서는 어떤 대상을 독립된 사물로 파악하는 형태화기능(Gestaltkraft)으로서의 상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윤여탁(1999)은 코울리지(S. T. Coleridge)의 상상력 논의를 문학 작품의 수용 층위에 적용하여 작품이 독자의 정서적 내면화에 머무는 경우를 '일차적 상상력', 감상문이나 비평문 등을 통해 자기표현으로 실현되는 것을 '이차적 상상력'의 작용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연구는 이와 같은 수용 및 표현 활동이 상상력을 중심으로 통합된 의미 부여 과정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수용자의 다양성이 독자의 사고력과 창의성의 신장 외에도 문학 작품의 독창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몽상 활동이 시 텍스트의 풍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관점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최지현(2007)[5]의 경우 문학교육에서 권장되는 상상이 문학 작품의 상상적 세계와 조응하는 상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과는 다른 상상의 경로 역시 교육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같은 대상을 다르게 상상해보는 것, 억압되고 금기시되는 '나쁜' 상상들을 허용하는 것, 학습자의 상상적 체험으로 인한 문학

4) 구인환 외(1996), 『문학교육론』(제2판), 삼지원.
5) 최지현(2007), 「문학교육의 '교육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교사의 상상적 체험 발전의 경로 공유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창원·정재찬·최지현(2000)[6]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을 '경험적 자아에서 벗어나 존재의 비약과 전환을 거둘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그 발달 단계를 대상 의존적인 '재현적 상상력', 대상을 변형하고 해체하는 '조작적 상상력', 탈대상적인 '창조적 상상력'으로 체계화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상상력의 심화를 위해서 비과학적인 몽상적 사유와 다양한 연상들을 활성화하여 창조적 오독을 해나가되, 이미지들을 촉발시킨 원동력을 작품 속에서 찾아가며 그 근거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의 '시적 몽상'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몽상'에 해당하는 '조작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과 관련된 구체적 교육 내용을 실제 학습자 양상을 통해 논의하고 있지는 않아 보론의 여지가 있었다.

손예희(2011)[7]는 시 읽기에서 학습자의 상상적 경험이 텍스트를 구체화하는 '지각적 상상', 연상과 결합을 통한 '전이적 상상', 전이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재형상화하는 '창조적 상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전이적 상상'은 전이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대상의 상징적 의미나 시인에 대한 지식, 상호텍스트적 맥락 등과 관련해 다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시 텍스트의 시적 대상들 및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연상하는 다른 대상물들과의 관련 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적 변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방향을 달리한다. 또한 학습자의 상상적 경험이 전문독자의 수준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해당 연구의 관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한다.

박주형(2021)[8]은 시 읽기에서의 '감각적 체험'을 시의 언어에 대한 독자의 감각 경험 투사와, 시의 언어를 통해 상상적으로 환기되는 이미지의 감각적 특성의 의미화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심미적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존재로서 독자가 시 텍스트와 맺는

6) 김창원·정재찬·최지현(2000), 「문학교육과 상상력」, 『독서연구』 5(5), 한국독서학회.
7) 손예희(2011), 「시 교육에서 상상적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박주형(2021), 「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구조와 활성화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관계를 대상, 주체, 언어 형식의 층위로 나누어 살펴 기존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하위 요소로 다루어져 왔던 '감각'의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한편 해당 연구가 텍스트가 제안하는 상상의 경로가 비교적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감각적 체험을 다루며 시 텍스트에 좀더 중점을 둔다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가 제안하는 상상의 경로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학습자의 상상 과정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방향을 달리한다.

한편 시 교육에서 이미지와 관련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이미지의 감각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가 이미지의 감각적 분류나 감각적 구체화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먼저 한귀은(2007)[9]은 이미지에 대한 주체의 지각이 마비된 '스펙타클의 시대'에서 시 이미지 교육은 '느림'을 실천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움직이지 않는 정영상(그림, 사진)을 해석할 때 사고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시 이미지 교육 역시 시 텍스트 문면에 드러난 이미지들의 연쇄를 충실히 따라가기보다는 학습자의 숙고와 성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 역시 하나의 이미지라 하더라도 학습자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각하고 변형해보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해당 연구는 한시 장르인 제화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현대시 읽기에서 학습자의 상상적 사고 활동을 살피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김미혜(2008)[10]는 시 이미지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구체적인 감각 경험의 재현의 차원에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시에서의 이미지는 실재의 영역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라 이미지의 해석은 독자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시 텍스트의 경험 세계로의 환원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관점은 시의 언어를 통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변형을 강조하는 본 연구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

조은혜(2014)[11]는 '이미지 내러티브'의 개념을 설정하여 독자가 시

9) 한귀은(2007),「이미지를 경계하는 이미지 교육」,『배달말교육』28, 배달말학회.
10) 김미혜(2008),「시 교육에 있어서 이미지 이해의 문제에 대한 고찰 : 박목월 초기 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문학교육학』25, 한국문학교육학회.

읽기 과정에서 생성하는 이미지들을 질서 있게 연결하고 전체 텍스트의 의미를 서사적으로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는 이미지의 감각적 분류에 치중된 기존 시 이미지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가 스스로 이미지들 간의 연결 관계를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시에 나타난 기호 관계를 주체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학습자의 역량을 중시하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었다.

강민규(2015)[12]는 이미지가 공간이라는 인간 사유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다양한 상상에 입각한 시 읽기를 추동한다고 보고, 이미지의 감각적 표현력에 치우친 기존 시 이미지 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간 연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미지즘 시 읽기에서 상상적 공간의 연출은 시어가 환기하는 이미지에 주목하여 나름대로의 하위 공간들을 설정 및 구성해보고, 이들을 서로 연관 짓는 질서를 도출하여 상위 공간의 의미를 구현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미지를 인간의 공통 사유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 해당 연구는 시 읽기에서 이미지에 대한 본 연구의 관점을 심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김민재(2016)[13]는 기존 문학교육에서의 '상상' 개념이 독자의 적극적인 집중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시 읽기 중에 학습자가 떠올리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체험 표상'의 개념을 설정하여, 시를 읽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데 관련되는 학습자의 전반성적 반응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학습자들의 발산적인 이미지 연상 역시 시 읽기 중의 상상 활동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한편 시 텍스트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에 대해 기존에 인지하고 있는 특성을 질적으로 변형하고, 그 변형의 내용을 시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화하는 시적 몽상의 활동은 시 교육에서 '이해'나 '해석' 교육 관련 논의 전반과 관련이 있다.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11) 조은혜(2014),「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강민규(2015), 앞의 글.
13) 김민재(2016),「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체험 표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먼저 김정우(2004)[14]는 시 교육에서 해석을 학습자의 지평이 텍스트의 지평과 융합하여 확장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의 상상력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 텍스트 해석 활동의 구조를 '텍스트 구조 내적 의미 실현', '상호텍스트성의 관계적 의미 실현', '수용자의 상상에 의한 창의적 의미 실현'으로 나누어 논하였는데, 이러한 해석 활동의 구조는 전문독자의 시 해석 양상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인의 다른 작품에 대한 선행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습 독자의 시 읽기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그리고 '텍스트 구조 내적 의미 실현' 과 '수용자의 상상에 의한 창의적 의미 실현'이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보는 점에서 관점을 달리한다.

다음으로 김남희(2008)는 기존 문학교육에서 다뤄온 텍스트의 의미화 문제가 김춘수의 '무의미시'와 같이 현실의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 텍스트를 배제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환상(fantasy)'의 개념을 중심으로 무의미시의 국어교육·문학교육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해당 연구는 비현실적 이미지 또는 언어의 물질성을 중심으로 하는 무의미시의 수용과 의미화 과정이 수렴적 사고를 벗어나 환상의 영역을 포괄하여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현실적 대상의 특성을 변형하여 읽는 '시적 몽상' 중심의 읽기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이은희(2009)[15]는 문학 텍스트의 수사성이 의미의 불확정성을 낳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모더니즘 시를 중심으로 하여 '수사학적 시 읽기'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 환유, 반복적 표현이 유사성을 인지 및 대응시키고, 환유 표현과 관련한 공유된 문화적 배경을 떠올리고, 반복이 개별 작품에서 갖는 섬세한 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인지 작용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논의는 텍스트의 수사적 표현을 독자의 읽기 전략의 차원에서 재개념화하고자 했다는 의의를 가지나, 시 텍스트 자체에 은유나 환유, 반복이

14) 김정우(2004),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이은희(2009), 「모더니즘 시의 수사학적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풍부한 시 읽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보론의 여지가 있었다.

한편 최미숙(2012)[16]은 문학 텍스트 해석 교육이 독자 중심의 해석을 지향하면서도 텍스트의 논리에 근거해야 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호학적 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호학적 해석 방법에 근거한 시 읽기란 독자가 자신의 개별적인 경험 구조에 의거하여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도, 시 텍스트에 구조화된 어휘들의 의미 관계와 보조사 등에 주목하여 시를 자세히 읽는 방식을 말한다. 텍스트의 언어 기호와 의미 구조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는 해당 연구의 관점은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어디까지를 타당한 해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으나, 학습자의 다양한 상상을 타당하지 않은 해석으로 보고 있는 점은 보론의 여지가 있었다.[17]

강민규(2016)[18]는 시에 대한 학습 독자의 의미 구현이 해석 가설(hypothesis) 구성의 성격을 띤다고 보고, 이에 작용하는 사유 양식을

16) 최미숙(2012), 「기호·해석·독자의 문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 38, 한국문학교육학회.

17) 해당 연구에서는 오장환의 「붉은 산」—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가도, 가도 붉은 산이다./ 가도 가도 고향뿐이다./ 이따금 솔나무 숲이 있으나/ 그것은/ 내 나이같이 어리고나./ 가도 가도 붉은 산이다./ 가도 가도 고향뿐이다. (오장환(1989), 최두석 편, 「붉은 산」, 『오장환 전집 1 詩』, 창작과비평사.)—에 대한 독자들의 상반되는 반응 중에서 "붉은 황토 흙으로 이루어진 헐벗은 산, 헐벗은 고향"만을 타당한 해석으로 인정하고, "울긋불긋 단풍 든 화려한 산, 아름다운 고향"이라는 반응에 대해서는 텍스트의 언어 기호 및 의미 구조에서 벗어난 해석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시의 내적 구조상 '붉은 산, 고향'이 일정 정도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는" 해당 연구의 논지에 동의하는 바, 해당 시 텍스트에서의 '고향'이 "아름다운 고향"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붉은 산'과 관련해 "울긋불긋 단풍 등 화려한 산"을 상상한 반응과 관련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시에서 '솔나무'라는 언어 표현을 통해 환기되는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이파리를 가진 나무인 반면, 독자들이 떠올린 단풍나무는 일시적으로 붉으나 계절의 흐름에 의해 낙엽으로 떨어지고 그 빛이 퇴색할 운명에 처한 나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붉은 산'을 통해 단풍나무의 빛깔을 상상하는 것 역시 그 붉음의 일시성에 의해 시의 '고향'을 "부정적 정서, 안타까움"과 연관된 의미로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시 텍스트에서 '붉은 산'이 "지속적 시간 개념을 지니는 '가도 가도'와", '솔나무 숲'이 "간헐적 시간 개념을 지니는 '이따금'과" 결합하는 의미 구조는 단풍나무의 붉음과 소나무의 푸르름에서 일상적으로 환기되는 시간성(일시성, 항상성)을 역전된 양상으로 읽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최미숙(2012), 위의 글, pp.143-146.

18) 강민규(2016), 「현대시 학습 독자의 해석 가설 구성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52, 한국문학교육학회.

구조화하였다. 해당 논의에서는 독자들이 텍스트 해설 또는 2차 텍스트의 생산이라는 장르 의식을 중심으로 가설 구성의 목적을 설정하고, 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어휘를 상정하여 이미지를 연상하며 해석 내용을 풍부화하고, 수렴·분화·유추 등의 사유 양식을 활용하여 상상적 세계에 체계를 부여하여 시의 의미를 구현한다고 보았다. 해당 연구는 시 교실에서 자기표현 지향적인 해석 가설 구성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 점, 또한 텍스트상의 의미적 공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지 않더라도 독자 나름의 상상적 세계를 발전시켜가는 시 읽기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본 연구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

우신영(2017)[19]은 대학생 독자의 시 읽기 양상을 바탕으로 창의적 시 해석을 범주화하고 이에 따른 창의적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당 논의에서는 기존 해석에서 과잉해석 또는 해석되지 않은 지점을 발견하거나, 텍스트의 형식적 특성 또는 상징의 다의성에 주목하거나, 작가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을 소거/ 도입 또는 학습자의 세계지식을 투입함으로써 창의적 해석 가설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범주화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해당 연구는 창의적 해석에 있어서 기존 해석에 대한 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풍부한 상상 활동에 의한 시의 의미화 과정에 중점을 두는 본 연구와는 관점을 달리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II장에서 바슐라르(G. Bachelard)의 상상력 이론 및 전문독자의 시 읽기 양상을 중심으로 몽상의 개념, 시적 몽상의 개념과 구조를 논하였다. 바슐라르는 '몽상(reverie)'[20]을 자아의 혼란스러운 상태

19) 우신영(2017),「창의적 시 해석 방법 연구」,『문학교육학』55, 한국문학교육학회.

20) 문경자에 따르면 서양사상사에서 정신적 착란(folie)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던 '몽상(reverie)'은 루소(J.-J. Rousseau) 이후 "문학적 체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게 된다. 루소가 '몽상'을 '상상력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는 사고'의 의미로 사용하였다면, 바슐라르는 상상력의 체계성에 주목하여 '몽상'의 의미역을 새롭게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문경자(2013),「'몽상'의 의미 변동과 문학적 기능에 관한 고찰」,『프랑스어문교육』44, 프랑스어문교육학회, pp.322-323.

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의식의 층위와 결부시키고자 하였으며, 문학 독서에 있어서 몽상 활동이 주관적인 상념에서 나아가 지속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활동으로 상승될 수 있는지를 '질료적 상상력'의 개념 등을 통해 논하였다는 점에서 주요 참조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III장에서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시 수용물을 분석하여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예비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의 시 텍스트 수용물을 수집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은 중학교 2학년 학습자이며, 대상 시 텍스트는 김기택의 「웃음에 바퀴가 달렸나 봐」를 선정하였다.[21]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 읽기에서의 몽상은 주로 긴장 없는 자각 상태에서 새로운 이미지와 맞닥뜨릴 때 생겨나는데[22], 이는 물활론(物活論, animism)적 사고와 같은 주체의 유연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포함한다. 물활론적 사고는 아동기까지 유지되다가 이성적 사고가 강화하면서 점차 희박해지기 때문에[23] 관습적 시 교육의 경험이 적은 중학생 학습자들에게서 보다 다양한 시적 몽상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시 텍스트를 주요 시적 상황과 시적 대상이 제시된 행에서 분절하여, 학습자들이 시의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시적 몽상을 진행해나가도록 하였다. 첫 번째 활동지에서는 시의 일부분만을, 두 번째 활동지에서는 시 텍스트 전문을 읽고 물음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텍스트를 읽고서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태

---

21) 텍스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작품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적 있는 작품으로 대상 학습자가 읽기에 적당한 수준이면서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시 텍스트에 언급된 '바퀴'라는 대상은 운동성을 가진 대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바퀴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학습자마다 다양한 물질적·운동적 특성 부여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5행에서 텍스트를 분절한 이유는 6행('언덕을 내려가고 있어~')에서부터 대상의 운동적인 특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셋째, 시에 언급된 '웃음'은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중 어느 하나로 한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주체의 반응이자 사회적인 신호로서 학습자들의 몽상 내용이 고립적인 자아의 기술에 그치지 않고 세계와의 대화적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유용한 시적 소재라고 생각되었다.

22) G. Bachelard(1960), 김현 역(1989),『몽상의 시학』, 기린원, p.170.

23) 이성은·우미라(2007), 「원형의 관점에서 본 초등문학교육」,『한국초등국어교육』3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131-132.

를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해보고, 텍스트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써보도록 하였다. 그 후 상상의 방식과 관련한 제시문을 참고하여 텍스트의 뒷이야기 및 주제를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두 번째 활동에서는 시 텍스트 전문을 읽은 후 제시된 시적 상황을 판단해 보고, 내가 만들었던 뒷이야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24] 이와 같은 예비실험을 통해 텍스트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시적 대상에 집중하여 형태와 재료,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고자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중학생 학습자들은 시 일부를 읽은 후 자신만의 몽상을 문학적으로 풍부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몽상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며 성찰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시 텍스트에 내포된 타자의 몽상에 대한 탐색과 유의미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시의 일부를 분절하여 제시하는 것은 몽상이 일어날 지점을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시 읽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몽상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본 조사에서는 시 텍스트 전문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학습자가 몽상을 해나갈 지점과 방식을 시어 단위에서부터 자유롭게 선정하여 몽상 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관습적인 시 읽기의 영향이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학습자들이 시어들을 중심으로 그린 마인드맵(mind map)[25] 및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시 감상문을 수집하였다. 시적 몽상의

---

24) 이러한 설계는 이저(W. Iser)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와 관련해서 언급했던 연재소설에서의 중단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이저는 지각자료들을 지각형상으로 지속적으로 결합시키고 지각형상 상호간을 연결시키는 인간 지각 능력의 특성을 '양호한 연속성(good continuation)'으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양호한 연속성에 따라 독자는 신문연재소설과 같은 단절·지연적 읽기 상황에서 사건진행에 대해 그 순간에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표상하게끔 유도된다. W. Iser(1976), 이유선 역(1993),『독서행위』, 신원문화사, pp.293-302.

25) 마인드맵은 중앙에서 방사상으로 키워드를 뻗어 나가며 독립된 정보들 사이를 연결하고, 그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아이디어 정리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인 마인드맵 도구에서는 하나의 핵심어가 구심점 역할을 하나, 본 조사에서는 학습자들이 인상적인 하나의 시어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끝내기보다는 텍스트의 다른 시어들도 손으로

활동에서는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과 관련한 물질적 특성들 및 정신심리적 가치들을 발산적으로 떠올려 보고, 텍스트와의 관련 속에서 이들을 연계시켜 의미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마인드맵은 주제어(들)를 중심으로 확산적인 사고를 해나가면서도 체계성 있는 의미 군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 서로 다른 대상이나 사태를 연관짓는 연상결합(association)에 의해 이해와 상상력을 도약시킬 수 있다는 점[26]에서 시적 몽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감상문 작성이라는 보다 수렴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마인드맵에서 형성한 의미망을 텍스트와와 관련해 질서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해와 표현의 조화라는, 문학 활동으로서 갖추어야 할 균형[27]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인드맵을 그리기 전 사전 활동으로 활동 안내문 및 마인드맵 그리기 예시와 감상문 작성 예시[28]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마인드맵 작성 시에는 도움말[29]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표층적인 연상보다는 대상의 감각적 변화 가능성, 다른 시어와의 관계, 그 시어와 학습자 자신의 관계 등을 모색하며 시어의 깊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감상문 자료 외에 동료 학습자와 감상문을 바꿔 읽은 후 소감문을 쓰도록 하여, 시 읽기 중의 몽상을 시 텍스트 타자 및 동료 학습자의 몽상 내용과 관련하여 성찰해보도록 하였다. 이는 타자의 몽상의 결과물과 대화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몽상을 심화해 나갈 단서를 찾거나, 새로운 몽상의 길을 탐색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설문지

써보도록 유도하여 시어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게끔 안내하였다.

26) T. Buzan(2007), 부잔코리아 역(2008),『생각의 지도 위에서 길을 찾다』, 중앙북스, pp.22-79.

27) 김대행 외에 따르면, 문학 교수-학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수렴성(收斂性, astringency)과 발산성(發散性, diffusion)이 두루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전자는 이해, 후자는 표현의 과정과 주로 관련된다. 김대행 외(2000),『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356.

28) 이육사의 「청포도」 일부를 제시하고,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구절을 시어 '하늘'과 의미가 있는 마인드맵 상의 어휘 '새털구름'을 중심으로 "반투명한 새털구름이 새처럼 들어와 말캉말캉해지고, '마을 전설'이 그 내부를 보호한 모습"으로 설명하였다.

29) 특정한 시어가 인상 깊게 다가온 구체적 이유, 시어에서 느껴지는 변화와 움직임, 시어와 관련해 연상되는 나의 행동, 그 시어와 다른 시어의 관계는 어떠할지 등과 관련하여 키워드를 자유롭게 메모하라고 안내하였다.

활동 소감 자료를 통해서는 학습자들이 활동 중 어려워했거나 특별히 흥미를 느낀 부분 등을 분석하여 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상 텍스트의 선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로는, 환상성(fantasy)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 텍스트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환상성의 요소를 가진 시란 시적 대상들 간의 관계가 시의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물들, 즉 현실에서의 그 대상 간의 관계로부터 그 공간적 거리와 깊이 면에서 변형된 있는 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 텍스트에 포함된 이러한 환상성의 요소가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창조적 오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충족하는 텍스트로 본 연구에서는 강은교의 「햄버거와 구름」[30] 및 오규원의 「호수와 나무—서시」[31], 그리고 정현종의 「섬」[32]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있는 시인들의 작품이며, 시인들의 원숙기의 작품들이자 환상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대상 텍스트로 적합하다고 파악하였다. 이들 텍스트는 모두 하나의 대상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이자 관계를, 일상에서의 그 대상들 간의 관계와는 다르게 변형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각 시 텍스트에 나타난 대상 관계의 변형을 감지함으로써 '햄버거'와 '구름', 그리고 '호수'와 '나무', 또 '사람들'과 '섬'을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물리적 특성 및 대상 간의 관계를 변형하고, 각 대상에 인간의 정신심리적인 가치를 투사하는 몽상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한편 대상 텍스트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한 또다른 요소는 시 텍스트에서 주로 다루는 시적 대상이 학습자에게 친숙한지의 여부이다. 바슐라르

30) 그 여자는 정오에 구름을 보며 햄버거를 먹었다.// 햄버거에서 구름이 떨어졌다./ 그 여자는 구름이 맛있다고 생각하며 먹었다./ 그 여자는 손가락을 쪽쪽 빨며 소스가 쳐 있는 햄버거의 고깃덩이를 씹었다.// 순간/ 빗방울이 두 개의 빵껍질 사이에서/ 떨어졌다.// 오, 햄버거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 강은교(1996), 「햄버거와 구름」, 『어느 별에서의 하루』, 창비, p.17.

31) 잔물결 일으키는 고기를 낚아채 어망에 넣고/ 호수가 다시 호수가 되도록 기다리는/ 한 사내가 물가에 앉아 있다/ 그 옆에서 높이로 서 있던 나무가/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 - 오규원(2005), 「호수와 나무—서시」,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문학과지성사, p.9.

32)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1978), 「섬」, 『나는 별 아저씨』, 문학과지성사, p.68.

는 시 읽기에서 독자의 몽상은 보통 독자가 경험적으로 친숙한 대상과 관련해 잘 유발될 수 있다고 말한다.[33]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강은교의 「햄버거와 구름」 및 오규원의 「호수와 나무—서시」를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 두 시는 '햄버거', '구름' 그리고 '호수', '나무'와 같이 중학교 1학년 학습자에게도 친숙하리라 생각되는 두 대상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시로서 대상 텍스트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정현종의 「섬」의 경우, 앞의 두 시와는 다르게 학습자들이 덜 친숙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인 '섬'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학습자들의 몽상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겠지만, 몽상의 활성화가 유리하지 않은 시 텍스트의 경우에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몽상의 내용을 시 텍스트의 맥락 속으로 의미화하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해당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각 텍스트들을 구체적으로 살피자면 다음과 같다. 강은교의 「햄버거와 구름」은 '햄버거'라는 어느 정도 형태가 고정된 대상을 '구름'이라는 동적인 존재로 둘러싸며 대상을 해체하는 상상력의 작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슐라르에 따르면 구름과 같이 유동적인 대상은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 욕구와 갈망을 움직여 깨워 몽상을 활성화할 수 있다.[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텍스트가 학습자의 시적 몽상 양상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텍스트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오규원의 「호수와 나무—서시」의 경우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론과 관련이 있는 시로,[35] 호수의 잔잔한 표면에 반사된 나무를 표층적인 차원이 아닌 깊이를 가진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바슐라르는 깊은 몽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상을 표면뿐 아니라 깊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호수와 같이 어떤 대상을 그 표면과 깊이에 의해 실체화하는 요소들을 강조하였다. 「호수와 나무」는 이

33) "대상에 대한 몽상은 친숙한 대상에의 충실함이다. 대상에 몽상가가 충실하다는 것은 내면적 몽상의 조건이다. 몽상은 친교를 유지한다." G. Bachelard(1948), 정영란 역(2002),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 문학동네, p.187.

34) G. Bachelard(1943), 정영란 역(2020), 『공기와 꿈』, 이학사, p.338를 참조.

35)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론은 관념의 배제와 환유적 언어체계, 존재의 현상을 반주체 중심의 시선으로 이미지화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삼는다. 날이미지시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오규원(2005), 『날이미지와 시』, 문학과지성사, pp.193-195를 참조.

러한 몽상의 조건에 잘 부합하는 텍스트로, 학습자의 몽상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정현종의 「섬」은 단 두 줄로 구성되어 있지만, 생경한 이미지와 함축적인 언어 표현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시 읽기와 이미지의 연상 작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처럼 세 작품들은 비교적 짧은 길이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시적 몽상 양상을 살피는 데 적절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해석학적 현상학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현상학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현상 그 자체를 보고자 하는 연구 방법으로, 현상학적 체험연구는 연구 대상의 체험의 의미를 깊게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6] 본 조사에서 수집한 마인드맵 및 감상문의 자료의 경우, 마인드맵에는 흔적이 남아 있지만 감상문 속에서 의미화되지 못한 연상 과정이 다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되 생략된 연결 고리를 마인드맵 내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다른 사고 과정 또는 감상문의 논리 속에서 추적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집단 번호-학습자 번호-작품명[37]-활동 번호]'로 부호화하였으며, 진행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36)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참조.
37) 편의상 「햄버거와 구름」은 '햄버거', 「호수와 나무」는 '호수', 「섬」은 '섬'으로 표기한다.

조사차수	조사기간	조사대상	집단	대상텍스트	수집편수	활동 내용	차수
예비조사	2022. 10	서울 N중학교 2학년생 (1학급, 26명)	W	김기택, 「웃음에 바퀴가 달렸나 봐」	26	①시 텍스트 일부 읽기 →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 → 제시된 상황 판단 및 그렇게 판단한 이유 기술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상황 中 택1) → 상상의 방식과 관련한 제시문 참조하여 뒷이야기 작성 및 만든 이야기의 주제 기술 ②시 전문 읽기 → 시적 상황에 대한 판단 및 감상문 작성	1차시
본조사	2023. 1 ~ 2023. 2	서울 Y중학교 1학년생 (3학급, 91명)	A	강은교, 「햄버거와 구름」	27	**[1차시 활동]** Ⓟ활동에 대한 안내문, 감상 예시(시 마인드맵 및 감상문) 읽어 보기 -시어에는 무수한 변화와 시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대상 내부를 생동감 있는 풍경으로 상상할 것을 안내함 Ⓜ시 텍스트를 읽고 다음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시어 마인드맵 그려보기 -시어가 인상적인 이유 및 어떤 변화와 움직임, 나의 행동 등이 연상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 **[2차시 활동]** ①마인드맵 그리기 과정 진술 및 시와 관련해 떠오르는 생각들 쓰기 ②작성한 감상문을 친구와 교환해 본 소감 쓰기 ③설문지 활동 소감 쓰기	2차시 (단축수업)
			B	오규원, 「호수와 나무 —서시」	33		
			C	정현종, 「섬」	31		

II.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이론

1. 시 읽기에서 시적 몽상의 활용 가능성

시 읽기에서 시적 몽상의 활용 가능성을 논하기 위하여 이 절에서는 먼저 문학 언어의 수사성이 독자의 다양한 오독과 다양한 상상을 가능케 하는 기반임을 밝히고, 바슐라르(G. Bachelard)의 상상력 이론에 기반하여 '시적 몽상'의 개념을 논구하고자 한다. 시적 몽상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형태를 그려보는 형태적 상상에 기반해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을 감지하고, 그 대상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 부여한 가치와 상상에 의한 질적인 변형의 내용을 시 텍스트와의 대화 속에서 의미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시의 언어 표현으로부터 연상적으로 환기되는 다양한 대상들 및 그 대상들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정신심리적인 가치 부여, 그리고 시 텍스트와의 대화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적 몽상은 상상력의 단순한 유희적 활동이 아닌 시 텍스트의 의미를 풍부하게 실현하는 과정이 된다.

1) 문학 언어의 수사성과 오독의 문제

후기 구조주의에서 '오독(誤讀, misreading)'이란 발화자가 의도한 의미와 다른 의미를 청자 또는 독자가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는 기호와 지시 대상의 관계에 필연적인 일대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현대 수사학[1]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는데, 현대 수사학에서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다가섬과 물러섬의 이중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즉 언어 기호는 한편으로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을 가까이 불러 모으면서도 동시에 밀어낸다는 것인데, 여기서 '물러남'이 무시되고

1) 수사학(修辭學)은 "지속적으로 기호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을 지시하는 언어의 용법"으로, 약호(code)의 변환법 즉 지시 내용의 변형에 관심을 둔다. M. McQuillan(2001), 이창남 역(2007), 『폴 드 만과 탈구성적 텍스트』, 앨피, p.44.

‘다가섬’이 강조되면 기호는 곧 지시 대상이 되고, 반대의 경우에 기호는 부유하는 유희적 기표가 되어 지시 대상과의 관련이 사라진다.[2)]

드만(P. De Man)은 이와 같이 언어 기호와 지시 대상 사이에 균열이 있는 상황,[3)] 그리하여 의미의 우위의 확정할 수 없는 복수적인 의미가 발생하는 기호학적 난점을을 ‘수사(학)적’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독서에서 수사학적 난점은 늘 존재한다는 점에서 드만은 텍스트에는 본질적인 의미가 존재하지 않으며, 텍스트는 스스로를 탈구성(deconstruction)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여러 텍스트 중에서도 문학이 기호와 지시 대상 간의 멀어짐이 잘 드러나는 텍스트임을 지적하고, 문학 언어가 본질적으로 수사적이라고 주장하였다.[4)] 이와 같이 문학 텍스트의 언어 기호에 잠재된 기호와 지시 대상 간의 균열을 ‘문학 언어의 수사성(修辭性)’으로 정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텍스트에서 이와 같은 기호와 지시 대상 간의 잠재된 균열은 독자의 구체적인 읽기 상황 속에서 현실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독자 중심의 의미 구성을 강조하는 문학교육에서 오독은 보다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우문영(2012)[5)]의 경우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나 문장을 변형(삽입·생략·대치·반복·창조)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가 자신만의 의도, 생각, 근거를 가진 경우를 ‘창조적 오독’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오류적 오독’으로 구분하여 문학교육에서 창조적 오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인 시 교육 환경에서 작가에 대한 선지식에 기대거나 관습화된 시 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자

---

2) 김종갑(2000), 「기호와 지시대상의 교환 ; 드 만의 경우」, 『안과 밖』 9, 영미문학연구회, p.232.

3) 드만은 “무슨 차이가 있지?(What’s the difference?)”라는 구문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 문장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차이를 묻는 것이지만, 상황 맥락에 따라 차이의 존재를 부인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지시 대상의 다가섬, 후자의 경우 지시 대상의 물러섬이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예시와 관련해서는 P. De Man(1979), 이창남 역(2010), 『독서의 알레고리』, 문학과지성사, pp.23-25를 참조.

4) “그리고 비록 어쩌면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어느 정도는 한층 더 많이 동떨어진 듯할지라도, 나는 수사학적이고 형상적인 언어의 잠재성을 문학 자체와 동일시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책, p.25.

5) 우문영(2012), 「오독이 비평교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5, 청람어문교육학회.

가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창조적 오독에 대해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특히 시 읽기에서의 오독이 '오류적 오독'이 아닌 '창조적 오독'으로서의 깊이를 갖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문학적 이해가 텍스트가 "어떤 상상적 대상을 예시하고 있다고"[6]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 읽기에서 오독 역시 학습자의 상상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예희(2015)는 문학교육에서 오독을 "독자의 상상력을 확장해가는 방식의 하나"로 재개념화한 바 있다. 즉 "독자가 자신의 욕망과 희망의 요청에 따라 마음대로 텍스트를 풀고 다시 직조하는"[7] 자유로운 상상 활동 자체가 의미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시가 일반적으로 커다란 의미 공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 읽기에서 이렇게 '학습자의 상상에 의해 텍스트를 풀고 직조하는' 것은 어떤 사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시 텍스트에서는 단어와 단어, 시행과 시행, 시연과 다른 시연을 연계시켜주는 맥락이 자주 생략되어 나타나기에, 생략된 맥락을 연결짓기 위한 독자의 상상은 이론상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될 수 있다.[8] 하지만 현실적인 시 교실에서 이러한 커다란 의미 공백은 상상의 도약대라기보다는 학습자 자신과 텍스트 간에 존재하는 심미적인 간극을 체감하게 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시 텍스트의 기호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 점 역시 시 텍스트의 의미 공백을 크게 만들고, 학습자의 상상력의 확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학이론에서 환상성(fantasy)은 실재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해체 또는 변형함으로써 우리의 경험적 인

---

6) 최지현(2012), 「문학교육과 인지심리학 -문학적 이해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p.141.

7) 손예희(2015), 「문학 작품 오독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0(1), 국어교육학회, p.371.

8) 이러한 측면에서 강민규는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독자의 상상적 세계로 덧씌워지기 전까지 시 텍스트는 단편적인 진술들로 균열되어 있"다고 말한다. 강민규(2016), 앞의 글, p.43.

식을 위반하는 대상물들을 제시하는 문학의 특성을 뜻하는데,[9] 현대시는 이러한 환상성이라는 지향을 광범위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10] 즉 시 텍스트에서는 대상의 특성 또는 대상들 간의 관계가 일상 세계에서의 그것과는 다르게 변형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시인이 상상력에 의해 대상을 변형하는 맥락이나 과정은 텍스트에서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학습자의 다양한 상상 및 오독의 기반인 동시에 그것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때 꼭 텍스트의 난해함뿐 아니라 독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기대지평[11]이 상상력의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음의 전문독자 읽기 양상을 통해 이를 살피고자 한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내가 어느 서예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필통에 이 시가 새겨져 있었다. 잘 만든 도자기 필통이었다. 그 필통이 놓인 다탁을 사이에 두고

---

9) 토도로프(T. Todorov)의 환상문학 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잭슨(R. Jackson)에 따르면, 이 실재의 변형과 왜곡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사물들 사이의 시공간적 간격을 변형하는 것이다. 즉 환상문학은 일상에서 개별 사물들을 분리시키던 구별이 부재하고, 사물의 경계선과 사물들 사이의 간격을 변형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대상들은 탈경계화, 탈위치화되고 사물들 사이의 공간이 사물로 변형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상문학에는 기표와 기의 간에 간극이 생기는데, 잭슨은 이를 비-의미화(Non-signification)로 지칭한다. R. Jackson(1981),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2004),『환상성 :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pp.33-69.

10) 잭슨이 말한 환상의 개념은 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지만 시학 연구에서는 대체로 현대시와 환상 개념의 관련성을 인정한다. 일례로 나희덕은 토도로프나 잭슨이 말하는 '시'가 알레고리와 상징에 의존한 재현적 장르에 가까운 의미임을 지적하고, 이들의 환상 논의가 대상의 변형과 재구성을 통해 비재현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현대시의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김춘수의 무의미시는 "알레고리나 은유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기여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기호로부터 지시적인 의미가 사라진 이미지를 지향하는데 이는 잭슨이 말한 환상성 그 자체라는 것이다. 나희덕(2009), 「김춘수의 무의미시와 환상」, 『문학교육학』 30, 한국문학교육학회, pp.14-16.

11) 수용이론에서 기대지평(Erwartungshorizont)은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바람·선입견·이해 등으로 구성된, 작품의 이해와 관계된 전제 전반을 뜻한다. 이 기대지평은 수용에서 배제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수용의 전제 조건이며, 텍스트라는 낯선 지평과의 만남을 통해 '지평의 전환(Horizontawandel)'을 겪는 것이다. 차봉희 편저(1985),『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pp.31-38.

주인과 내가 마주앉자, 우리는 마치 이 시를 주제로 한 설치미술품처럼 느껴졌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려면 섬인 필통을 징검다리로 삼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저 사람도 섬으로 올 것이니 섬은 경유점이 아니라 목적지다. 다만 이 만남의 자리가 들판이나 광장이 아니란 것은 이상하다. 나도 고독하고 저 사람도 고독해서, 그 만남 또한 고독한 성질을 지닌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는 문득 반발한다. 그렇다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고쳐 생각한다. ㉡사람들은 섬처럼 떨어져 있지 않다. 그들은 서로 만나고 생각과 감정을 서로 교환한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만나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끝까지 털어놓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조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고독한 섬을 만들고 사람들을 고독하게 한다. (중략) ⓑ그런데 여기서 또 예의 섬 소년은 똑같은 질문을 늘어놓게 한다. 그렇다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화평하거나 절대적으로 고독하다는 말인가. (중략) 정현종의 「섬」과 관련된 내 비극은, 적어도 섬에 관한 한, 남들이 상징이나 비유로 받아들이는 말에 늘 공연한 사실을 들이대려는 어떤 강박증에 있다. ⓒ내 할아버지의 행장에는, 기차여행중에, 섬에 살면 식수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옆 사람의 질문을 받고 그 사람의 뺨을 때린 사건이 있다.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버지도 오래전에 저쪽 어두운 세계의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할아버지의 손자인 것이다.[12)]

위의 전문독자는 정현종의 「섬」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상의 경험을 회상하며 '섬'을 "도자기 필통"으로, '사람들'을 그 도자기 필통을 사이에 두고 앉은 필통의 주인과 자신으로 상상하거나(㉠), '섬'이 사람들이 서로 "털어놓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조각" 같은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 그러나 이처럼 시의 '섬'을 사실적 대상이 아닌 상상적 대상으로 떠올리려는 시도는, 자신이 살아오던 거주 공간으로서의 섬에 대한 "강박증"적 애착(ⓐ, ⓑ)으로 인해 번번이 중단된다. 타인에 의해 그 거주의 공간이 왜곡되고 변형되었던 불합리한 상황들(ⓒ)이 그 대상을 변형 불가능한(변형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으로 남게끔 하는 것이다.

12) 황현산(2020), 「섬의 상징 섬의 서사」, 『황현산의 현대시 산고』, 난다, pp.61-63.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시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실재를 상상적으로 변형하여 제시하는데, 이에 따라 시 텍스트의 언어에는 큰 의미 공백이 생긴다. 이러한 커다란 의미 공백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상상과 다양한 오독을 추동하는 기반이지만 시 텍스트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독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지평 자체가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상상력의 확대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해나가며 창조적 오독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상 내지는 사유 방식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적 몽상'의 개념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바, 관련된 내용을 다음 항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시적 몽상의 본질

(1) 몽상의 개념

일상적으로 몽상(夢想)은 꿈을 꿀 때와 같이 의식이 방기된 상태 혹은 현실 도피[13]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본 연구에서의 '몽상'은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바슐라르(G. Bachelard)가 사용하는 '질료적 상상력' 내지는 '몽상(reverie)' 개념과 관련이 깊다.

바슐라르는 상상력의 본령이 이미지의 '형성(形成)'보다는 지각 작용에 의해 받아들이게 된 이미지들에 대한 '변형(變形)'에 있다고 보는데,[14] 여기서 이미지의 형성과 변형이라는 두 축은 그의 상상력 논의에서 각각 형태적 상상력(l'imagination formelle)과 질료적 상상력(l'imagination matérielle)의 구분에 준한다. 먼저 '형태적 상상력'은 대상의 외관, 물질

13) 몽상 ①꿈속의 생각 ②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함. 또는 그런 생각. 『표준국어사전』.

14) "사람들은 상상력이란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늘 주장한다. 그러나 상상력이란 오히려 지각 작용에 의해 받아들이게 된 이미지들을 변형시키는 능력이며, 무엇보다도 애초의 이미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미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G. Bachelard(1943), 앞의 책, p.10.

적 특성, 운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재하는 어떤 대상의 형태를 3차원적으로 떠올려보는 상상력을 말한다. 이 형태적 상상력은 둘 이상의 대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둘 사이의 표면적 유사성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대상들을 그 고정된 외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대상 내부로 파고들지 못하고 그 표면에 머물다가 다른 대상으로 떠나가게 된다.

한편 '질료적 상상력'은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대상의 물질적·운동적 특성을 넘어서거나 반대되는 새로운 특질을 부여하는 상상의 작용[15]을 말한다. 질료적 상상력 혹은 몽상 활동에 의한 대상의 질적 변화라는 측면에는 외적인 형태를 초월해 상상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내용과 그 물질에 대해 상상하는 정신의 내용, 즉 어떤 대상과 그에 대해 상상하는 사람의 정신심리적인 가치 내용이 상호 투사(projection)[16]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즉 상상 활동 속에서 대상은 상상 주체와는 상관없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에게 특별한 정신심리적 가치들을 연상적으로 불러일으켜 그를 정신적으로 일깨울 수 있는데,[17] 이렇게 상상 대상에 대한 주체의 가치 부여 작용이 심

15) "어떤 물질적 특질을 상상한다는 것은 감각 가치, 현실 가치를 넘어서거나 반박하는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G. Bachelard(1948), 앞의 책, p.99.

16) 정신분석학에서 투사(投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심리적인 내용을 타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주로 부정적인 용법으로 쓰인다. 바슐라르는 종종 정신분석학의 용어를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하는데, 바슐라르의 맥락에서 물질과 정신(영혼)의 관계는 정신에 의해 물질이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보다는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투사' 역시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바슐라르의 질료적 상상력 이론에서 '투사'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김병욱(2010b), 「'바슐라르- 뒤랑- 마페졸리' 3자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3, 프랑스문화예술학회, pp.42-44를 참조.

17) 후설은 연상(Assoziation)을 대상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추동하는 근원적인 작용으로 보고 연상을 '노에마(Noema)'와 '노에시스(Noesis)' 양측의 '깨움(Weckung)'으로 정의한 바 있다. 노에시스 관점에서의 연상에 의한 깨움이란 "자아의 깨움"으로서, 어떤 감각이나 대상이 자아 스스로에게 주의를 돌리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한편 노에마 관점에서의 깨움이란 "하나의 감각이나 대상이 다른 감각이나 대상을 의식에 떠오르게 하는 감각 혹은 대상의 깨움"으로서, 이는 감각소여 혹은 대상 간에 이루어지는 연상과 관련된다. 몽상 활동에서 대상에 의한 연상적 깨움 역시 이 노에마와 노에시스의 깨움 두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노에시스 측면에서의 일깨움은 몽상가가 상상적 대상을 통해 특정한 정신심리적인 내용들을 환기하는 것, 노에마 측면에서의 일깨움은 그 상상적 대상과 유사성 또는 인접성과 같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떠올리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노에마 측면에서 연상적으로 떠오른 대상이라고 해서 연상을 하는 주체와 어떤 정신심리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화되면 상상 주체는 그 대상에 대한 기존의 인지를 초월하여 대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상상 대상에 대한 심리적 가치 부여가 심화되어 대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상의 경우를 바슐라르는 '질료적 상상력' 또는 '몽상'으로 설명한다.

한편 바슐라르는 인간의 에너지가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두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신분석학의 관점을 받아들여, 몽상을 작용 방향에 따라 '외향적 몽상'과 '내향적 몽상'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인간의 상반된 행동인 '일'과 '휴식'의 행위에 결부시키기도 한다. 먼저 외향적 몽상이란 사물의 외부에 작용하는 몽상으로, "물질에 대응 작용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능동적 몽상"으로 정의된다.[18] 여기서 물질에 대응 작용한다는 것은 주체가 대상의 바깥에서 구체적인 외향적 일 내지는 행동을 가하고, 그 결과로 대상을 외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내향적 몽상은 사물의 내부에 작용하는 몽상으로, 어떤 대상의 내부 구성이나 운동 특성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지 내용을 넘어 그 대상의 내부에 인간적인 가치를 결부시키는 상상력을 말한다. 예컨대 표면에 밀랍칠을 칠한 나무쟁반에 은은한 윤기가 차차 올라오는 것을 "죽은 나무의 가슴으로부터" 즉 내부에서 외부로 전해지는 운동으로 본다든지,[19] 동굴과 같은 큰 사물에서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작은 세계를 읽어내고 그 속에 거주하려는 상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향적 몽상은 몽상가가 대상의 보이지 않는 내부를 지각적으로 파악하려는 행위이면서, '보이지 않아야만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포함한다. 즉 대상의 내부를 향한 몽상은 그 대상의 내부에 통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보려 하고,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시각적인 적극성 내

고는 말할 수 없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구름'이라는 단어를 통해 솜사탕을 떠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름을 먹고 싶다'라고 했다면, '구름'에 의해 연상적으로 일깨워진 대상인 '솜사탕'이 그 달콤함이나 부드러움과 관련해 연상을 하는 주체에게 구체적인 욕망을 연상적으로 일으킨 것으로서 양측의 깨움은 일상에서는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둘을 구분하기보다는 두 연상 모두 몽상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보고자 한다. 김태희(2014), 「발생적 현상학에서 시간의식과 연상」, 『현상학과 현대철학』 62, 한국현상학회, pp.49-50.

18) G. Bachelard(1948), 앞의 책, p.12.

19) 이 예시와 관련해서는 위의 책, p.58을 참조.

지는 의지의 차원이 동반된다. 이를테면 어떤 대상의 내부에 그 대상의 표면과 반대되는 성질, 이를테면 '우유의 겉이 희다'라는 문장을 읽고서 '우유의 속은 검다'라는 물질적 특질을 부여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야만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내향적 몽상에 해당한다.

한편 바슐라르는 깊은 몽상 속에서는 내향적 몽상과 외향적 몽상은 잘 구분되지 않으며, 외향적 몽상의 경우도 대상의 내밀한 영역을 파고드는 내향적 몽상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내향적 몽상이 더 근본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사물의 내부를 향하는 것은 몽상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단단하고 마른 포도씨 하나를 머릿속으로 떠올린다고 할 때, 그것의 단단함에 대항해 포도씨를 상상적으로 으깨는 것(일하는 것)은 외향적 몽상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깨어진 포도씨의 내부 공간에서, 그 얇은 피막 아래 내부의 섬유질에서 미래의 포도나무 가지들과 포도알의 자라남을 보며 상상적인 포도나무밭의 풍경에 머무르는 것(휴식하는 것)은 내향적 몽상의 예시로 들 수 있다.[20]

이와 같은 몽상의 활동은 물질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몽상가의 몽상을 돕는 어떤 물질을 매개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21] 몽상은 대상의 형태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상상적 활동으로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해체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바슐라르는 이러한 형태의 해체 및 재구성을 도와주는 대상들을 고대 자연철학의 4원소론에 기대어 불, 물, 공기, 흙으로 제시하고 이들이 상상력의 기본 질료(matière)[22]라고 말한다. 그리고 몽상가의 몽상 속

---

20) 이 예시는 다음의 대목에서 등장한다. "바니에르 신부와 같이 이성적인 저자조차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전원의 특성Praedium Rusticum』, 베를랑 역, 1756년, 제2권 168쪽) : "만일 어떤 사람이 포도씨를 으깨어, 그로부터 가냘픈 섬유질을 분리해낼 만큼 솜씨가 있다면, 그 얇고 미묘한 피막 아래서 그는 미구에 우거질 가지들과 포도알들을 찬탄하며 보게 될 것이다. 단단하고 마른 씨 속에서 미래의 포도 수확을 읽어낸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도록 위대한 꿈인가!" 위의 책, pp.29-30.

21) 질료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몽상은 바슐라르의 상상력 논의에서 '역동적 상상력'에 해당하며, 매개를 통해 일어나는 상상력은 '질료적 상상력'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지훈(2004)에서도 지적하는 바 질료적 상상력과 역동적 상상력은 그 매개의 정도 상의 차이일 뿐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엄밀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상상력의 상세한 작동 방식보다는 몽상에 의해 학습자들의 시 읽기가 어떻게 풍부해질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이지훈(2004), 『예술과 연금술 — 바슐라르에 관한 깊고 느린 몽상』, 창비 참조.

에서 어떤 대상에 새롭게 부여되는 운동 방식이 물, 불, 흙, 공기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때, 그 대상은 물, 불, 흙, 공기의 질료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즉 어떤 대상을 질료성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재료'보다는 그것의 변화와 움직임이라는 '운동'의 측면에서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한다. 시 텍스트에 나타난 시인의 몽상을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실질을 꾀하고자 한다.

잔물결 일으키는 고기를 낚아채 어망에 넣고
호수가 다시 호수가 되도록 기다리는
한 사내가 물가에 앉아 있다
그 옆에서 높이로 서 있던 나무가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

– 오규원,「호수와 나무—서시」

위의 시는 표면과 깊이라는 두 층위를 가진 물의 운동성에 의해 나무가 해체되고, 또 새롭게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호수에서 물가에 앉은 사내의 옆에 '높이로 서 있던' 나무는 형태적이고 재료로 존재하는 나무로서, 그 자신의 분명한 윤곽선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한편 호수로 시선을 돌려볼 때, 호수 표면에 반사된 나무는 물고기가 일으키는 잔물결 속에서 그 윤곽선이 끊임없이 해체되고 있다. 즉 호수 표면의 물은 일차적으로 나무를 해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호수는 깊이로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영역과 운동을 가진 실체이기도 하다. 만약 이 표면의 움직임이 잦아든다면, 호수는 물이라는 질료에 의한 대상 용해적인 작용(나무의 윤곽 해체)를 넘어 그 대상을 자신의

22) 바슐라르의 질료 개념은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살(chair) 개념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관련하여 한우섭은 메를로-퐁티의 '살' 개념을 '재료'로서의 질료 개념을 초월한 현상의 '원리'로서 해석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바슐라르를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메를로-퐁티가 '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소' 개념은 물질과 정신 어느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닌데, 이는 바슐라르가 4원소의 질료적 상상력을 변화무쌍한 형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운동의 원리로서 제시한 것을 환기시킨다. 한우섭(2000),「동서양의 근원존재 : 메를로-퐁티의 '살' 개념과 동양의 '기'론」,『동서철학연구』95, 한국동서철학회, p.246.

깊이로 또렷하게 담아낼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물의 잔잔한 표면과 깊이라는 이중성은 '나무'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체되고, 다시금 구성되는 변화의 원리가 된다. 호수의 깊이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나무는 '높이'가 아닌 '깊이'라는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다음의 시 텍스트는 형상들의 해체를 돕는 질료 없이 정신이 물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외향적 몽상의 양상을 보여준다.

바다는 뿔뿔이
달어 날랴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 같이
재재발렀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었다.

힌 발톱에 찢긴
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루 몰아다 붓이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시쳤다.

이 앨쓴 海圖에
손을 싯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회동그란히 바쳐 들었다!
地球는 蓮닢인양 옴으라들고……펴고……

— 정지용, 「바다 9」[23]

소래섭은 위 시를 지도(地圖) 제작의 과정으로 보는데, 그의 분석에 따르면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시'쳐내는 시적 화자의 행위는 끊임없이 달아나는 "파도의 움직임을 고정시키기 위해 파도에서 물의 흔적을 지"워 "딱딱하게 고정"[24]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바다의 경화 과정은 바다를 잡고자 하는 의지, 유동적인 물질에 대응하여 일을 가하고자 하는 손의 역동성에 의해 대상이 질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바다'는 경화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찰찰 넘치'고 '돌돌 굴르'는, 그리고 밀물과 썰물처럼 '연닢인양 옴으라들고……펴'는 운동성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역시 평면 지도로서의 바다를 '회동그란히 바쳐 들'기 위한 손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바다에는 '지구' 혹은 연잎이 갖는 부피감 내지는 내밀성의 차원이 부여된다. 이와 같은 바다의 질적 변화 과정은 외향적 몽상과 내향적 몽상이 함께 작용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몽상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몽상은 어떤 대상을 형태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상 주체의 정신심리적인 내용과 대상의 물질적인 특질들이 교환될 수 있거나 대상의 물질적, 운동적 특성이 질적으로 변형 가능하다고 보는 상상의 방식을 말한다. 또한 대상의 내밀한 영역에 자신이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에 따라 대상, 나아가 그를 둘러싼 배경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상상이다. 이러한 변화—대상 자체의 형태·내부의 물질·운동 특성 변화, 혹은 그 대상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 변화—는 상상적인 어떤 질료를 매개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몽상의 활동은 개념적 모순을 동일자로 화해시키는 사고의 변증법이 아니라 물질적 특성의 모순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대상들을 그 뚜렷한 외관 속에서 객관적으로 관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 대상의 비가시적인 이면을 적극적으로 봄으로써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와 운동, 이행[25]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슐라르는 자신의 후기 저서

23) 정지용(1935), 박용철 편,『정지용시집』, 시문학사.
24) 소래섭(2001),「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자연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에서 ‘질료적 상상력’이라는 용어 대신 ‘몽상’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시 창작의 층위에서가 아닌 독서의 층위에서 물질적 특질을 새롭게 부여하는 상상력을 강조하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독자 층위, 시 읽기 교육에서 몽상 개념의 적용은 다음 항에서 논하고자 한다.

(2) 시적 몽상의 개념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이 다양한 감각의 심적 형성력뿐만 아니라 문학적 의미를 형성하기 위한 “변형적 형성력”까지를 포함하는 것[26]이라고 할 때, 시 읽기에서 학습자의 상상력은 기존 경험에 기반해 대상의 외관을 재생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변형으로서의 상상력 교육에 있어서, 대상의 고정된 형태 이면의 내밀한 물질적·운동적 특성을 변형하는 몽상의 개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바슐라르의 ‘몽상’은 주로 시 전체가 아닌 고립된 하나의 이미지 또는 시행을 단위로 하는 개념으로,[27] 이를 시 읽기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오 역시 바슐라르의 몽상과 관련한 논의들은 교육학적 측면에서 외적 대화를 통해 보

---

25) “역동적인 시에서 사물은 있는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뭔가가 되어가는 것이다.” “‘상상력은 이행(devenir)이다.” G. Bachelard(1942), 김병욱 역(2020),『물과 꿈』, 이학사, p.82, p.171.

26) 오정훈(2013),「문학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시교육 방법」,『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3(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53-55.

27) 바슐라르는 몽상 활동이 지속성을 띠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상물 위에 집중되어야 하며, 시의 아주 작은 이미지가 그 대상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미지를 전개시키는 말의 작은 단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시 읽기를 통해 대상 위에 놓이게 된 독자의 몽상, 언어로 표현된 몽상을 그는 ‘시적 몽상’으로 부른다. 본 연구의 ‘시적 몽상’ 용어 역시 바슐라르의 상상력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시 텍스트 전체의 해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적 몽상을 다루는 본 연구의 관점과는 달리 바슐라르는 독서가의 몽상적 자유로움을 더 강조한다. 관련된 대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의식은 그것이 더 잘 조직화된 작품을 향할 때, 그만큼 더 강렬하게 구성된다. 특히 《합리성의 의식》은 현상학자에게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영속성이라는 덕목을 갖고 있다. 그로서는 어떻게 해서 의식이 일련의 진실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가를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립된 이미지를 향하게 되면 상상적 의식은—적어도 척 보기에는—훨씬 책임감을 덜 느낀다. 개별적 이미지와의 관련하에서 생각될 때, 상상적 의식은 현상학적 이론의 기본적 교육체계에 여러 주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밑줄: 연구자) G. Bachelard(1960), 앞의 책, p.10.

완되어야 한다[28]는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몽상을 활용한 시 읽기 교육에서 이 대화의 상대자는 무엇이며 그 대화의 양상은 어떤 것인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교육에서의 상상은 “체험의 근본 조건”이자 텍스트 “해석의 실현 방식”[29]으로 설명된다. 즉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상상은 미적 체험의 바탕일 뿐 아니라,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체험을 의미화하여 학습자 자신의 삶의 맥락으로 통합하는 기제이다. 작가의 상상을 그대로 추체험하거나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일방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아닌, 텍스트 타자와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체험의 의미를 밝혀나가는 데 소용될 때 학습자의 상상은 “분열된 인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인간(man as a whole)을 형성”[30]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고려할 때, 시 읽기에서의 몽상 역시 시 텍스트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화될 때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 읽기에서의 ‘시적 몽상’은 우선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시적 몽상은 시의 언어를 통해 떠오르는 일상적인 대상의 특성을 질적으로 변형하는 활동이다. 앞서 몽상의 개념을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특성과는 다른 새로운 특질을 부여하는 상상의 작용’으로 설명한 바 있다. 시적 몽상에서 이 ‘대상’이란 ‘시어를 통해 환기되는 일상의 경험 대상’을 말한다. 시 읽기에서 이는 대상에 대한 기존의 인지가 적용되지 않는 시 텍스트의 언술, 즉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일상적 대상의 변형이 이미 감지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더 잘 촉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적 몽상은 시 읽기 중에 일어난 몽상의 과정을 시 텍스트의 관계 속에서 의미화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의미화 양상은 몽상가인 학습자가 시의 언어를 통해 떠오르는 대상에 표층적으로만 참여하는지, 혹은 대상의 물질적 특성과 운동적 특성이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정신심리적인 가치들을 의식하며 대상에 심층적으로 참여

---

28) 이상오(2009), 「Gaston Bachelard의 “상상력 철학”의 교육학적 의미」, 『교육철학연구』 46, 한국교육철학학회, p.180.

29) 최지현(2014), 『문학교육심리학』, 역락, p.83.

30) 우한용(1997), 「문학교육에서 문화와 상상력」,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55.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의 전문독자(시인)의 시적 산문을 통해 시적 몽상의 구체상을 살피기로 하자.

① 햄버거들이 행성처럼 떠도는 도시
그 뒤로 무수한 입들이 흩날리며 따라가고
그 뒤로 무수한, 부드러운 혀들이, 침들이 흩날리며 따라가고

② 햄버거는 끊임없이 자란다.

③ 햄버거와 양상치, 또는 감자 사이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④ '하느님, 저희에게 달콤한 것들을 내려주소서, 부디 달콤하고 부푼 것들을, 끊임없이 팽창하는 것들을…… 저의 아이들을 잊지 마소서…….'

⑤ 우주만큼 커지는 눈물방울들,

⑥ 그러나 오오,
햄버거는 기억하지 않는다,

⑦ 햄버거는 이 행성을 그 불멸의 빵껍질로 덮어 간다.

⑧ 가끔 외치듯 질문하면서

⑨ 햄버거의 입술 위에 우리가 엎드리는가,
햄버거가 우리의 입술 위에 엎드리는가.[31)32)]

---

31) 강은교의 시·산문집『꽃을 끌고』에 수록된 산문들은 "시가 쓰인 그 시절의 산문을 토대로"(p.6) 작성된 글들로, 시에 대한 감상문이자 하나의 해석 텍스트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① ~ ⑨ 표시는 연 구분을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한 것이다. 강은교(2022),『꽃을 끌고』, 열린원, p.99.

32) 박윤우는 강은교의『어느 별에서의 하루』(1996)를 자본주의의의 폭력으로 분열된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집이라고 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시적 산문 역시 "물신주의와 대중적 소비문화가 팽배한 도시에 대한 환멸"을 가시화하면서도, 그 분열된 일상의 무의미함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시도하는 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위 글의 1연에서는 햄버거가 하늘에서 “떠도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의 “입들”, “혀들”, “침들”이 이 떠도는 햄버거를 “흩날리며 따라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시의 첫 행에 ‘그 여자는 정오에 구름을 보며 햄버거를 먹었다.’라는 구절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대목은 하늘에서 떠돌고 흩날리는 구름의 운동성에 의해 시인인 전문독자가 ‘햄버거’ 및 ‘여자’의 육체를 구름의 질료로 몽상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33] 전문독자가 인간의 육체를 이루는 요소들을 이렇게 연약한 운동성으로 몽상하는 데에는 위 글의 4연에 나타나는, 햄버거 및 인간에 대한 전문독자의 가치 부여와 관련이 깊다. 해당 부분에서 인간은 기우제를 지내듯 ‘하느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간청하며 기대는 연약한 존재로 나타나 있는데, 전문독자가 인간에 대해 떠올렸을 법한 이 ‘기댐’과 ‘연약함’이라는 특성이 (‘여자’라는 시어를 통해 환기된) 인간의 육체성을 ‘햄버거를 흩날리며 따라가는 어떤 것’으로 몽상하게끔 추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전문독자는 햄버거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는데(“햄버거는 끊임없이 자란다”), 이러한 햄버거의 확대는 햄버거에 절대자처럼 기대며 따라붙는 입들, 혀들, 침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흩날리는 구름과 같이 연약한 개별자적 입들, 혀들, 침들은 비라는 자신보다 단단하고 풍요로운 물질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달콤한 것들을 내려주소서”) 햄버거의 일부가 되고, 이 햄버거-구름 속에서 “우주만큼 커”다란 “눈물방울들”을 빗방울처럼 생성하게 된다.

박윤우, 「존재탐구로부터 존재인식으로 이르는 길」, 유성호 편(2005), 『강은교의 시세계—허무와 고독을 넘어, 타자를 향한 사랑으로』, 천년의 시작, pp.138-139.

33) 강은교는 특유의 허무의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육체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쉬이 해체될 수 있는 물질 내지는 허공과 교환 가능한 것으로 상상한다. 예컨대 초기 시인 「단가 3편-붉은 해」에서 “부끄러워라 우리 살은/ 한 대접 냉수에도 쉬이 풀리는/ 소금이라 하더이다”, 「풍경제-비」에서 “끝나서 구름이 되는 살/ 끝나서 즐거운 구름이 되는 그대”라는 구절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강은교 시인은 “사물을 평면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대상으로 보면서 보이는 것의 이면에 주목하”면서 “고정된 실체로 파악할 수 없는 사물의 잠재성을 표현”하는 문제에 천착하는데, 안지영은 이를 샤머니즘과 관련지어 분석하기도 한다. 강은교(1974), 『풀잎』, 민음사, pp.32-101; 안지영(2017), 「한국시에 나타난 샤머니즘의 재인식을 위한 시론 — 강은교 시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4(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304-311.

“그러나 오오,/ 햄버거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후 부분은 시의 마지막 연인 ‘오, 햄버거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부분에 대한 몽상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시에서 ‘빗방울’은 땅으로가 아니라 ‘두 개의 빵껍질 사이에서 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전문독자가 떠올리는 “행성을 그 불멸의 빵껍질로 덮어” 가는 햄버거의 이미지는 인간에 의해 거대해진 햄버거-구름이 인간의 바람과는 달리 비를 내려주지도 해체되지도 않고 더욱 거대해지기만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글의 마지막 부분인 “햄버거의 입술 위에 우리가 엎드리는가,/ 햄버거가 우리의 입술 위에 엎드리는가” 부분은 이렇게 거대해진 ‘햄버거’가 결국 그 인간 존재를 완전히 삼킬 수 있다는 전문독자의 우려가 표명된 부분이자, 입술 안에 햄버거가 있는 일상적인 공간성을 뒤집어 햄버거에 새로운 차원의 내밀성을 부여하는 몽상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독자의 시적 몽상에서 주요하게 작용했을 법한 사고 과정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몽상의 필요성 인식]

시를 읽고 시어(‘햄버거’, ‘구름’, ‘여자’)를 통해 대상들의 일상적 형태를 떠올리지만, 이 형태적 이미지들 각각이 시적 대상들에 잘 적용되지는 않음. 독자는 시의 언어를 통해 떠오른 일상적인 대상의 형태들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느낌

|

[몽상의 방향성 탐색 및 대상의 질적 변화 실현]

시적 대상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떠오른 가치를 특정한 물질적 특성과 연계함(인간 존재인 ‘여자’가 어떤 절대자에게 기도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떠올리고, ‘연약함’과 관련해 연상한 단어 ‘흩날리다’를 구름과 연계함). 생성된 연계성(여자=구름)에 기반해 대상 내부의 비가시적 영역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상상된 풍경 전반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해 봄(흩날리는 입, 혀, 침의 구름이 햄버거-구름을 좇는 이미지)

|

[몽상의 심화·의미화]

몽상의 내용을 시 텍스트의 언어 전반에 적용해 보며 심화하여 전개(‘햄버거-구름’=여자+여자+…, 빗방울=여자의 눈물)하고 의미화함

시의 저자이기도 한 위 전문독자의 경우에는 몽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이 글에 생략되어 있지만, 몽상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실제 학습 독자의 경우에는 우선 시를 읽고 몽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적 몽상의 활동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일상적 대상의 형태들이 시적 대상들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감지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어 몽상의 방향성을 탐색하여 대상의 내부 영역 및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요소들에 운동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동반되는데, 이는 시적 대상과 관련해 떠오르는 주관적 가치를 특정한 물질적 특성과 연계시킴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몽상의 과정은 시 텍스트라는 상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심화되고 의미화될 때 일관성 있는 미적 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를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을 감지하고,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과 주관적 가치를 결부시키며 대상에 운동성을 부여하고,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몽상을 의미화하는 방식의 시 읽기'로 정의할 수 있다.

2. 시 읽기에서 시적 몽상의 구조

시적 몽상의 활동은 독자가 시 텍스트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들의 경험적인 형태를 떠올리며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성을 감지하고, 대상 내부의 질적 영역에 주관적인 인간적 가치를 결부함으로써 대상을 역동화하고 새로운 형태를 산출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독자의 몽상 과정은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활성화되고 의미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적 몽상의 구조를 1) 형태적 상상에 기반한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성 감지, 2)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에 대한 주관적 가치의 투사와 대상의 역동화, 3)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의미화로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꼭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 읽기의 과정에서 상호 개입할 수 있으며 순환적인 관계를 가

지고 있다. 예컨대 대상의 외적인 형태를 그려보는 형태적 상상은 시적 몽상의 첫 단계에서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에 대한 탐색을 거쳐 시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에 있어서 작용할 수 있으며, 몽상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주관적 가치의 투사 과정은 텍스트와의 대화 과정 속에서 조정될 수 있다.

1) 형태적 상상에 기반한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성 감지

시적 몽상의 활동에서 독자인 학습자의 대상에 대한 참여는, 우선 시 텍스트의 언어를 경험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읽으며 어떤 시적 대상을 구체적인 물질성을 가진 대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34] 시의 언어를 통해 대상을 떠올리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개입하는 것은 형태적 상상력, 즉 부재하는 어떤 대상의 외적인 형태를 떠올려보는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형태적 상상력과 관련해서는 형태 심리학(Gestalt psychology)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형태 심리학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이 전경(figure)과 배경(ground)의 지각적 분리(perceptual segregation) 작용, 즉 전체 자극 중 주의의 대상이 되는 상(象)을 앞에 위치시키고 그 외의 부분을 배경으로 분리하는 작용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전경과 배경의 분리는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지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서, 전경화되는 대상의 윤곽에 의해 전경과 배경의 분리는 심화된다.[35]

이처럼 지각에 있어서 대상의 윤곽, 즉 외적인 경계선을 포함한 우리의 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대상물을 상상적으로 떠올려야 할 때 지각이 어떻게 가능한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특히 하나의 대상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대상 간에 성립하는 물리적인 관계의 변화가 감지되는 경

34) 박주형은 우리가 “특정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그 대상에 빠져”드는 것이며, “그 대상 주위의 다른 대상과의 관계 가능성의 지평을” 여는 것으로서 우리가 세계를 파악하고 그 세계 속에 거주하게끔 한다고 설명한다. 박주형(2021), 앞의 글, p.46.

35) E. B. Goldstein(2007), 김정오 외 역(2007), 『감각과 지각』, 센게이지러닝코리아, pp.120-121.

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여자는 정오에 구름을 보며 햄버거를 먹었다.

햄버거에서 구름이 떨어졌다.
그 여자는 구름이 맛있다고 생각하며 먹었다.
그 여자는 손가락을 쪽쪽 빨며 소스가 쳐 있는 햄버거의 고깃덩이를 씹었다.

순간
빗방울이 두 개의 빵껍질 사이에서
떨어졌다.

오, 햄버거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 강은교,「햄버거와 구름」

위의 시는 배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소가 전경으로 침투하는, 혹은 전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소가 배경에 침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 텍스트를 읽으며 독자는 먼저 '그 여자는 정오에 구름을 보며 햄버거를 먹었다.' 부분을 통해 구름을 보면서 햄버거를 먹는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때 햄버거와 여자는 상대적으로 전경화되는 반면 구름은 배경의 요소로 햄버거와 여자라는 대상의 뒷면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독자가 구성한 이러한 전경–배경 관계는 '햄버거에서 구름이 떨어졌다'라는 언술에서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 대목을 읽으며 독자는 햄버거라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구름이 떨어져 분리되거나(detach), 혹은 햄버거로부터 구름이 아래로 떨어지는(fall) 상황을 가정하게 된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경우이든 전경화된 요소인 햄버거와 배경화되어 있던 요소인 구름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독자는 전경과 배경을 명증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독자인 학습자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하는 대상이 우리의 경

험적인 인식을 벗어나 그 윤곽을 확정짓기 어려울 때, 전경과 배경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독자인 학습자가 형태적 상상을 동원하여 시 텍스트의 대상을 재현한 결과, 오히려 그 대상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모호함만을 감지하는 것을 '형태적 상상에 기반한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성 감지'로 명명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적인 모호성을 감지함으로써 학습자는 대상의 표층을 넘어 비가시적인 내밀성을 탐색하고, 그에 인간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대상을 역동화하는 몽상 활동으로 추진된다.

한편 시 읽기에서 독자가 시적 대상의 형태적인 모호성을 감지했다고 해서 대상과 관련한 형태적 상상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성을 감지하게 될 때, 독자인 학습자는 우선 대상의 세부적인 형태를 구체화함으로써 그 대상을 다른 대상들과 구별되는 윤곽선을 가진 것으로 분별하려는 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그 대신 시적 대상들 사이의 유사성을 연상적으로 환기함으로써 서로 분별되는 대상들을 통일적으로 묶어주는 어떤 내밀한 질서를 파악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대상들을 근접시키려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태적 상상이 다시 동원된다. 즉, 독자인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해 환기되는 시적 대상의 형태적인 불분명함을 극복하고 전경과 배경의 구분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다른 대상들의 가시적인 특성의 유사성을 연상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여기서 가시적인 특성이라 함은 그 대상들의 가시적인 형태 및 그 형태의 결정에 기여하는 물질적 상태(고체/액체/기체), 그리고 표면적인 운동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시적 몽상의 초기 과정에서 형태적 상상은 시적 대상의 형태적인 모호함을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시적 대상과의 연관 관계를 탐색하도록 독자를 추동할 수 있다.

시 읽기에서 대상들 간의 관계가 표면적 유사성의 층위에서부터 심층 의미의 동질성에 의해 연결된다고 할 때,[36] 가시적인 특성의 유사성을

36) 손예희는 시 텍스트 읽기를 통해 유도된 독자의 서로 다른 대상들 사이의 표면적 유사성에 대한 탐색을 '전이적 상상력'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이를 통하여 가설적인 실체들을 상상 가능한 형태로 개념화하는 방법은 새로운 개념을 선행 지식이나 경험에 바탕을 둔 기존의 인지구조에 능동적으로 동화하도록 촉진하고 그 인지 내용의 변형을 용이하게 해준다." 손예희(2011), 앞의 글, pp.44-45.

떠올리는 것만으로 두 대상 간에 긴밀한 관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가시적인 특성은 결국 그 형태를 내부에서 결정하는 어떤 내밀한 질서 내지는 질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것의 현상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때, 가시적인 특성의 유사성을 환기하는 것은 대상의 내부 영역 내지는 비가시적 운동을 파고드는 데 있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독자인 학습자는 시를 읽으면서 형태적 상상력을 동원해 어떤 윤곽선을 가진 대상을 전경화하고, 그 배경도 함께 지각적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이 형태적 상상에 의한 대상의 구성 행위는 시 텍스트에서 일탈적인 표현이 감지되는 곳, 즉 시적 대상 간의 관계가 그 대상들의 관계에 대한 학습자의 기존의 인지와 모순되는 것으로 감지될 때 중단된다. 이 경우 독자는 시적 대상을 하나의 유기적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떠올리기보다는 파편적인 이미지들만을 따로따로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대상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인식과 시 텍스트에 구현된 대상 관계에 모순이 생길 때, 학습자는 시적 대상의 형태적인 모호성 내지는 불확실성을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적 모호성을 감지함으로써 학습자는 대상의 가시적인 유사성을 떠올려보거나, 시적 대상과 유사한 다른 대상의 이미지를 떠올려보기도 한다. 이렇게 형태적인 유사성에 기반해 대상에서 대상으로 옮겨가는 형태적 상상력 역시 경험적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깊은 정체성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상 자체의 감각성에 의존하여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37]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들은 대상들의 비가시적인 영역을 탐색하는 데로 나아가게 된다.

2)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에 대한 주관적 가치의 투사와 대상의 역동화

시 텍스트와의 대화 속에서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에 새로운

37) G. Bachelard(1958), 곽광수 역(2003),『공간의 시학』, 동문선, p.62.

물질적 특질을 부여하는 시적 몽상의 활동은 그 대상에 대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참여'란 대상과 관련하여 촉각적인 느낌을 환기하고, 대상에 대해 주관적 가치들을 투사하며 대상 내부 영역의 비가시적 형태들과 운동을 가시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한 참여는 대상 자체뿐 아니라 대상을 둘러싼 배경 요소들 전체에 새로운 운동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형태 심리학의 전경-배경 구도에서 하나의 대상에 시각의 집중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볼 때, 시 텍스트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내부에 대한 이미지를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대상의 내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전경화될 수 있다. 예컨대 호두와 같은 친숙한 대상물의 경우, 호두껍질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대상물의 내부를 관찰하거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부재할 때, 특히 시 텍스트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이 형태적으로 모호할 때 그 내부는 미지의 영역, 암흑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대상물로부터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감지하게 될 때, 그 대상의 내부는 몽상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신심리적인 가치와 결부되어 그 현실적인 형태와 크기 속에 갇히지 않고[38] 새로운 운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때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에 대한 주관적 가치의 투사 행위는, 그 대상 자체 또는 자아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대상의 경도(硬度), 물질적 상태(고체/액체/기체, 혹은 단단한지/부드러운지/만질 수 없는지), 무게 등 촉각과 관련된 특질에 대한 우리의 느낌 및 경험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진다. 촉각과 관계된 특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체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촉각과 관계된 운동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적 몽상의 과정에 있어서 대상의 경

38) 바슐라르는 상상된 사물들은 본래의 크기를 지키지 않으며, 작은 사물들의 내부가 클 수 있다는 주장을 자주 한다. 예컨대 포도씨는 객관적으로는 매우 작고 유동적이지 않은 대상이지만, 포도씨 내부에서 상상된 '포도나무'의 공간은 포도씨보다 훨씬 크다. 관련된 대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상상력의 한 원리로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꿈꾸어진 사물들은 절대로 본래의 크기를 고수하지 않으며, 그 어떤 크기로도 고정되지 않는다. (…) 바로 여기서 참으로 변증법적인 하나의 조망 관점이, 전도된 조망 관점이 제안될 수 있는데, 작은 대상물의 내면세계는 크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G. Bachelard(1948), 앞의 책, pp.24-25.

계를 비롯한 촉각적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인지심리학자인 존슨(M. Johnson)의 상상력 논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존슨은 우리의 경험과 이해가 우리의 반복적인 신체 경험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보고,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조직화하는 활동의 지속적 구조"를 '영상도식(image schema)'으로 명명한다.[39] 영상도식을 통해 의미가 발생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존슨은 특히 물리적 포함과 배제, 공간적 경계성(boundedness)과 관련된 경험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말한다. 인간을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신체적 존재로서 자신의 몸속에 "어떤 물건들(음식, 물, 공기)을 집어넣고, 다른 것들(음식과 물의 찌꺼기, 공기, 혈액 등)을 유출"한다. 그런 한편 경계지어진 공간의 안 또는 밖으로 이동하거나, 물건들을 안으로 집어넣고 빼는 등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축적한다. 이렇게 경계성과 관련된 지각과 운동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도식이 생겨나는데, 존슨은 이를 '안-밖 지향성(*in-out* orientation)'의 도식으로 명명한다.[40]

존슨에 따르면 이 안-밖 지향성은 본래적인 물리적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비공간적이고 비물리적인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영어에서 '동사 + out' 구문은 실제적인 물리적으로 경계지어진 [공간]의 내부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외에도 어떤 [상태]로부터의 벗어남, [발화 내용]의 일부를 제하는 것, [합의·계약·의무]를 위반하는 것, [미지의 것 또는 감지되지 않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데,[41] 이러한 언어의 용법에는 괄호[ ] 안에 있는 것을 '경계지

---

39) M. Johnson(1987), 노양진 역(2000),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105.

40) 위의 책, p.93.

41) 물리적인 것에서 비물리적인 것으로의 은유적 투사와 관련하여 존슨이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들을 각 항목별로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2(c) Whenever I'm in trouble, she always bails me out.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녀가 나를 구해 준다. " 이 사례는 [상태]를 어떤 내부와 경계를 가진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3(b) I don't want to leave any relevant data out of my argument.
(나는 내 논증에서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빼고 싶지 않다.)" 이 사례는 [논증]을 어떤 내부와 경계를 가진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4(c) He will weasel out of the contract, if he can.
(그는 할 수 있으면 계약을 깰 것이다.)" 이 사례는 [계약]을 어떤 내부와 경계를 가진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어진 개체이자 개인에게 힘을 작용하는 어떤 것'으로 보는 도식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존슨은 이렇게 안 또는 밖이라는 "관점(perspective)을 갖는 것은 영상도식의 일부"[42]이며 공간적이건, 시간적이건, 은유적이건 우리의 의미 경험을 특정한 방향으로 구조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존슨은 이와 같이 안-밖 지향성의 반복적인 체험적 영상도식이 우리의 새로운 경험에 있어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43]

그렇지만 존슨은 이러한 영상도식이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제한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심적으로 이 도식을 변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대상에 대한 몽상가의 주관적인 가치 부여를 통해 대상이 본래의 물질적 특성과 운동성을 벗어나서 새로운 특질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바슐라르의 관점과 통한다. 바슐라르는 사물들 속에서 인간 주체 혹은 인간의 정신심리적인 가치를 보고, 대상의 물질적 특질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위해서는 몽상가가 대상의 무게, 경도와 같은 물질적 특성들을 떠올리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특성이 자신에게 유발하는 느낌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경도의 경우 몽상가가 대상의 내밀성에 관여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44] 어떤 대상의 내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의 표면은 미지

"5(f) When you wear blue, it really brings out your eyes.
(파란 색 옷을 입으면 당신의 안목이 잘 드러납니다.)" 이 사례는 [안목]을 어떤 내부와 경계를 가진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위의 책, pp.112-118.

42) 위의 책, p.117.

43) 안-밖 지향성의 도식을 통해 형성되는 의미감은 다음을 참조.
(i) 방어와 저항: 포함의 경험은 전형적으로 외적 힘으로부터의 방어와 그에 대한 저항을 포함한다. (안경이 안경집 안에 있으면 강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된다.)
(ii) 힘과 운동의 제약: 포함은 또한 그릇 안의 힘을 제한하고 제약한다. (방 안에 있거나 상의를 입고 있으면 격렬한 운동은 억제된다.)
(iii) 위치의 제약: 힘의 제약 때문에 포함된 대상은 위치상 상대적인 고착성을 갖게 된다. (물고기는 어항 안에 있고, 컵은 손 안에 있다.)
(iv) 가시성 혹은 비가시성: 그릇 안에서 위치의 상대적 고정은 포함된 대상이 어떤 관찰자에게 관찰되거나 관찰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관찰될 수 있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릇 자체가 대상을 시각으로부터 차단하거나 숨기게 된다.
(v) 포함의 이행성(移行性, transitivity): 만약 B가 A 안에 있다면, B 안에 있는 것은어떤 것이든 또한 A 안에 있다. (내가 침대 안에 있고, 내 침대가 방 안에 있다면 나는 방 안에 있다.) 이상의 내용은 위의 책, p.94의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44) 경도라는 물질적 특성에 대한 강조는 다음의 대목에서 살필 수 있다. "<경성(硬性)>과 <연성(軟性)>의 변증법은 우리들이 여러 사물의 내적 소재에 관해서 우리

의 영역의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데, 이 표면은 단단하거나 부드러울 수 있다. 단단한 대상물의 단단한 표면으로 인해 대상의 저항을 느낄 때 그것을 자르거나 녹이거나, 씹는 등 그 단단함에 대항해(contre)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면 외향적 몽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그 단단함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다면 그 내부에 인간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내향적 몽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편 무게의 경우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즉 인간이 가진 어떤 지향성이나 정서적 변화가 상승과 하강이라는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된다.[45]

이상의 논의를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경험은 실제의 감각 경험과는 다르며 정서적인 부분이 크게 관여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

가 형성하는 모든 영상(연구자 주: 이미지)을 지배한다. 이 변증법은 오직 <활동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참다운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의 내밀성에 적극적으로 열렬히 관여할 때 모든 영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따라서 <단단하다>든가, <부드럽다>든가 하는 것은 물질의 저항에 주는 <제1의 성질규정이며 저항하는 세계>가 갖는 근본적인 역학적 실존이다. 물질의 역학적 인식에 있어서, 그리고 이에 상관하여 우리 자신의 존재가 갖고 있는 역학적 제 가치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만일 우리가 우선적으로 <단단함>과 <부드러움>이라는 두 용어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분명치 않을 것이다. 그 후에 보다 풍부하다든가, 보다 섬세하다든가 하는 여러 경험, 즉 중간적인 경험의 무한한 영역은 열리는 것이다. (…) 사물의 단단함과 부드러움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약동적 생명의 아주 상이한 여러 유형에 직면케 한다. 저항하는 세계는 우리를 정적인 존재 밖으로 이끌어낸다." G. Bachelard(1947), 민희식 역(1982), 「대지와 의지의 몽상」, 『불의 정신분석·초의 불꽃·대지와 의지의 몽상』, 삼성출판사, pp.195-196.

45) 꼭 운동에너지 공식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상의 운동 방식은 대상의 물질적 조성 외에 무게라는 인자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바슐라르는 이러한 무게 특성이 인간 상상력의 운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관련된 대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는 역동적 상상력이라는 문제에 무게 인자가 반드시 개입한다는 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일이다. 파롤들이 가동하는 정신 심리의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말[단어]의 무게를 측정할 필요성을 [독자들이] 느끼게 하고자 한다." "영혼의 무게 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가치이며, 삶이란 가치 부여 작용이다. 수직화된 영혼에 대한 이러한 인식 속에는 정녕 놀라운 수직적 삶이 있다! 사실 "모든 것이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는 것은… 바로 영혼 속에서"가 아닌가. (…) 상승하고 하강하는 존재란 [바로]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상승하고 하강하게 되는 존재이다. 무게란 이 세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정신과 마음 위에, 즉 인간 위에 있다. 무거움[중력]을 정복할 자, 즉 초인에게는 초자연, 다름 아니라 공기적 존재의 정신 심리가 상상하는 그런 자연이 주어질 것이다."(밑줄 표시: 연구자) G. Bachelard(1943), 앞의 책, pp.31-32, pp.280-281.

다. 예컨대 ‘사람’이라는 시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피부를 떠올릴 수도 있고, 햄버거 빵과 같은 푹신함을 떠올릴 수도 있다. 또 구름과 같이 실제적으로 만질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우리는 ‘부드럽다’, ‘푹신푹신하다’와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그 형태에 있어서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촉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고 그 만지는 행위에 따라서 모양이 쉽게 변하는 대상들(하얀 반죽이나 구름빵, 복슬복슬한 하얀 털을 가진 강아지 등)과 연상적으로 관련짓기도 한다. 요컨대 시 읽기에서 ‘감각적인 것’은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 경험이 아니라, 시의 언어를 통해 상상적으로 환기되는 이미지를 내용으로”[46] 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대상의 촉각적 특성을 환기’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특성을 떠올리는 것 외에 독자가 그 대상에 대해 상상적으로 환기하는 촉각적인 느낌을 떠올리는 것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형태적 상상을 통해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성을 감지한 독자는 대상의 촉각적 특성, 즉 대상 표면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내부의 단단함/ 부드러움, 무게 등의 느낌을 환기한다. 이렇게 환기된 촉각적인 느낌은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과 대상, 정서를 연상적으로 불러일으킨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대상의 촉각적인 감각적 특성을 변형시키는 외향적 몽상, 혹은 그 단단함/ 부드러움 속에 머무는 내향적 몽상의 태도로 동기화된다. 이렇게 대상을 어떤 단단한/ 부드러운 경계와 부피(깊이 또는 심층)을 가진 것으로 떠올리고, 떠오르는 다양한 의미감과 이미지들을 이와 연계하면서 대상에 정신심리적인 가치를 투사하게 된다. 이렇게 대상에 대한 학습자의 가치부여 작용이 심화될 때, 대상은 고정된 물질적 특성을 벗어나 새로운 물질적 특질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몽상 활동 속에서 대상은 그 객관적인 크기를 벗어나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며, 그 내부의 구성이나 물질적인 조성이 변화하여 새로운 운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가치 투사 과정은 초기에는 공간적인 안-밖 지향성의 도식의 영향을 받으나, 대상에 대한 참여가 심화되면서

46) 박주형(2021), 앞의 글, p.24.

차츰 대상 자체의 물리적 특성 자체보다는 대상의 내부, 윤곽, 외부 영역이나 다른 대상의 역동화에 이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들의 물질적인 특성이 인간적인 가치와 결부될 때 대상의 내부 영역, 운동성 등은 그 현실적인 경계에 갇히지 않고 유동적인 해체와 광범위한 변형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을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에 대한 주관적 가치의 투사와 대상의 역동화'로 명명할 수 있으며, 이는 시 텍스트의 형상을 새롭게 형상화하고 의미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어떤 시적 대상의 비가시적인 내밀함을 파악하고 역동화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시적 대상의 촉각적 특성이나 내부의 공간적 영역에 집중하는 것 외에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대상이 접하는 경계적 영역에 주목하는 것, 그리고 그 다른 대상의 내밀한 영역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강은교의 「햄버거와 구름」을 예로 들자면, 햄버거가 겉과 속이 노출된 사물인 것과 반대되게 인간인 여자는 그 비가시적인 내밀한 영역을 간직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여자의 내밀한 영역인 입 안을 바라보게 될 때, 독자는 햄버거가 여자의 입 속에서 뭉쳐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시의 '햄버거'에 '뭉침'이라는 비가시적인 운동성을 결부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햄버거는, 햄버거를 뜯어먹는 입 바깥에서는 입에 의해 찢어지고 흩어지는 운동성을 띠는 것이기도 하다. 즉 햄버거는 흩어짐과 뭉침이라는 상반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구름 역시 흩어짐과 뭉침이라는 상반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햄버거와 구름 간에는 강력한 연결성이 생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독자는 '햄버거'가 그 내밀한 비가시적 영역에서는 구름이라는 질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몽상할 수 있다.

3)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의미화

독자인 학습자가 시를 읽고 몽상이라는 특수한 상상 작용을 통해 하나

또는 두 시적 대상의 연관 관계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몽상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예술 감상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몽상에 의해 일어난 대상의 질적 변형이 투과되는 어떤 전체를 필요로 하는데, 시 텍스트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듀이(J. Dewy)는 어떤 대상을 심미적으로 지각하는 데 있어 주체와 대상(세계)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예술작품의 지각 행위에 있어서 주체는 어떤 대상을 객관적인 물질적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내용을 그 대상에 대해 되돌려보내고, 또한 그 대상으로부터 새롭게 주어지는 것들을 결합시키는 "총체적이고 계속적인 지각"[47]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누적적인 과정이 충분하지 않을 때 경험의 과정은 중도에 정지하게 되어 하나의 연결성 있는 전체가 되지 못하지만, 누적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예술작품의 감상 경험은 주체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 되며 이는 곧 주체의 존재적 변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논의를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 적용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독자는 자신의 몽상 내용, 즉 시의 기호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의 투사와 지각적인 변형을 통해 구성한 대상을 시 텍스트라는 타인의 지각물을 통해서 성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몽상의 과정을 텍스트와의 언어 표현과 비교해보며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독자인 학습자는 몽상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책임을 갖게 된다. 몽상 과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의 근원을 작품 속에서 해명"[48]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몽상을 가능케 한 근원과 그 심화 과정을 시 텍스트의 언어 표현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의 몽상 활동은 이와 같은 시 텍스트와의 누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순간적인 유희적인 활동이 아니라 질서화되고 의미화되어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이끄는 원리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가다머(H. Gadamer)의 해석학에서 대화(Dia-logos)란 우리가 의미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들어서야만 하는 어떤 구조를 말하는데, 이 들어섦은 텍스트 세

47) J. Dewey(1934b), 박철홍 역(2016),『경험으로서의 예술 2』, 나남, pp.69-70.
48) 김창원·정재찬·최지현(2000), 앞의 글, p.159.

계에 들어선 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텍스트의 의미는 그 스스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의 대화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대화는 일방향이 아닌 텍스트와 해석자 상호 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상정된다.[49]

시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의미세계의 경험 가능성을 열어주는 세계인 한편, 학습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타자라고 할 수 있다. 즉 시 텍스트는 타인의 누적적인 지각물로서 독자의 몽상을 추동하는 추상적인 기호일 뿐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이라는 대화 속에서 해석학적으로 이해해야 할 타자이기도 하다. 시를 읽는 행위는 "텍스트를 향하는 대화성과 독자 자신의 자유를 지향하는 창조성"이 동시에 수반되는 활동으로서, 시 장르의 규칙을 포함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라는 놀이 규칙에 기반하여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는 놀이인 것이다.[50] 이러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 텍스트의 이해는 타자의 이해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된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시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독자인 학습자가 시 텍스트라는 타자와 대화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몽상을 수용가능한[51] 형태로 의미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이러한 대화의 과정은 몽상에 대한 성찰의 성격을 지닌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기호 관계를 섬세히 의식하며 몽상의 내용이 특정한 시의 특정 언어 표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만일 시의 다른 언어 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그 표현은 어떻게 의미화되는지 등을 끊임없이 검토하게 된다.[52] 이렇게 몽상의 과정을 시 텍스트의 언어 표현 전체에 비춰보았을 때 시 텍스트의 언어 기호 전반과

---

49) 이경배(2018), 「존재의 언어와 대화의 언어 : 하이데거(M. Heidegger)와 가다머(H.-G. Gadamer)의 언어개념의 차이」, 『범한철학』 88, 범한철학회, pp.128-143.

50) 김미혜(2007), 「지식 구성적 놀이로서의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55.

51) 김정우는 시 해석은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즉 해석의 결과와 그에 작용한 요인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외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우(2004), 앞의 글, pp.36-37.

52) 우신영은 창의적 시 해석이 특정한 시어나 시구의 해석에만 유효한 해석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신영(2017), 앞의 글, pp.266-267.

관련하여 일관적인 형상을 형성[53]할 수 있을 때 일차적으로 창조적 오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관적인 형상을 형성하는 데서 나아가 시어와 시어, 행과 행, 연과 연을 연결할 수 있는 개념적 의미망이 형성되었을 때 몽상의 의미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의미화 과정은 몽상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오규원의 「호수와 나무—서시」 그리고 그의 '날이미지' 시론은 인간의 관념적인 시선을 배제했을 때 나타나는 사물들의 출현을 강조한다. 그러나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독자가 이 시를 읽는 과정은 대상들이 가진 깊이와 내부를 통해 활성화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대상에 투사하는 시 읽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의미화 과정은 학습자에 의한 시의 풍부한 의미 실현이라는 경향을 갖게 된다.

3.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의의

1) 학습자 중심의 상상적 사고 추동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과정은 시적 대상의 모호한 형상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형태적인 재생의 차원에서 나아가 대상의 비가시적인 면에 대한 적극적인 시각과 가치 부여가 중시되는 시 읽기이다. 대상의 외부적인 감각적인 구체화의 측면보다는 대상 간의 가시적 및 비가시적 관계성을 파악하고, 시 텍스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대상의 내부에 대한 상상 활동이 강조될 때 학습자의 상상의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각하는 대상의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53) 이저(W. Iser)는 허구 텍스트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독자의 형상형성과정이라고 보고, 문학 독서에서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의식상응물을 크게 형상(das Bild)(226)과 사건(Geschehne)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언어기호는 형상일관성으로 그 특정의 의미를 얻"는다고 하였다. W. Iser(1976), 앞의 책, pp.205-206.

특성을 상상적으로 변형하는 과정이 시 텍스트 속에 명증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공백은 독자의 열린 상상력을 통해 채워가야 할 공백이자 놀이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한편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학습자는 몽상 활동의 무제한적인 자유로움을 만끽하기보다는 시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몽상 활동을 이끌어가고 또 적절히 조절하기도 하며 자신의 상상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된다.[54] 이러한 점에서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는 학습자 중심의 상상적 사고를 추동한다고 할 수 있다.

2)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 확대

시적 몽상의 활동에서 학습자는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을 부동의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욕구, 정서, 이미지, 지식 등 다양한 가치를 의식하고, 이를 대상에 투사하며 대상을 점차 주관화하게 된다. 즉 시를 읽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데 있어서 학습자는 대상의 형태를 비롯한 경험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을 통해 활성화되는 정신심리적인 가치들을 의식함으로써 이 대상을 그 다양한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유동적인 그릇, 나아가 그 가치를 그 주변 영역으로 실어 나르는 운동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대상에 대한 내밀하고 주관화된 시선이 예민화되면서 그 대상은 본래의 물질적인 특성을 벗어나 새로운 물질적 특질과 운동을 몽상가인 학습자에게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시적 몽상의 활동은 그 각각의 윤곽에 의해 닫혀지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물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그 대상에 몽상 주체로서 학습자 자신의 활발한 정신 전체를 부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55] 이러한 측면에서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

54) 바슐라르는 “한 세계를 스스로 상상한다는 것”은 그 상상되는 세계에 대해 “정신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설명하면서, 상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인과는 상상 주체의 책임에 의해 관계지어진다고 설명한다. G. Bachelard(1943), 앞의 책, pp.169-170.

55) 몽상 속에서 몽상가와 대상 간에 명증한 구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물질과 정신이 교환되며 가치 부여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듀이(J. Dewy)의 경험론에서

기는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involvement)를 확대[56]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텍스트의 창조적 의미화 능력 신장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을 형태적으로 재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상의 물질적 특성을 다양한 정신심리적인 가치들과 결부하면서 대상들 간의 연관 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상의 형상을 창조적으로 구성해보게 된다. 이러한 몽상의 활동은 시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시 텍스트를 창조적으로 의미화하는 능력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학습자가 몽상의 과정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시 텍스트와 관련이 없거나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몽상의 활동은 오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학교육의 장에서 창조적 오독이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 역시 하나의 오류일 수 있음[57]을 고려할 때, 몽상적인 읽기는 창조적인 시 읽기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욕망과 희망의 요청에 따라” “의미화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작품을 천천히 깊게 읽어”[58] 가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교변작용(transaction)의 개념과도 관계가 깊다. 듀이에 따르면 심미적 경험에 있어서 주체와 세계 간의 상호작용이 심화되면 자아는 자신이 경험하는 그 세계의 환경에 구분할 수 없이 섞여들게 되는데, 이러한 작용을 듀이는 교변작용으로 불렀다. 교변작용에 따라 심미적 경험의 주체는 그 자신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총체적으로 재구성되는데, 몽상의 활동에서는 이 총체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몽상가 자신과 몽상의 대상 모두라고 할 수 있다. J. Dewey(1934b), 앞의 책, pp.112-121.

56) 박주형(2021)은 시 읽기에서 감각적 체험이 시의 언어가 환기하는 대상에 대한 학습자의 내면화된 앎을, 시 텍스트와의 교변작용을 통해 새로운 앎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박주형(2021), 앞의 글, p.167.

57) 우문영(2012), 앞의 글, p.424.

58) 손예희(2015), 앞의 글, p.374.

III.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양상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구했던 시 읽기에서 시적 몽상의 구조에 따라 학습자들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습자들의 다양한 시 수용물들을 분석하였다.[1] 먼저 학습자들은 시를 읽고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을 감지함에 따라, 활발한 연상 작용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들 간의 심층적 연관 관계를 탐색해 나갔다. 또한 학습자들은 대상에 대한 가시적이고 표층적인 차원의 탐색에서 나아가 시적 대상의 비가시적인 특성과 영역을 환기하며 다양한 가치들을 투사하고, 대상을 주관화하며 대상 자체 또는 대상들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학습자는 이러한 몽상의 활동을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의미화하며 하나의 구조를 갖춘 경험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에 따른 대상 관계의 연상적 탐색',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과 가치의 결부 및 대상의 역동화',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형상화 및 의미화'로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1.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에 따른 대상 관계의 연상적 탐색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시적 대상의 형태적인 모호함을 감지함으로써 대상 간의 관계를 연상적으로 탐색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선 형태적 상상을 통해 어떤 대상을 윤곽선을

1) 본 장의 분석 대상이 된 마인드맵 자료의 경우, 편의상 학습자의 마인드맵에서 나타난 A라는 의미가 B, C, D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분기할 경우 <A-B/C/D>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자료의 경우 오자, 탈자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학습자 대상 예비조사 및 본 조사 활동지는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가진 것으로서 전경화하고 배경을 구성해보는 것이다.[2] 이러한 형태적인 구성 행위는 대상에 대한 경험적인 인식을 벗어나는 시 텍스트의 언어 표현을 마주할 때 중단되는데,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과 관련해 다양한 이미지와 의미를 떠올려보며 서로 다른 시적 대상들 간의 관계를 연상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이때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연상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적 대상과 다른 시적 대상 간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아니더라도 이 시적 대상들을 통해 연상적으로 환기되는 다른 대상을 매개하여 시적 대상 간의 연결 관계의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학습자가 떠올리는 이미지나 대상들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형태적이고 가시적인 운동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상의 내부에 대한 탐색과는 구분된다. 즉 형태적인 모호함을 감지한 경우에도 시적 대상을 통해 환기되는 어떤 대상과 그를 둘러싼 배경의 형태는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약간 모호해진 윤곽 속에서 다른 이미지들을 연상케 하는데, 이는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양상을 1)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 2) 형태적 유사성에 기반한 대상 관계의 탐색, 3) 이미지의 자유 연상과 의미 구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꼭 위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1)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

> 호수라는 단어를 보면 물가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른다. 물가에 가까이 가면 시원한 느낌이 들 것 같다. 그리고 푸른색 호수를 보면 물이 차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가 주변에서는 평화롭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함께 떠오른다. 물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낚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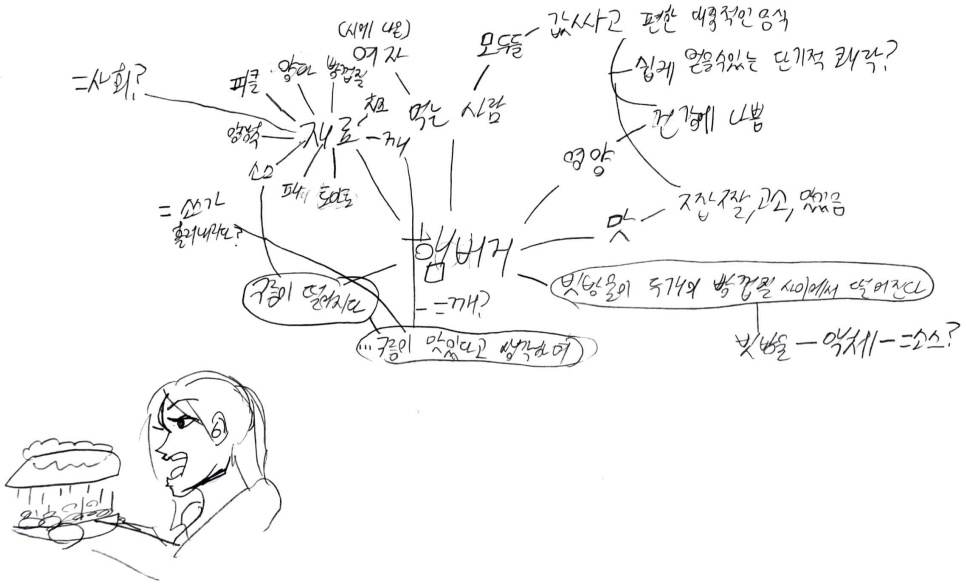
2) 바슐라르는 다음 대목에서 대상의 내부 내지는 깊이에 대한 탐색 이전에 표면에 오랫동안 천착해야 한다고 말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무지갯빛 표면에 충분히 오랫동안 천착함으로써만 깊이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층적인 이미지들에 단일성을 부여하는 어떤 응집의 원리들을 규명하고자 애쓸 것이다.” G. Bachelard(1942), 앞의 책, p.25.

는 사람들의 어망에 물고기가 가득할 것 같다. ㉠호수를 보면 잔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작은 바다의 파도같다. 잔잔한 물결이 고요하고 여유롭게 펼쳐져 있어서 넓은 호수의 모습이 그려진다. ㉡호수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면 투명하고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호수 옆에 한 그루의 큰 나무가 호수에 반사되어 있을 것 같다. 햇빛이 물결에 닿아 반짝이는 모습이 떠오른다. 나무의 나뭇잎은 가을의 단풍이 들어 바스락거리는 주황빛일 것 같다. 나무의 그림자가 아까 낚시하던 사람들의 그늘이 될 것 같다. ㉣나무가 물에 반사되어 마치 나무가 물 속에 깊이 박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호수 옆으로 부는 바람이 나뭇잎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에 휘날리는 모습도 보인다. [B-3-호수-1]

위의 학습자는 형태적 상상에 의해 시 텍스트의 풍경 전반을 묘사하면서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역시 감지해내는 양상에 해당한다. 학습자는 “나무가 물에 반사되어 마치 나무가 물 속에 깊이 박혀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 마지막 두 행인 ‘그 옆에서 높이로 서 있던 나무가/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 부분에서 감지되는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에 대한 반응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태적 상상을 통해 호수의 표면에 나무가 반사되는 현상을 떠올려 봄으로써 학습자는 대상들 간의 분명한 윤곽선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각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몽상 활동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 그러나 ‘마치 A가 B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은 A가 실제적으로 B와 같지는 않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학습자는 시의 ‘나무’가 실제로 호수에 깊이로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는 시 텍스트에 내포된 타자들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양상으로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위 학습자에게서 ‘호수’의 내부 영역에 대한 탐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감상의 초반부에서 학습자는 ‘나무’라는 시적 대상의 모호함에 대해 호수의 반사 현상만을 떠올릴 뿐,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학습자는 ‘호수’의 표면이 “마치 작은 바다의 파도”처럼 “잔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떠올리기는 하

나, 이 ‘호수’의 심층에서 ‘잔물결을 일으키는’ ‘고기’에 대해서는 “낚시하는 사람들의 어망에 물고기가 가득할 것 같다”는 언술로 그친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이 “사람들”의 낚시 행위를 ‘호수’의 표면의 변화와 연결 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위 학습자의 경우 ‘나무’라는 시적 대상의 형태적인 모호함은 감지했으나, ‘호수’의 표면적인 운동의 원인인 ‘고기’를 비롯해 ‘호수’의 내부 영역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시 텍스트에서 초점화되어 나타나는 ‘한 사내’와 연관지어 의미 구성을 하지는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학습자에게는 시적 대상의 가시적인 표면 이외에 그 내부 영역에 주목하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학습자는 “호수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면 투명하고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호수’라는 시적 대상의 내밀한 영역으로 직접적으로 침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 가치 부여 및 내향적인 몽상으로 발전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학습자는 이와 같이 “물결 속으로 들어가”려는 상상력을 ‘한 사내’의 심리에 투사하여 사내의 낚시 행위를 의미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내부 영역으로 침투하려는 시선을 시의 다른 대상인 ‘나무’에도 적용하여 ‘나무’의 내부 영역을 주관적 풍경으로 가시화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A-13-햄버거-M]

구름이라는 시어를 보니 비슷한 형태의 솜사탕이 떠올랐다. 어쩌면 구름이 솜사탕처럼 달콤한 재료의 비유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를 읽다보니 배고파졌다. [A-13-햄버거-1]

위의 학습자는 시 읽기를 통해 시적 대상의 형태적인 모호함을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대상물을 공간적으로 근접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학습자는 마인드맵의 그림 부분에서 햄버거 빵껍질 윗면에 구름을 겹쳐놓고 이 햄버거빵 윗면에서 햄버거 빵 아랫면으로 비가 내리는 풍경을 간략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빗방울이 두 개의 빵껍질 사이에서/ 떨어졌다'라는 시구를 포함해 시 텍스트의 언어 표현을 전반적으로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을 감지함으로써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들의 고정된 형태와 위치를 변형할 뿐만 아니라, 두 대상의 관계를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새롭게 형상화한 시도로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이와 같이 변형한 대상들 간의 관계를 감상문 속에서 일관성 있게 의미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의 '그 여자는 구름이 맛있다고 생각하며 먹었다.' 구절과 관련해 학습자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구절을 시의 '여자'가 햄버거 빵의 일부분인 깨가 맛있다고 생각하며 먹었다는 의미로 읽는 것이다(<구름이 맛있다고 생각하며-=깨?>). 한편 두 번째 가능성은 이 구절을 '여자'가 햄버거의 소스가 맛있다고 생각하며 먹었다는 의미로 읽는 것이다(<구름이 맛있다고 생각하며-=소스가 흘러내리다?">). 학습자는 이 두 해석에 대해 모두 물음표 부호("?")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가 해석들을 양립가능한 것으로 종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학습자가 해석상의 모순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시도한 형상화와는 다른 시적 대상의 형상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교사는 학습자가 그린 햄버거-구름 그림을 활용하여 "여기서 구름이 좀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빵껍질 아랫면까지를 구름이 덮는 장면을 상상해 볼래?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니?" 와 같은 질문을

던져, 학습자가 떠올린 '햄버거-구름'의 '전체-부분' 관계를 반대로 역전시키게끔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햄버거라는 가시적인 내부를 가지고 있는 사물 외에도, 여자나 구름처럼 비가시적인 내부를 가지고 있는 사물들의 내부에 대한 시각을 활성화하여 학습자가 이미 형상화했던 이미지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3] 또한 학습자는 햄버거의 가치를 대량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떠올리고(<햄버거-먹는 사람-(시에 나온) 여자/ 모두들-값싸고 편한 대중적인 음식-쉽게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쾌락?>), 시의 '햄버거'를 사회의 축소판 혹은 확장판으로 보기도 하는데(<햄버거-재료-=사회?>), 이상과 같은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 운동과 햄버거, 구름 등 대상의 운동성을 결부하여 대상물의 내부에서 인간적 자취를 읽어내는 내향적 몽상을 이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학습자와 같이 시적 대상들의 관계를 부분-전체의 관계로 변형하여 대상물의 외부와 내부를 구성하는 양상은 형태적 상상이 보다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절에서 다룰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2) 형태적 유사성에 기반한 대상 관계의 탐색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을 감지하게 된 학습자는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들 간의 형태적인 유사성을 탐색하고 그 관계를 의미화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여기서 '형태적 유사성'은 대상의 형태나 가시적인 운동성의 유사성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적 유사성의 탐색은 일상에서 성립하는 대상들 간의 공간적 거리가 변형되어 나타난 시 텍스트의 대상 관계를 나름대로 구성해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 햄버거라는 시어를 보니 따뜻함이 생각나고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그리고 ㉠시에서 구름, 소스, 고깃덩이, 빵껍질이라는 시어를 보니 햄버거

3) 이때 학습자는 '구름'이 '햄버거'가 점유하는 특정 구역에 할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햄버거 내부를 전체적으로 뒤덮고 있는 어떠한 것, 혹은 햄버거의 비가시적 영역에 숨어 있는 어떠한 것 등 두 시적 대상 간 관계를 새롭게 형상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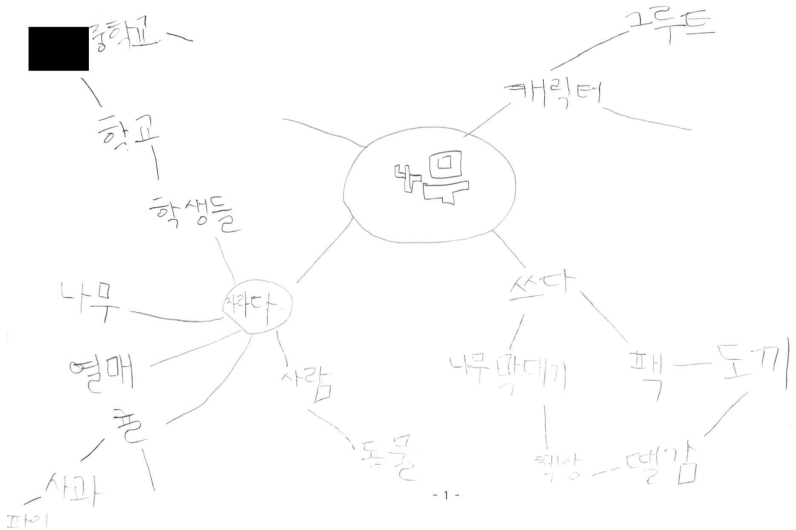
를 분해해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햄버거의 위아래에는 폭신폭신하고 깨가 뿌려져 있는 빵껍질이 생각났다. 그리고 빵과 야채 사이 또는 패티 위에 뿌려져 있는 소스를 생각했다. 소스에는 머스타드, 핫 소스, 등이 생각났고 ㉡소스는 흐르니까 빗방울이 생각나고 빗방울은 흘러내리고 떨어진다고 생각났다. 고깃덩이는 패티이고 패티는 잘 익혀지면 축축한 육즙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고 육즙은 액체라서 빗방울처럼 떨어지고 빗방울은 구름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햄버거를 싸고 있는 종이 껍질이 생각났다. 시간이 좀 지나면 햄버거에서 액체가 흘러나와 껍질을 적시니까 햄버거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하다가 구름도 적어야 할 것 같아서 구름을 적고 구름과 유사하게 생긴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양상추, 스크램블 에그가 생각났고 (…) 더 생각해보다가 햄버거의 재료가 한 가지 더 떠올랐다. 토마토였다. ㉤토마토에서 즙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그래서 빗방울처럼 떨어지니까 구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A-26-햄버거-1]

위의 학습자는 일상에서 경험했던 햄버거와 빗방울의 가시적 운동성을 연계시키며 시의 '햄버거'와 '구름'의 관계를 구성해 보고 있다. 학습자는 먼저 시적 대상인 '햄버거'가 일상에서와 같이 "분해" 가능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빵껍질', '소스', '고깃덩이', "종이 껍질", '구름', "토마토" 등 시에 언급되지 않았던 대상을 포함하여 '햄버거'를 구성하는 여러 재료들의 특성을 떠올린다. 학습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각 재료들 간 운동 특성의 유사성이다. '소스'와 '고깃덩이'를 통해 학습자는 "흐르"고 "축축한" "떨어지"는 운동성을 환기하고, 이것이 빗방울과 유사함을 떠올리며 구름과의 연관성을 떠올린다(㉡). 한편 감상문 후반부에서 학습자는 시에서 '구름'이 처음부터 '햄버거'의 구성 요소였던 것은 아니며, 경험적인 재료들이 구름과의 감각적인 유사성에 의해 변화되어 구름이 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양상추, 스크램블 에그"(㉣)는 형태적으로 구름과 유사해서, 토마토의 경우 즙이 흐르는 모습이 "빗방울처럼 떨어지"기에(㉤) 구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는 햄버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대상들을 외형이나 가시적인 운동 특성에 있어서 구름과 일관성 있게 연결짓고 있다. '햄버거'라

는 시적 대상을 통해 환기되는 운동성을 비라는 기상 현상과 끈기있게 연결짓는 시도는, 작은 대상의 내부에서 거시세계를 보는 내향적 몽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풍부히 품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는 '햄버거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시의 구절을 "햄버거에서 액체가 흘러나와 껍질을 적시"는 경험적 현상으로 환원하는 등의 읽기 양상을 보인다(㉢). 학습자에 의해 형성된 '햄버거'와 '구름' 간의 연계성 역시,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부여 과정 없이 대상들 자체의 형태적이고 가시적인 운동적 성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학습자의 시적 몽상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상들 간의 외적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대상 자체 또는 그 대상의 운동성과 관련하여 어떤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가 떠오르는지 기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미지의 과거, 즉 시에서 '구름'이 어떻게 '햄버거'의 재료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의 현재와 미래, 즉 이 '햄버거'의 부분이 된 '구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시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4)]



[B-24-호수-M]

4) 이미지의 '형성'보다 '변형''에 초점을 맞추는 몽상 활동은 그것이 형성된 '원인'보다도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운동'이 전개될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슐라르는 '이미지의 과거'보다 '이미지의 현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자주 강조한다. G. Bachelard(1943), 앞의 책 참조.

㉠나는 나무라는 단어를 보니 사람과 똑같이 생명체인 걸 생각했다. 사람도 처음부터 평범하진 않다보니 나무도 똑같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된다. ㉡나무가 생명으로 생각해보니 사람처럼 자란다는 걸 알게됐다. 나무가 열심히 자라면 열매들이 주렁주렁 생긴다는 걸 알게되고 열매가 생기다보니 귤도 생기고 사과 같은 이런 과일들이 풍부하게 많아진다. ㉢나무가 많아지고 열심히 잘 자라나면 마치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잘 자라는 사람이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학교 OO중학교[5]이다! [B-24-호수-1]

위의 B-24 학습자 역시 가시적인 운동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상 관계를 탐색하고 있으나, 보다 오랜 시간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운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위의 학습자는 나무와 사람이 둘다 "똑같이 생명체"(㉠)이고 "자란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나무가 곧 "열심히 잘 자라는 사람"인 "학생들"이라는 다소 독특한 사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나무와 사람 간의 수직적 증가라는 특성은 두 대상들을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습자의 경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비가시적인 변화에 가까울 정도의 가시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몽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떠올린 나무와 사람 간의 유사성을 시 텍스트의 ('물가에 앉아 있'는) '사내'와 ('그 옆에서 높이로 서 있던') '나무'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 역시 존재한다.[6]

시 텍스트와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 학습자의 감상 과정은 시의 풍부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들을 확보하고 있

5) 마인드맵 및 감상문에 나타난 학교명의 경우 연구자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6) 학습자의 마인드맵을 살펴보면 이러한 나무와 사람 간의 연계는 '그루트'라는 의미소를 연상함으로써(<나무-캐릭터-그루트>) 강하게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루트'는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나무인간 캐릭터로, 빠른 성장과 나무줄기를 생성하여 적을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무와 같은 식물이 활성화하는 느린 몽상의 경우 『공기와 꿈』 제10장의 '공기 나무'에서 별도의 테마로 다루어질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G. Bachelard(1943), 앞의 책, pp.360-398을 참조할 수 있다.

다. 시 텍스트 자체에서 '사내'는 '물가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학습자가 처음부터 시 텍스트의 언어 표현을 해석하고자 고심했다면 '앉아' 있다는 표현 때문에 나무와 사람의 수직성이라는 유사성에 주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위의 학습자는 시 텍스트보다는 서로 다른 두 사물을 비교해보는 사고 과정 자체에 즐거움을 느껴서 비가시적인 변화에 가까운 운동성의 유사성을 파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위의 학습자가 자신이 떠올린 사람-나무 간의 유사성을 시 텍스트에 적용하였더라면,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나무'는 사람이 변신한 것이다"와 같은 해석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에서 감지되는 시 텍스트의 시간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창조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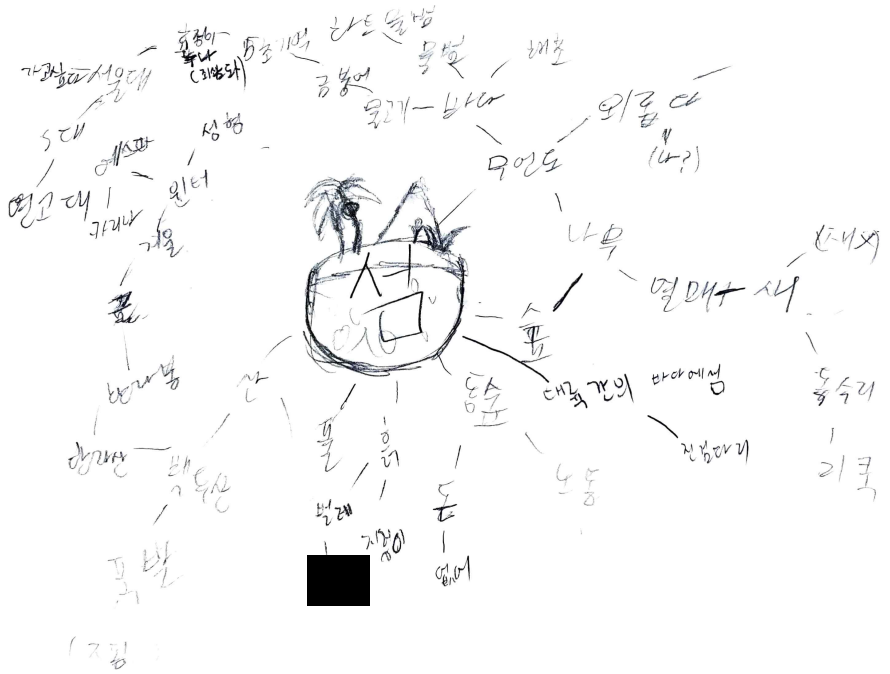
한편 위의 학습자의 맥락에서 "자란다"는 것은 "열매가 생기"는 것을 포함하여 위로 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나무의 경우 위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가시적인 영역에서는 아래쪽으로 뿌리를 뻗으며 자라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학습자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내부 영역에 대한 시각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게 된다면, 학습자는 '사내'가 '나무'처럼 호수에 깊이로 뿌리내리는 모습을 몽상적으로 떠올리고 이를 시 해석으로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위의 학습자에게는 시 텍스트 전체의 언어 표현들, 이를테면 '나무' 외에 '잔물결'이나 '고기'와 같은 대상들의 내부 영역이나 운동성에도 주목하도록 하여 몽상을 심화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 역시 필요할 것이다.

3) 이미지의 자유 연상과 의미 구성

학습자가 시적 대상의 형태적인 모호함을 감지하게 되면 해당 대상의 형태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대신, 그 대상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대상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연상하기도 한다. 시 창작 국면에서 일

7) 예컨대 학습자는 "나무가 깊이로 호수에 서 있다는 것은 나무가 (호숫가에 나무 자신보다 가까이 있을 사내의 몸을 자신의 나무줄기처럼 사용해서) 호수의 내부 영역까지 나뭇가지를 자라게 한 것이다"와 같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나는 일련의 자유 연상들이 '시적 진실'의 발견을 견인하는 것과 같이,[8] 시적 대상을 통해 자유 연상적으로 환기된 이미지 역시 유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시의 의미 구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적 몽상의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와 꼭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그 대상과 관련해 충분히 다양한 이미지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9] 이러한 이미지들이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에 새로운 가치와 특성을 부여하는 몽상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 "현대 시인들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무의식이 빚어낸 신비스런 심상들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 이 무의식적인 부추김들이 아무리 모호하다 할지라도, 시인은 그것들을 대뜸 밝히려 들지 않는다. 거꾸로 그는 "자신의 온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이 제안들"이 "그가 원하는 것을 그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확신하기에 그것들이 "떠오르도록" 내버려둔다. (…) 이 심상들은 자유 연상 작용을 통해 심상 자체에서 "차츰 분명히 윤곽을 드러내는 어떤 세계"를, 시인의 가장 내밀한 세계-내-존재가 표현되는 어떤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M. Collot(1986), 정선아 역(2003), 『현대시와 지평구조』, 문학과지성사, p.151.

9) 강민규는 시어를 통해 환기되는 이미지는 수많은 언어 행위의 침전물이라는 점에서 시의 언어에 대해 독자가 초기에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가급적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때 독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갇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므로, 교사가 하나의 시어가 환기할 수 있는 이미지의 다양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강민규(2015), 앞의 글, pp.38-39.

[C-24-섬-M][10]

> 섬이란 단어를 들으니 대륙 사이에 있는 섬이 생각났다. 그러면 시에서 나타내는 섬이라는 단어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인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마음 간의 [C-24-섬-1]

위의 학습자는 자유 연상에 의해 시적 대상의 형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이를 자신의 언어로 분명히 의미화하지는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 학습자는 감상문에서 시에서 '섬'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대륙 사이에 있는" 지리적인 섬이 떠올랐다고 진술한 뒤, 곧장 시의 '섬'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일 것 같다는 감상을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학습자는 시의 '사람들'을 대륙과 같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로서의 대륙 사이에 있는 섬(들)을 각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는 이 "연결고리"의 의미가 떠오른 맥락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인드맵에 이 "연결"과 관계될 수 있는 '징검다리(<진검다리>)'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 <진검다리>는 학습자가 "대륙 사이에 있는 섬"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려보는 과정에서 형태적 유사성에 의해 자유연상적으로 떠오른 이미지를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섬-대륙 간의 바다에섬-진검다리>). 즉 학습자가 감상문 작성 과정에서 활성화한 '연결'의 의미는,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징검다리'와의 연관 속에서 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학습자가 이러한 지점을 의식하고 '징검다리' 이미지와 '연결고리로서의 섬'이라는 의미를 연결지었다면 다음과 같이 시를 창의적으로 형상화했을 수도 있다: 징검다리로서의 '섬'은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가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어떤 운동성의 측면이 잠재되어 있으며, 사람들을 분리하는 바다 역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징검다리로 충분할 만큼의 얕고 고른 수면으로 이뤄져 있다.[11]

---

10) 검은 사각형 부분은 동료 학습자를 언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자가 가린 것이다.
11) 이러한 가정 속에서 시의 '섬', '사람들'은 일상의 크기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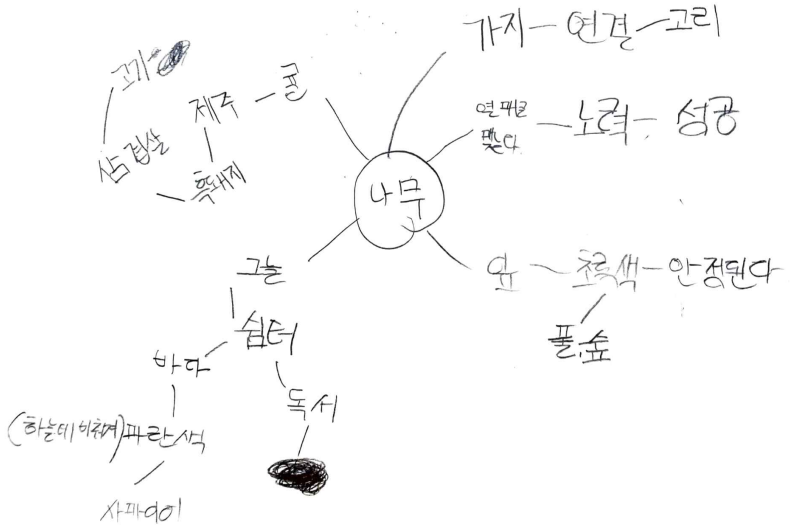
한편 학습자는 “무인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무인도’가 학습자가 언급한 “연결고리”로서의 섬과 같은 것인지 혹은 구분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언급 없이 감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나, 감상을 이어나감에 있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봉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시 텍스트의 난해함으로 인해 자유 연상적으로 떠올린 이미지를 시 텍스트의 의미화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잃었을 수 있다. 두 번째, 자유 연상을 통해 나름대로 떠올린 시의 의미가 시 텍스트 전반에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장벽을 느꼈을 수 있다. 언급된 내용들만을 바탕으로 이 학습자의 연상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 본다면, “대륙”으로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보이지 않는 마음”은 ‘무인도’로 의미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무인도는 이 각각의 대륙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어떤 것, 혹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대륙으로서의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존재하는 어떤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적 ‘떨어짐’에 있어서는 마땅한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학습자는 감상을 중단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자유 연상적으로 떠올린 이미지를 잠시 유보해두고, 시적 대상을 통해 떠오르는 물질적인 특성과 느낌들을 상세히 의식화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학습자에게서는 마인드맵의 <섬-무인도-외롭다-(나?)> 부분의 연상이 주목된다. 이 부분에는 학습자가 시의 ‘섬’을 통해 무인도를 떠올리고, 이 무인도와 통상적으로 관계가 있는 ‘외롭다’는 정서적인 느낌을 활성화하였다가 ‘이 외로움이 혹시 나의 것은 아닐까?(내가 외로운가?)’와 같은 사고 과정이 숨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외롭다’라는 마음은 나 자신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학습자가 무인도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의미화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도 추측된다. 한편 이렇게 위의 학습자가 ‘무인도’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가치인 “외로

대하게 확대되거나 섬의 크기가 매우 축소되어 몽상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움”과 “보이지 않는 마음”은 내밀하게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인데, 이것이 ‘섬’을 통해 환기되는 단단한 표면 및 그 내부와 맺을 수 있는 연관 관계를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러한 성찰이 일어난 후에는 ‘섬에 가고 싶다’가 어떻게 의미화될 수 있는지, 예컨대 개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인 외로움이 오히려 각자의 다른 대륙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매개체라는 것인지 등을 섬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위의 학습자와 달리 아래의 두 학습자는 이미지의 풍부한 연상 과정을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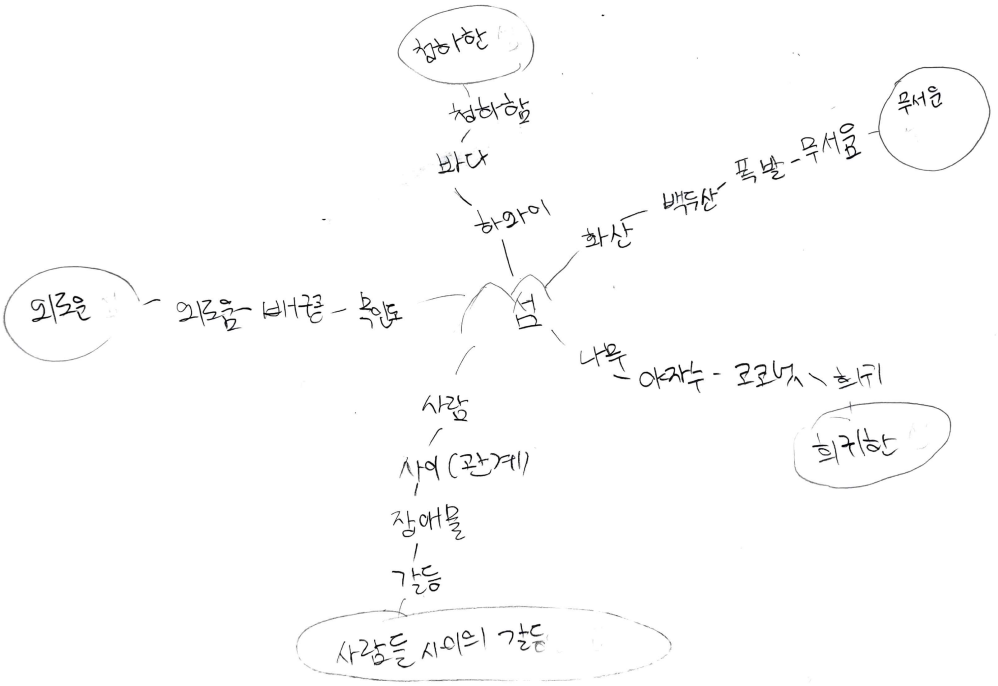
[B-11-호수-M]

나무가 나오니 초록색 쉼터가 떠올랐다. 쉼터가 떠오른 이유는 나무 밑 그늘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쉼터 하니 바다가 떠오른다. 바다가 파란색이라는 것을 보면 사파이어가 생각나는데 ㉠나무에는 푸른색 사파이어가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만큼 나무가 진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생각났다. 또 나무 하니 초록색이 떠오르는데 나무, 풀, 꽃 등으로 이루어진 초원이 떠올랐다. 초원 하니 또 여러 동물이 생각나는데 이에 영화 '라이온 킹'도 떠오르고 애니멀 다큐멘터리가 떠오른다. 시에서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라는 구절에서 나무의 흔함도 생각

나지만 나무의 진귀함이 생각난다. [B-11-호수-1]

먼저 B-11 학습자는 인접성과 유사성에 기반한 연상을 거쳐 '나무'의 이미지를 비현실적인 형태로 재구성해보고 있다. 학습자는 시어 '나무'와 관련해 '쉼터'라는 의미와 바다의 파란색을 연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의 '나무'에 "푸른색 사파이어가 달려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나무의 진귀함'이라는 가치와 연계해 본다(㉡). 이처럼 학습자는 형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상들을 단편적으로 연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나무라는 대상으로 돌아와서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해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가 떠올린 '사파이어-나무' 이미지는 형태적 상상에 의해 산출되었지만 하나의 대상에 오래 머무르며 형성된 가치 있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한편 위 학습자가 '사파이어'와 관련하여 떠올린 '진귀함'이라는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학습자는 '나무가/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라는 시 구절에서도 "나무의 진귀함"이 다시 연상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진귀함'의 의미는 구체화되지 않아 감상이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나타난 기술들을 토대로 한다면 위 학습자에게서 "나무의 진귀함"은 나무가 ①"흔"하지만 소중한 "그늘" "쉼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의 진귀함, 그리고 ②오랜 세월을 거쳐 열매 맺는다는 점에서의 진귀함(<나무-열매로 맺는다-노력-성공>)이라는 두 가지 의미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감상 과정을 전반적으로 성찰하도록 하여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연상 과정을 의식화하고 종합하게끔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위의 학습자가 떠올리는 '파란색'은 바다 자체의 색상이라기보다는 바다의 표면이 하늘을 반사하기에 나타나는 색인데(<나무-그늘-바다-(하늘에 비춰져)파란색-사파이어>), 이를 의식하였다면 학습자는 '나무가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 부분 역시 나무가 호수에 반사된 모습과 관련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랬더라면 위 학습자는 여러 시적 대상들을, 자신이 떠올린 이미지 및 "나무의 진귀함"이라는 가치로 물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12)]



[C-8-섬-M]

(전략)㉠섬하면 외딴 이미지가 생각난다. 섬은 약간(?)의 무인도의 형태이고 무인도의 특징은 외롭다는 것이고 하나의 과자 부스러기가 생각난다. ㉡외로운 섬, 내가 지켜주고 싶다. 섬을 지리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크고 외로운 장애물로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멀어짐을 느꼈다. ㉣또 섬하니 화산이 생각났고 지금 우리나라의 두려움인 백두산이 생각났다. 백두산하면 무엇인가? 폭발이다. 역시 무서운 섬이다. [C-8-섬-1]

---

12) 예컨대 시에서 '나무'의 영향권 안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역동적 가치와 운동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파이어-나무가 던져주는 진귀한 그늘 덕분에 사내는 안전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 그늘 덕분에 사내는 풍요로워지며, 그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진귀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다. 어망 속의 물고기 역시 사파이어처럼 진귀한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사파이어-나무는 자신의 영역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진귀하게 물들이는데, 반사라는 방식으로 나무와 접촉하는 호수도 예외가 아니다. 어쩌면 이 반사된 표면 자체가 나무 그늘 같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잔물결 일으키는 고기'는 사파이어의 푸르름을 찾아 나뭇잎을 흔드는 새들을 표현한 것일지 모른다. 그늘로서 물의 표면은 호수의 본래적인 깊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비추고 있는 나무의 깊이(높이)에 의해 깊이를 갖는 것일 수도 있겠다.

위의 C-8 학습자는 자유 연상을 통해 떠오른 이미지를 시적 대상의 형상화에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그 이미지를 통해 활성화된 의미감을 바탕으로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접근해 보고 있다. 먼저 '섬'과 관련해 학습자는 무인도의 "외딴 이미지"와 더불어 "과자 부스러기"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연상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시의 '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크고 외로운"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마인드맵에서 이미 '섬'이 시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나 장애물로 의미화된 것과 달리(<섬-사람-사이(관계)-장애물-갈등-사람들 사이의 갈등>), '부스러기' 이미지와 '무너짐'의 의미는 감상문에서만 출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학습자는 단편적 연상에 그칠 수 있었을 '부스러기' 이미지를 '무너지다'라는 인간적인 가치의 차원으로 전환해 시의 의미 구성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여기서 '부스러기(이미 부서진/ 무너진 것)'와 학습자가 이로부터 떠올린 의미인 '무너지게 하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학습자는 시의 '섬'을 사람들의 관계가 '이미 무너진' 어떤 부스러기 같은 것이 아닌, '무너지게 하는' 장애물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 학습자는 그 '섬'이 사람과 같이 "외로운" 상태이며 이를 "지켜주고 싶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위의 학습자가 섬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들은 양가적인 양상을 띠는데, 학습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다른 계열의 연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위의 학습자가 자신이 떠올린 다양한 가치들에 기반해 시 텍스트를 창조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연상적으로 떠오른 대상들의 외적인 형태 외에도 촉각적이고 운동적인 특성에 주목하며 자신의 읽기 과정 전반을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인드맵에서 학습자는 외딴섬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과자 부스러기' 외에도 '배구공'이라는 독특한 대상을 떠올리고 있기도 한데(<섬-무인도-배구공-외로움>), 이러한 배구공과 섬의 운동성을 대조하여 '섬'의 질적 변화를 상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13] 또한 이 학습자에게서 '배

13)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몽상적 읽기가 가능하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외로워진 '섬'은 부동적인 섬이 되었지만, 이후 '그 섬에 가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감싸안아 준

구공’ 및 ‘과자 부스러기’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무인도’나 ‘외로움’과 연결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 교사는 학습자가 무의식적으로 떠올린 이미지의 출현 이유를 기술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섬을 “지켜주고 싶다”는 학습자의 욕망이 시 텍스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와 관련한 교사의 질문 등을 통해, 텍스트 전체의 맥락에 자신이 떠올린 이미지와 가치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끔 유도하는 조치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시적 대상의 모호한 형태를 감지하는 데서 일어나는 학습자의 형태적인 유사성 파악이나 자유 연상은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떠올린 이미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시의 의미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의 연상의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특정한 대상에 대해 어떤 주관적인 가치를 결부시키고 있는지를 성찰하도록 하는 과정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자유 연상에 의한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은 형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의미화라는 점에서 시적 대상 간의 심층적인 연결성은 확보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심층적인 연결성은 시적 대상의 내부 내지는 비가시적 영역을 응시하고자 하는 시선을 통해 가능해진다.

2.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과 가치의 결부 및 대상의 역동화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시적 대상을 표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 경도, 무게, 부피 또는 깊이를 가진 내밀한 대상으로 보고, 이 대상의 내밀한 물질적 특성과 관련해 다양한 가치를 결부시키며 대상을 역동화하는 양상, 즉 대상 자체 및 그 주변 영역에 운동성을 부여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양상을 1) 대상의 촉각적 특성 환기와 이미지의 연상, 2) 대상의 내부에 대한 가치의 은유적 투사, 3) 대상의 경계선과 주변 영역에 대한 운동성 부여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양

다면 약간 부드럽고 탄력적으로 변해서 배구공 같은 역동성을 띠게 될 수도 있다.

상은 꼭 위계적인 것은 아닌데, 예컨대 대상의 경계선과 주변 영역에 대해 운동성을 부여하는 것은 꼭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동반되지 않아도 대상 내부의 운동성에 천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에 대한 가치 부여가 심화되는 과정에서는 시의 언어를 주관적으로 교체 또는 생략, 비약하는 비의도적 오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 떠올리는 가치는 인간 무의식의 깊은 부분에 자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몽상의 과정에서 시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기술된 내용을 넘어서서 상상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의도적 오독을 즉각 교정해야 할 것으로 보기보다는 학습자의 대상에 대한 가치 부여와 몽상적 읽기가 심화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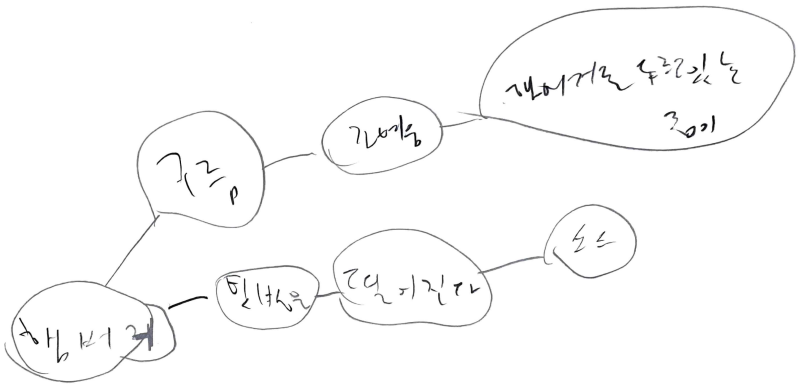
1) 대상의 촉각적 특성 환기와 이미지의 연상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 표현을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촉각적 특성, 즉 대상의 경도와 무게와 같은 특성을 상상적으로 환기함으로써 대상에 새로운 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몽상 활동으로 동기화된다. 대상의 촉각적 특성을 상상적으로 환기한다는 것은, 시의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특성을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상적으로 그 대상을 만지거나 무게를 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대상의 경도와 무게를 떠올린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대상의 감각적 특성을 상상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활발한 연상 작용을 거치기도 한다.

이때 학습자는 대상의 감각적 양가성(兩價性, ambivalence)[14] 및 그것이 환기하는 정서적 양가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상의 감각적 양가성은 대상이 한 가지 특성 또는 양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작용하지 않고 극적인 양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히 물,

14) 정신분석학에서 양가감정으로도 불리는 양가성은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상반되는 감정이나 태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적 대상이나 사태를 통해 환기되는 물리적 특성상의 양가성이, 학습자가 떠올리는 정서적인 양가성이나 가치의 양가성과 깊게 결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상에 대해서도 '양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불, 공기, 흙 같은 질료에 잘 적용된다. 바슐라르는 네 원소들이 사물을 만들어낼 때 보여주는 '대립의 일치'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여기서의 '일치'란 완전한 동일성이나 통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나무를 보면 위로는 하늘로 자라는 가지, 아래로는 땅으로 뻗는 뿌리가 있는데 대립의 일치란 이러한 상반된 운동의 공존을 보는 것이다.[15] 또 물이라는 원소, 이를테면 호수의 표면은 그 표면에 비치는 대상을 복사하기도 하지만 그 흔들림에 의해 그 대상의 형상을 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상의 양가적 측면에 대한 주의는 몽상가인 학습자에게 그 대상에 대한 복합적인 가치 부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10-햄버거-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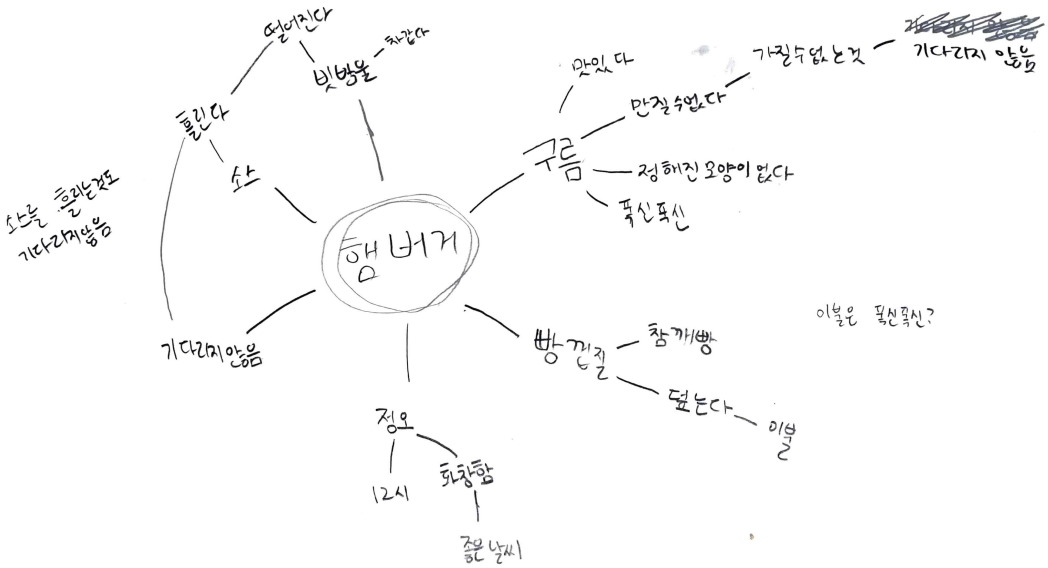
위의 학습자는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무게 특성을 중심으로 시의 주요 대상 간의 유사성을 탐색해보고 있다. <구름-가벼움-햄버거를 두르고 있는 종이> 부분의 연상은 학습자가 '햄버거'와 '구름' 간의 연관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무게의 특성에 집중하는 부분으로, 학습자는 구름의 가벼움이라는 무게감과 "햄버거를 두르고 있는 종이"의 가벼움에 의해 '구름'과 '햄버거'가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결에는, 학습자가 '구름'을 구체적으로 무게를 달거나 촉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서 대하기보다는 단순히 물리적 지식이 작용한 것으로

15) 질료적 상상력에서 나타나는 '대립의 일치'에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이지훈(2004), 앞의 책, pp.62-65 참조.

보인다. 이 지점에서 학습자는 연상을 멈추고 있으나, 촉각적으로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햄버거를 두르고 있는 종이”가 ‘가벼움’이라는 특성에 의해 ‘구름’과 관련될 수 있다면 시의 ‘구름’ 역시 상상적으로 무게를 달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즉, 위의 학습자에게는 자신이 파악한 무게에 있어서의 시적 대상 간 유사성을 촉각적인 다른 성질의 전이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비계가 필요하다. 또 햄버거는 “햄버거를 두르고 있는 종이”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의 학습자에게는 ‘햄버거’ 전체가 구름처럼 가벼워지고, 높은 하늘 위에 떠도는 것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등의 물음이 제기될 수도 있다.

위 학습자의 사례는, 대상들의 가시적 특성에 대한 주목이 대상들의 위치와 형태를 좀더 고정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비가시적 특성을 주목할 때 시적 대상의 촉각적인 감각 가능성 및 시적 대상 간의 관계가 보다 자유롭게 변환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무게의 유사성은 운동 특성의 유사성으로 연결되어 가볍게 흩날리고 찢어질 수 있는 종이의 운동적 성질과 유유히 흐르고 해체되는 구름 등 ‘햄버거’와 ‘구름’ 간에 보다 심층적인 유사성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햄버거’의 질료를 구름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몽상의 활동을 추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좀더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가 시적 대상의 무게와 관련된 특성에 대해 양가적인 특성을 환기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구름은 하늘 위에 떠 있다는 점에서 가벼움의 느낌을 주지만, 응결된 물방울들이 많을 경우 비를 내린다는 점에서 무거움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학습자가 이와 같이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양가적인 특성을 떠올릴 수 있었다면 ‘구름’과 ‘빗방울’ 그리고 ‘햄버거’ 간의 관계를 좀더 종합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아래의 학습자는 만질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활성화되는 양가적 느낌에 주목해 좀더 적극적으로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A-7-햄버거-M]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구름, 소스, 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여자의 옆모습이 생각났다. 왜 여자의 옆모습이 생각났을진 모르겠지만.. 또 소스와 빗방울이라는 시어를 보니 둘다 흐를 수 있고 흐르는 점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빗방울은 소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구름도 햄버거의 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구름은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 무엇이라고 특정하긴 힘들지만 그만큼 여러가지 경우를 상상하게 한다. ㉡구름은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 정오와 잘 맞는 느낌이다. 반면에 ㉢빗방울은 뾰족한 모양이 있고 차갑다. 이런 느낌이 정오와는 반대되는 것 같다. ㉣구름이 비구름으로 변하는 시간을 지나고 그 구름에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햄버거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구절을 쓴 게 아닐까? 나도 그 햄버거를 먹어보고 싶다. [A-7-햄버거-1]

위의 학습자는 시어 '구름'과 '빗방울'을 통해 환기되는 촉각적 특성을 시의 '정오'라는 시간적 배경과 관련지어보며 텍스트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다. 학습자는 감상문에서 구름이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에서 '구름'이 시 텍스트에서 한 가지 형태나 성질을 가진 구름으로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경우"로 존재

할 가능성을 상상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시에서 '구름'이 시간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양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

먼저 학습자는 '정오'라는, 시의 첫 대목에 제시되는 시간적 배경에서는 '구름'이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 구름(㉡)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학습자는 시의 '구름'을 통해 '폭신폭신함', '따뜻함'과 같은 촉각적인 특성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구름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특성이 아닌 학습자가 상상적으로 환기한 촉각적 특성에 해당한다.[16] 일반적으로 볼 때 구름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습기를 머금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의 학습자가 보여주는 구름에 대한 '푹신푹신하다'라는 반응은 희귀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의 학습자 외에도 여러 학습자들이 「햄버거와 구름」을 읽고 시의 '구름'과 관련해 푹신함 내지 폭신함이라는 촉각적 특성을 연결짓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 (전략) 구름을 떠오르니 푹신푹신한 침대가 생각났고 (중략) 구름을 하면 솜이 떠오르고 솜하니까 푹신한 빵이 떠올랐다. [A-11-햄버거-1]
>
> 햄버거에는 빵이 있고 이것은 폭신하다. 폭신하면 솜사탕이 생각난다. 솜사탕을 생각하면 구름이 생각난다. [A-14-햄버거-1]

A-11 학습자는 시의 '구름'을 통해 "푹신푹신한 침대"와 "솜", "푹신한 빵"을 연상한다. A-14 학습자도 이와 매우 유사하게 (햄버거) 빵의 "폭신"함으로부터 솜사탕을 연상하고 이를 또 구름을 연결짓는다. 이 '구름'에서 '솜사탕'으로 이어지는 연상은 「햄버거와 구름」을 읽은 27명의 학습자들 중 총 7명의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17] 이렇게 구름과

16) 마인드맵에서 학습자는 '폭신폭신'이라는 의미를 떠올리기에 앞서 '만질 수 없다'라는 특성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만질 수 없다'라는 특성과 관련해 '가질 수 없음'과 '기다리지 않음'이라는 인간적 가치를 결부하려 시도하기도 한다(<구름-만질 수 없다-가질수없는 것-기다리지않음>). 이는 대상에 대해 가치를 은유적으로 투사하고 있는 양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대목은 따로 감상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이 의미 연상 부분이 텍스트와의 대화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양상은 다음 2) 항에서 다룰 양상과 구분하여 1) 항으로 분류하였다.

17) 학습자 감상 중 구름과 솜사탕을 연결짓는 대목만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솜(사탕)을 연결하고 푹신함을 떠올리는 것은, 학습자들이 솜사탕 먹는 경험에서 경험했던 형태의 해체 경험이나 솜(사탕)에 대한 촉각적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위의 A-7 학습자가 '구름'과 관련하여 느끼는 '폭신폭신함'의 감각 역시 완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A-7 학습자는 구름에서 느껴지는 폭신폭신함과 따뜻함이 "정오와 잘 맞는 느낌"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신체적 존재로서 학습자가 정오라는 시간에 대한 촉각적인 경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습자가 직접 기술하지는 않았으나 정오는 하루 중에서 기온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시간에 대한 이러한 축적된 신체 경험이 '정오'라는 시간과 '구름'이라는 대상을 촉각적으로 의미화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A-7 학습자는 시의 '구름'과 관련하여 '폭신폭신함'과는 상반되는 촉각적 특성을 떠올리기도 한다. 학습자는 '구름'이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느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모양이 있고 차가운"[18] "빗방울"(㉢)을 떨어뜨리는 "비구름으로 변"할 수 있으며, 시 텍스트가 이와 같은 비구름으로의 시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위의 학습자에게 있어서 '구름'은 우선 비구름이 되기 전까지는 습기가 없거나 적은 폭신폭신한 촉각적 특질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름'이 비구름이 될 때는 더 이상 폭신폭신하지 않고 뾰족한 빗방울들을 잔뜩 뿌리는, 축축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단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성질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학습자는 이렇게 자신이 떠올린 뜨거움과 차가움, 부드러움과 뾰족함이라는 양가적인 촉각성의 '구름'을 인간의 정신심리적인 가

구름은 솜사탕처럼 생겼고, 솜사탕은 하얀색이어서 양상추가 생각났다. [A-3-햄버거-1]
하늘이 떠오르니 구름이 생각났다. 솜사탕 먹고 싶다. [A-4-햄버거-1]
구름 하면 달콤한 솜사탕이 생각났고 [A-8-햄버거-1]
구름이라는 시어를 보니 비슷한 형태의 솜사탕이 떠올랐다. [A-13-햄버거-1]
구름은/ 뭉게뭉게 -> 솜사탕이 생각났다 -> 달다, 먹고 싶다 [A-17-햄버거-1]
빗방울은 구름에서 떨어져 구름을 생각나게 하고 이 구름은 달콤한 간식인 솜사탕이 생각났다. [A-24-햄버거-1]

18) 학습자가 이 '빗방울'과 관련해 느끼는 '차가움'이라는 촉각적 특성에는, 비가 올 때는 상대적으로 더 춥다는 신체적인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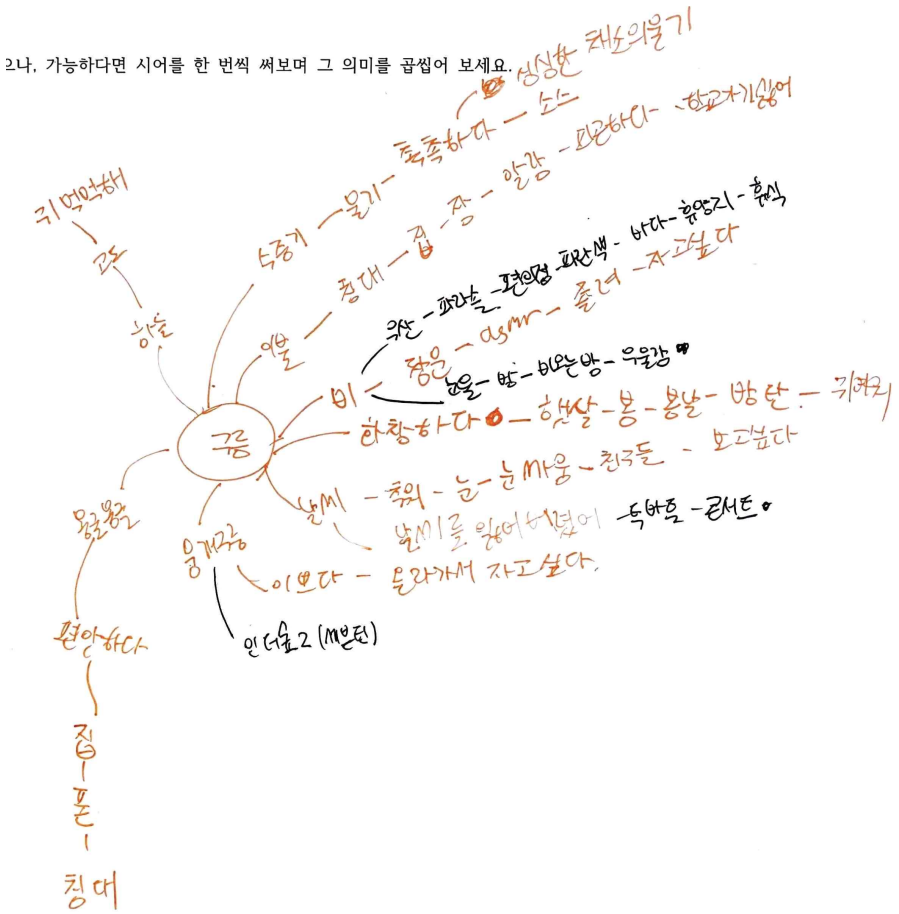
치와 결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에게는 대상을 통해 환기되는 촉각적, 물질적 특성과 관련하여 인간적인 정신심리적 가치들을 연상해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위의 A-7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인 A-6 학습자가 남긴 감상[19]을 읽고 "빗방울이 눈물이라는 생각이 인상 깊었다"[A-7-햄버거-2]라는 감상을 남기고 있는데, 만약 학습자가 시의 '빗방울'로부터 '눈물'이라는 가치를 떠올릴 수 있었다면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정오의 시간'에서 '뾰족한 느낌이 있고 축축한 정오 이후의 시간'으로의 변화 역시 단순한 시간 변화, 기상 변화 차원에서 나아가 인간적 가치와 관련하여 의미화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습하지 않고 푹신한 구름이 사람들의 눈물로 변화하는 시간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비구름을 만드는 변화를 '햄버거'와의 관련 속에서 탐색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는 햄버거의 빵껍질이 햄버거 재료들을 덮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불'을 연상하고(<햄버거-빵껍질-덮는다-이불>) 마인드맵에 <이불은 폭신폭신?>이라는 의미를 남겨놓고 있기도 하다. 학습자에게서 '폭신폭신함'은 시의 '구름'과 관련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점은 구름이 폭신폭신함을 갖고 있지만 어느덧 뾰족하고 차가운 빗방울을 뿌리며 인간 세상을 덮듯, 햄버거의 폭신폭신함 역시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뒤덮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2) 대상의 내부에 대한 가치의 은유적 투사

이 항에서는 대상의 내부 영역을 감지하고 이에 대해 인간의 정신심리적인 가치를 은유적으로 투사하여 대상을 주관화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정신심리적 가치의 투사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적 대상과 인간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연상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학습자가 이를 어려워할 경우, 교사는 대상의 물질적 특성

19) '빗방울' 자체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빗방울 자체로도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의 눈물이나 소스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굳이 정오에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아닐까? [A-6-햄버거-1]

과 결부될 수 있는 인간적 가치나 욕구, 행동 등의 예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안-밖의 지향성 도식 관련 내용을 제시해 대상의 경계 및 내부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의미를 촉발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A-1-햄버거-M][20]

구름을 생각하니 비와 햇살이 동시에 생각난다. 비를 생각하니 우산이 생각나고 파라솔, 편의점, 파란색, 바다, 휴양지, 휴식까지 이어졌다. 비에서 시작해 휴식으로 끝나니 생각의 끝은 아디인지 궁금해졌다. ㉠<u>어쩌면 구름에서 휴식을 즐기고 싶은 나의 욕망을 담은 걸지도 모른다.</u> (…) 이번에는 수증기가 생각났다. 그러니 다시한번 비가 생각났다. 그러나 ㉡<u>이번에는 휴</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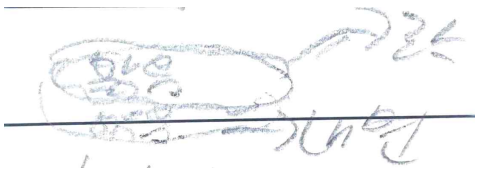
20) 주황색 글씨로 쓴 내용은 1차시, 검은색 글씨로 쓴 내용(<비-우산~/눈물~>, <투바투-콘서트>, <뭉개구름-인더숲2(세븐틴)>)은 2차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식이 아닌 우울한 감정으로 끝났다. 비오는 방에 자신의 감정에 빠져 울고 있는 여자가 생각났다. [A-1-햄버거-1]

위의 학습자는 자유로운 연상과 대상에 대한 가치의 투사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시 텍스트와의 대화적 관계에서 이를 의미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학습자에게서 시어 '구름'과 관련한 몽상 단어인 '비'는 ①'휴식'과 ②'우울'이라는 두 갈래의 의미 방향으로 분기하고 있다. 먼저 '휴식'의 의미와 관련해, 학습자는 마인드맵에서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고도>에 자리한 <이쁘>고 <몽글몽글>한 <뭉게구름>에 <편안>하게 <올라가서 자고 싶다>는 의미를 기술해보고 있다. 이는 '구름'을 통해 유발되는 '몽글몽글'이라는 촉각적 느낌이 학습자에게 편안함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시의 '구름'이라는 대상에 편안한 침대라는 인간적인 가치가 투사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학습자는 '구름'과 관련해 개인적 욕망의 측면에서는 상승적인 지향을 떠올리는 반면, 텍스트와 관련해서는 '구름'을 "우울"이라는 의미 갈래로만 연결시키고 '여자'가 "비오는 방에 자신의 감정에 빠져 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위의 학습자는 대상을 통해 환기되는 상반되는 물리적 특성을 떠올렸지만 그 중 하나만을 시 텍스트의 의미화에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몽상 과정이 시 텍스트의 의미화에 그다지 쓸모없다고 판단하여 감상을 중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학습자에게는 대상과 관련해 떠오르는 양가적 특성과 의미가 시 텍스트 읽기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습자는 구름을 쳐다보는 여자의 행위를 자신이 떠올린 "구름에서 휴식을 즐기고 싶은"(㉠) 욕망과 관련지어 해석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테면 높은 곳에서 휴식하고 싶어서 구름을 보는 것이라면, 지상에 있는 햄버거를 먹는 것은 현재의 여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등을 기술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학습자는 분명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울고 있는 여자"라는 대목을 고려할 때 '여자'가 슬픈 마음으로 햄버거를 먹고 있다고 의미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호수는 푸르다. 나무, 숲, 풀, 하늘은 자연이다. 풀은 바스락거린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다. 호수에 비친 구름은 푸르다. 호수는 넓다. 대지는 넓다. 대지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다. 동물과 식물에는 생명이 있다. ㉠호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넓은 곳이다. 마음은 넓다. 마음에는 감정 있다. 기쁨과 슬픔은 감정이다. 바다는 넓다.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 강과 계곡도 마찬가지. 산에는 계곡이 있다. ㉡호수는 투명하다. 투명함은 순수함과 비슷하다. 어린이들은 순수하다. 호수에는 수영을 갈 수 있다. 수영하면 차갑다. 호수는 잔잔하다. ㉢호수는 잔잔하다=호수는 한적하다=호수는 고요하다. 밤은 고요하다. 밤은 어둡다. 내면도 어둡다. 밤에는 달이 있다. 달은 밝다. 호수의 겉면도 밝다.



[B-5-호수-1]

위의 학습자는 '호수'를 표면과 심층으로 이중화하여 파악하고, 각각의 영역에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가치를 투사해보고 있다. 학습자는 우선 '호수'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가시적인 특성들("푸르다", "호수에 비친 구름은 푸르다", "호수는 ~ 넓은 곳이다")을 떠올려 본다. 이 중에서 호수의 '넓음'은 학습자에게 '마음의 넓음'과 '기쁨', '슬픔'이라는 감정을 연상케 하고(㉠), 호수의 '투명함'은 학습자에게 '순수함'이라는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는 호수의 표면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잔잔함' 밤은 학습자에게 고요한 밤을 연상케 한다. 이 밤의 '어두움'을 떠올림에 따라 학습자는 '내면의 어두움'을 떠올리는데, 고요한 밤이나 내면의 어두움은 학습자가 떠올리고 있는 호수의 '투명함'과 '순수함'이라는 성질과는 잘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순수함'이나 '투명함'과는 대비되는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호수의 표면이 아닌 심층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감상문에 나타난 그림은 호수의 표면과 내부를 그린 것으로, 학습자는 호수의 표면에 "밝음"을, 그 표면 아래의 영역에 대해 "어두움"이라고 쓰며 이 영역

와 관련해 “내면”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있다.

이처럼 호수의 경계선과 내부에 상반되는 가치를 투사하는 양상은 흥미로우나, 학습자는 자신이 의미화한 ‘어두운 내면’으로서 호수의 심층(깊이)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마음(감정)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그러한 가치 부여가 ‘그 옆에서 높이로 서 있던 나무가/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라는 시 구절과 관련하여 어떻게 의미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 학습자가 말하는 호수의 어두운 내면은 학습자가 호수와 관련하여 떠올린 의미인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 중 ‘슬픔’에 연관될 가능성이 좀더 커 보인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의식하고 섬세하게 의미화했다면, 학습자는 시의 여러 대상들 중에서 단지 ‘호수’에만 인간의 심리적 가치를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비롯해 시 텍스트 전체를 어떤 인간의 감정의 총체가 드러난 풍경으로 의미화했을 수도 있다. 즉 ‘높이로 선 나무’는 호수의 표면과 같이 가시적인 층위에 있는 어떤 것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깊이로 선 나무’는 호수의 내부와 같이 심층에 있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 영역으로 의미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경우 ‘호수’를 통해 유발된 대상의 표층과 내부를 이중화하는 시선을 시의 다른 대상물에도 적용해 보고, 시의 다른 언어 표현들을 주의 깊게 의식하며 이중화된 시선을 텍스트 속에서 의미화해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햄버거는 빨리 먹는 패스트푸드이다. 여자는 급하게 먹는 듯한 느낌이 있다. 패스트푸드라는 점이 여자의 급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다. ㉠빗방울이라는 것이 소스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자의 슬픈 마음 즉 눈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햄버거를 먹는 여자는 구름이 맛있다고 생각하며 먹었다고 했는데 이 ㉡구름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다. ㉢빵껍질이라는 것은 여자의 마음을 보조해주는 하나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소스가 흘러내리는 것이 빗방울을 나타낸다. 슬픈 마음이 흐르는 것이다. [A-25-햄버거-1]

위의 학습자는 ‘햄버거’를 통해 환기되는 물질들의 경도나 물질적 상태

를 기반으로 대상의 내부에 심리적인 가치를 투사해보고 있다. ‘햄버거’에 대한 학습자의 가치 부여는 시의 ‘빗방울’ 및 ‘소스’를 ‘여자’의 “슬픈 마음”이자 “눈물”로 해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학습자는 빗방울과 햄버거 소스, 여자의 눈물이 모두 액체이고 아래로 흐르는 운동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햄버거를 이루는 한 부분인 ‘소스’를 ‘여자’의 마음이 물질화된 어떤 것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학습자는 시의 ‘햄버거’ 전체를 ‘여자’의 마음과 관련지어 ‘두 개의 빵껍질’이 “여자의 마음을 보조해주는 하나의 보호막”이라고 의미화한다. 그리고 그 빵껍질 사이에서 흐르는 ‘빗방울’은 ‘소스’와 동일한 것으로서 “슬픈 마음이 흐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는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학습자의 독특한 물질화 방식을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는 ‘마음’을 어떤 특수한 경계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지 않고 햄버거의 빵껍질과 같이 부분만 덮여 있어 흘러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위 학습자에게서 마음은 ‘구름’이나 ‘소스’를 통해 환기되는 부드러움, 액체성과 같이 부드러운 것이자 어떤 경계에 의해 갇힐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빗방울 또는 소스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비물질적인 가치를 투사하여, 마음을 경계가 있으면서도 없는 어떤 것으로 물질화하는 학습자의 몽상에는, ‘마음은 경계를 넘나들어서 이동할 수 있다’와 같은 생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위 학습자의 감상문에서 ‘구름’을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학습자에게 시의 ‘구름’은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면서도 ‘여자’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의미화되지 않았으나,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계속 따라가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여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유발되었을) “급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따뜻한 마음인 ‘구름’을 빠르게 먹어 없애버리는데, 이렇게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과정이 슬퍼서 눈물(‘빗방울’)이 떨어진다. 이렇게 ‘여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먹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부를 먹는 행위로서 매우 생소하지만 신선한

이미지가 될 수 있다.[21] 물론 학습자는 이러한 이미지까지를 떠올리고 있지는 못하므로, 이 학습자의 경우에는 시적 대상에 대해 몽상적으로 가치 부여한 이미지를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끈기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의미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호수라는 단어를 보니 투명한 유리가 떠올랐다. 호수는 무엇을 반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반사가능한 거울이 생각났다. 잔물결은 고기가 일으키는 잔잔함이다. 새벽에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 보통 고기가 잔물결에서 헤엄치는데 고기하니 붕어빵이 떠올랐다. 붕어빵에는 팥과 슈크림이 있는데 나는 슈크림…. 솔직히 둘 다 맛있긴 한데 붕어빵은 머리부터 먹어야 한다. ㉠이 망은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것을 뜻하는 거 같다. 이 원하는 것은 호수와 같은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고 싶다는 것 아닐까? ㉡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내를 보니 아마 사내는 서서 고기를 잡았을 것이다. 나무에 기댄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무와 사내를 대조시키는 것 같다. 나무와 사내는 공통점이 많다. 둘 다 살아있는 생명이고 생각의 폭이든 높이든 계속 자라난다. ㉣생명성이 있으며 호수에 나무가 비치듯이 사내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호수로 반사하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 같다. [B-9-호수-1]

위의 학습자는 시에서 '사내'의 낚시 행위를 "호수와 같은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려는 행위로 의미화하고 있다. 이는 호수의 표면과 깊이에 각각 넓은 마음과 포용력이라는 인간적 가치를 투사하여, 시의 '호수'를 어떤 위대한 인격성으로 의미화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와 같은 '호수'에 대한 가치 부여를 이어가서 '사내'가 호수를 바라보는 행위를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행위, 즉 개인적 수신(修身) 또는 성찰 행위로 의미화한다(㉣). 이러한 의미화에 있어 학습자는 '나무'와 '사내' 간의 공통점, 즉 "살아있는 생명이고 생각의 폭이든 높이든 계속 자라난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

21) 이러한 이미지는 강은교 시인의 시적 산문에서 '햄버거의 입술 위에 우리가 엎드리는가,/ 햄버거가 우리의 입술 위에 엎드리는가' 부분, 즉 우리가 햄버거를 먹는지 혹은 햄버거가 우리를 먹는지 의문을 던지는 대목을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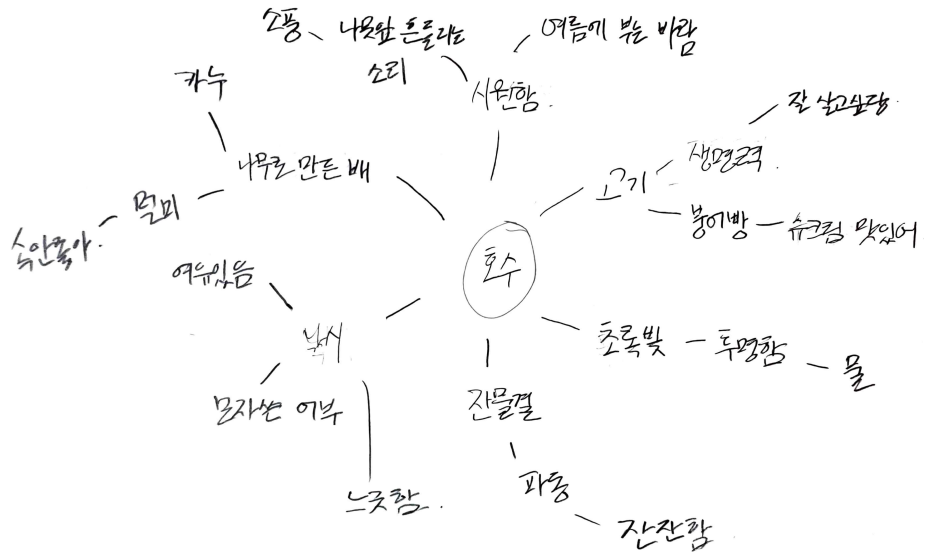
한편 위의 학습자는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내를 보니 아마 사내는 서서 고기를 잡았을 것”이라며 ‘사내가 물가에 앉아 있다’라는 시 구절을 오독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의 언어 표현을 제대로 주목하지 않아 일어난 비의도적인 오류적 오독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내가 서 있다거나 “나무에 기댄”(㉡) 상태일 것이라는 학습자의 가정은, 그 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분별된다고 생각되는 ‘사내’와 ‘나무’의 심층적인 동질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선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오독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 같은 양상은 학습자의 시 읽기에서 일어나는 비의도적인 오독이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들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또 이 비의도적 오독이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첫 감상을 작성한 이후에 시 텍스트의 언어 표현 전반을 세심히 의식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학습자는 ‘나무가/ 어느새 깊이로 다시 서 있다’라는 시 구절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호수의 반사 현상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잔물결’에 대해서도 “고기가 일으키는 잔잔함”이라는 언급 외에 특별한 의미 부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위의 학습자에게는 ‘사내의 낚시가 포용력을 얻으려는 행위라면, 이 시에서 ‘어망’(내밀성이 없는 대상)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 그리고 잔물결은 어떤 의미일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감상의 구체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 주목하였다면 학습자는 예컨대 ‘위대한 인격성도 늘 평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잔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 등으로 해당 구절을 의미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3) 대상의 경계선과 주변 영역에 대한 운동성 부여

이 항에서는 시적 대상을 통해 환기되는 대상물의 내부에 대한 참여가 심화되어 그 대상의 경계선 또는 주변 영역에 운동성을 부여하는 시적 몽상의 예시를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 ‘운동성의 부여’란 그 대상을 둘러

싼 주변 공간에 새로운 운동적인 변화가 부여된다는 것으로, 허공이었던 곳에 어떤 운동성을 가진 대상물이 생성되거나 대상 간 인과관계가 새롭게 부여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두 명의 학습자가 「호수와 나무—서시」의 몽상적 읽기 과정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B-20-호수-M]

㉠호수에서 한 사내가 고기를 잡는다는 부분에서 고기가 잔물결을 일으키는 장면이 생각났다. 잔물결이 잠시동안 일어나다 곧 잔잔해지는 장면이 그려졌다. ㉡한 사내를 생각하니 챙모자를 쓴 남자가 여유롭고 느긋하게 고기를 잡는 모습이 생각났다. ㉢호수를 상상하다 보니 나무로 만든 배가 고요한 물 위에서 잔잔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떠올랐고, 멀미가 심한 나에겐 저 배를 타면 속이 안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호수가 물이 모여서 생긴 곳이라고 생각하니 시원상쾌한 공기와 바람이 생각났다. 무더운 여름에 부는 시원한 바람이 생각났는데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호수의 물이 초록빛깔을 띠고 있는 모습이 생각났고 탁하지 않고 투명한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기라는 단어를 보고 갈색을 띠고 있는 붕어빵이 생각났다. 고기가 어부에게 낚여 파닥거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생명력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파닥거리는 모습이 꼭 힘들고 벅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B-20-호수-1]

위의 양상은 대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비가시적 운동성에 대한 탐색이 대상 외부에 새로운 대상을 생성하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보인다. 위의 B-20 학습자는 특이하게 시에 언급된 '나무'가 아닌 '나무배'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이러한 '나무배' 이미지의 출현 과정이 학습자의 언어로 명확하게 기술되지는 않았으나, 호수의 이미지에서 유발될 수 있는 몽상에 대한 바슐라르의 언급을 잠시 상기하며 '나무배' 이미지의 출현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바슐라르는 조용한 물을 '내적인 삶을 소유한 유일한 거울'이라고 말하면서 호수의 표면과 같이 잔잔한 물에서는 표면과 심층이 매우 가까워 물의 몽상은 표면에서 심층, 그리고 심층에서 표면으로 끊임없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22] 실제로 위 학습자는 먼저 호수 내부의 물고기가 일으키는 운동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호수 표면의 변화에 집중했다가(㉠) 호수 바깥의 '사내'에게로 시선을 이동하고(㉡), 그러다 다시금 호수를 떠올리고 있다. 즉 학습자에게서는 호수 내부-호수의 경계선-호수 외부-다시 호수로 시선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학습자는 마지막에 호수로 시선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무배'의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습자는 '고기'에 의한 잔물결은 사라져 잔잔해지지만, '나무배'에 의한 잔물결은 지속적으로 "잔잔하게 흔들리는" 풍경을 떠올리는데 이는 학습자에게 멀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생생한 움직임이다("저 배를 타면 속이 안 좋을 것 같다"). 이와 같이 '나무배'의 소재가 아닌 운동적인 측면에 주목할 때, 학습자가 떠올리는 '나무배' 이미지는 단순히 시의 '나무'를 통해 환유적으로 연상된 이미지라기보다는 호수 심층에서 일어나는 '고기'의 역동적인 운동성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학습자에게 그 운동성을 호수의 표면에서도 다시 체험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호수의 잔잔한 운동성과 그 표면 아래에 헤엄치는 고기의 움직임, 그리고 그러한 고기

22) G. Bachelard(1960), 앞의 책, p.220.

와 배 간에 성립할 수 있는 모종의 형태적 유사성이 결합하여 ‘수면 위의 배’라는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호수 외부의 허공이라는 비가시적 영역에 호수 내부의 운동성이 퍼져나가 나무배로 가시화된 것은 대상의 비가시적 영역에 대한 운동성의 부여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나무배의 이미지는 세심히 주목하지 않을 경우 시 읽기와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대상의 가시적 형태보다는 비가시적인 힘 속에 나타난 이미지로서 귀중한 몽상적 이미지이다. 물론 이러한 몽상의 과정이 ‘높이로 서있던 나무가 깊이로 서 있다’라는 시의 진술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이 이 학습자에게는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시의 ‘고기’와 학습자가 떠올린 ‘나무배’ 사이에 모종의 연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때, 흔들리는 배를 보고 학습자가 느끼는 ‘멀미’의 느낌은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파닥거리는’ 물고기가 주는 느낌과 어떤 방식으로 대비 또는 연계될 수 있는지 등의 물음이 제시되어도 좋을 것이다.

> 나는 호수를 봤을때 가장 먼저 물 즉, H2O가 떠올랐다. 그리고 H2O는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해 결합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유결합이 떠올랐고 여기서 "안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호수의 잔잔한 모습과 연관지을 수 있다. 두번째로 ㉠호수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떠올랐을 때 표면장력이 떠올랐고 이 표면장력이 마치 물고기들이 어부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버티는 장면 같았다. 세번째로 호수의 잔물결이 떠올랐는데 이 잔물결은 호수에서 고기를 낚아채 어망에 넣어서 수많은 고기 중 몇 마리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라고 생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물을 생각해보니 맑다는 물의 성질이 떠올랐고 이를 통해 한 사나의 순수함이라는 성질과 연관지을 수 있었다. 또한 물은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선 쌍극자 모멘트의 합력이 쏠리기 때문에 큰 전위차가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마치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와서 호수 수위가 변하는 것 같았다. [B-13-호수-1]

위의 학습자는 시어 ‘호수’를 통해 환기되는 물의 운동성에 대해 과학

적 지식을 떠올려 “표면장력”이라는 의미를 떠올리고 있다(㉠). 액체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인 표면장력[23]에 대해 학습자는 마인드맵에서 <퍼지지 않고 같이 모이도록 버티는 힘>이라고 설명하고, 그 힘의 원인을 ‘호수’를 이루는 표면의 분자가 아닌 그 내부의 ‘고기’(“물고기들”)에게서 찾는다. 즉 학습자는 대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운동 특성을, 시에서 “물고기들이 어부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과 관련지으며 체험된 운동의 층위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자 양상은, ‘호수’라는 대상의 내부 영역에서 ‘고기’들의 활발한 운동성에 의해 자극받은 상상력이, 서로 무관해 보이는 ‘호수’의 표층과 심층을 연결지어 힘의 인과관계를 전환시킨 몽상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층과 심층 간의 내밀한 교환에 대한 인식은 ‘호수’와 ‘나무’의 연관 관계를 탐색하는 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의 학습자는 ‘나무가/ 어느새 깊이로 다시 서 있다’와 같은 비과학적인 시의 진술에 대해서는 해석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대상에 대한 과학적 시선이 몽상을 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이에 치중할 경우 시적 몽상의 활동은 피상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 학습자는 “맑다는 물의 성질”과 ‘사내’의 “순수함이라는 성질”을 결부시키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연계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대상과 관련해 주관적이고 정신심리적인 가치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시적 몽상의 과정에서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내부에 대한 시각이 심화될 때, ‘나무배’의 사례처럼 대상 외부에 허공으로 존재하던 공간이 사물화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인과관계를 비롯한 여러 범주가 경험적 현실과는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습자들이 시 읽기 과정에서 떠올리는 어떤 대상의 내부, 윤곽(경계선), 외부의 관계는 안-밖의 지향성이라는 도식에 의한 구조화를 벗어나 시적 몽상의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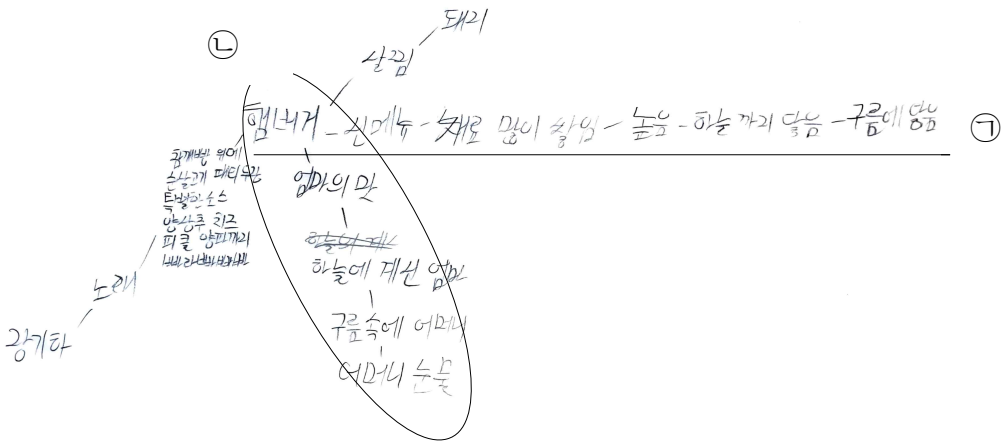
---

23) 표면장력은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해 되도록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으로, 액체의 표면을 이루는 분자층에 의해 생긴다.『표준국어사전』.

3.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형상화 및 의미화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시의 언어를 통해 활성화된 몽상을 시 텍스트와 관련하여 형상화하고 의미화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동료 학습자와의 대화가 강조된 본 조사의 특성상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형상화와 의미화 양상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비가시적 영역에 부여한 특성과 의미를 시의 다른 언어 표현들을 의식해가며 체계화하고 질서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의미화하는 두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1) 텍스트의 맥락에 기반한 몽상의 형상화, 2)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의미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텍스트의 맥락에 기반한 몽상의 형상화



[A-16-햄버거-M]

위의 학습자는 대상물의 내부 영역에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을 상상적 의지에 의해 가시화하고, 그 내부 영역에 대한 응시 속에서 인간의 정신심리적인 가치와 결부되는 운동을 대상물 외부로 가시화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내향적 몽상의 과정이 텍스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읽기 과정과 시 텍스트 맥락 전

반을 고려해볼 때 위 학습자의 감상 내용 역시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할 수 있다. 상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위의 학습자는 우선 햄버거가 여러 재료를 높이 쌓아 만들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햄버거의 크기를 구름에까지 닿는 것으로 확대해보고 있다(㉠). 이는 '햄버거에서 구름이 떨어졌다' 부분에서 시적 대상인 '햄버거'와 '구름'의 형태적인 모호함을 감지하여, 두 대상을 공간적으로 근접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편 ㉡ 부분에서 학습자는 구름이라는 시적 대상의 비가시적인 내부 영역에 '여자'의 어머니가 자리잡고 있다고 몽상한다(<하늘에 계신 엄마-구름속에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구름이라는 시적 대상의 비가시적 내면에 자리잡은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구름속에 어머니-어머니 눈물>). ㉠과 ㉡ 중에서 어떤 연상이 선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경우이든 '햄버거'는 그 특유의 맛에 의해 어머니의 맛 즉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의 맛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햄버거-엄마의 맛>). 이처럼 학습자는 '구름'과 '여자'의 관계를 사별로 인해 서로를 그리워하는 모녀 관계로 의미화하고 있는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 부분에서 학습자가 거쳤을 법한 연상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의 첫 행에는 "그 여자는 정오에 구름을 보며 햄버거를 먹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자는 왜 굳이 "구름을 보며" 햄버거를 먹는 것일까? 아마 햄버거를 먹다가 문득 하늘에 계신 엄마의 손맛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지금 계신 곳인 구름을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간/ 빗방울이 두 개의 빵껍질 사이에서/ 떨어졌다"는 무슨 뜻일까? 빗방울은 구름에서 떨어지고 구름에서는 비가 만들어진다. 이 비가 만들어지는 것은 구름의 내부에 있는 엄마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비는 아마도 딸과 이별한 어머니의 슬픈 마음 즉 눈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눈물은 액체고 구름에서 액체인 빗방울이 떨어진다. 즉 엄마의 슬픈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다.] 즉 위의 학습자에게서 시의 '햄버거'는 시의 '여자'와 그 어머니 사이의 그리움이 각인된 기호로 보인다.

한편 내향적 몽상을 통해 시적 대상들의 모호한 형태를 나름대로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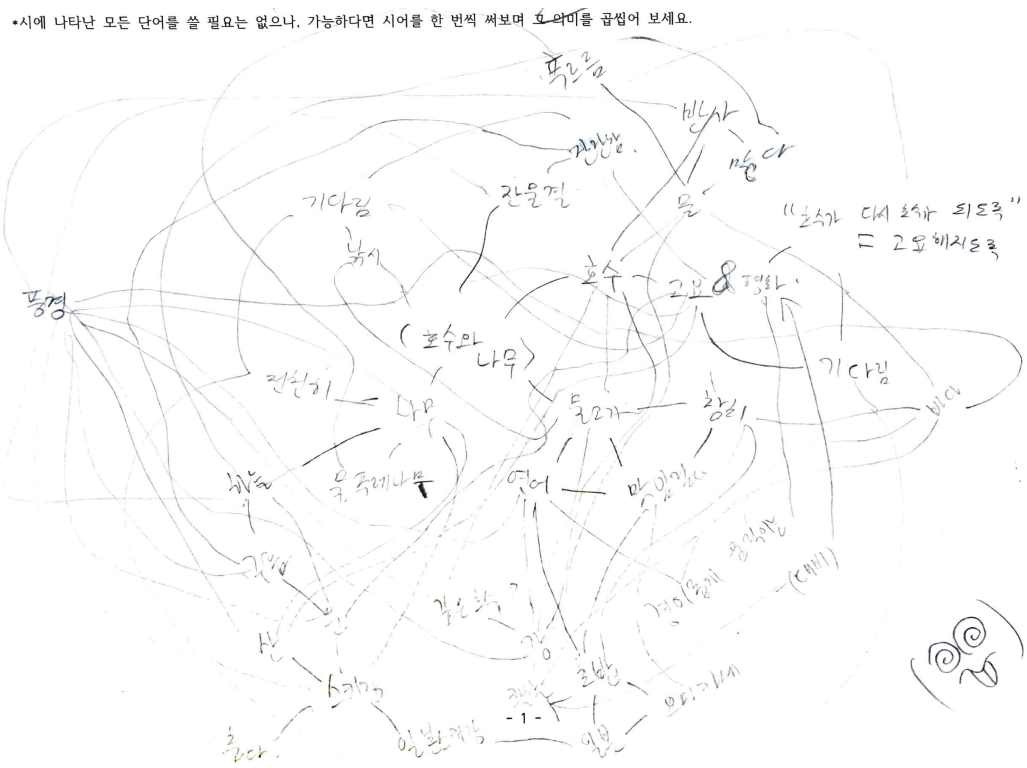
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학습자는 ㉠의 연상 부분과 ㉡의 연상 부분을 종합하여 자신의 언어로 의미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감상문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는 1차시의 마인드맵에서 메모한 연상의 과정을 시 텍스트의 기호 간 연결 관계에 비추어 의미화하기보다는, 동료 학습자를 의식하며 감상문을 장난스럽게 작성하고 있다.[24] 이러한 학습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몽상 과정을 시 텍스트와 관련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발문이나 교사의 질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랬다면 햄버거의 재료가 층층이 쌓이며 구름에까지 가닿는 ㉠의 이미지는, 서로 닿을 수 없는 두 사람 간에 생겨나는 정서적인 그리움의 강도와 관계된 기호로서 의미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때 시의 마지막 구절인 '오, 햄버거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와 같은 구절 역시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모녀간의 기다림이나 그리움이라는 정서적 상황으로 의미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위의 학습자와 같이 마인드맵 작성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에 대해 장난스럽게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실제 교육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의 시 읽기 과정 전체가 윤리적인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상상 활동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시적 몽상을 진행해 가도록 활동 전에 주의를 환기해 둘 필요가 있다.

---

24)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동료 학습자와의 대화를 강조하는 본 조사의 방식 자체를 들 수도 있겠으나, 겨울방학과 봄방학 사이의 어수선한 기간에 본 조사가 진행된 점 역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감상문 원문은 다음과 같으며, 감상문에 포함된 동료 학습자의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햄버거는 살이 찐다. 살이 찐 것을 생각하니 OO이가 생각났다. 이것은 OO일 의미한다. 그리고 햄버거 패티가 소고기로 만든 것을 보면 OO을 배려해 돼지고기를 넣지 않은 것이다. 구름을 생각하니 OO이가 생각났다. OO이는 구름을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빗방울을 생각하니 OO이가 생각난다. OO이는 빗방울을 먹었었다. 소스를 생각하니 OO이가 생각났다. OO이는 소스를 먹은 적이 있다. 이 시는 OO이를 의미한다. [A-16-햄버거-1]



[B-19-호수-M]

(이건 아무리 봐도 아무말 대잔치다.) 시에 나온 시어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 같다. 호수 하니까 조용하고 정적인 자연의 미가 느껴졌다. '잔물결' '나무' '호수' 등에서 느껴지는 정적의 미 속의 평화로움과 고요와 자연으로의 회귀가 떠올랐으며 정적의 미와 대비되는 동적의 미가 '물고기'에서 강하게 느껴졌다.

(중략) '나무'에서 좋아하는 나무인 물푸레나무(ash tree)가 생각났다. ㉠물푸레나무는 잘라서 물에 넣으면 물이 푸르러진다는 점에서 ㉡물과 호수와 고요히 경이롭게 떠다니는 구름과 하늘의 푸르름과 연결되었으며 또 놀라웠다.

㉢사내의 정체에 관해서는 힘들고 반복적이고 지루한 삶을 살았으며 지루함과 고됨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소망을 자연으로의 회귀로 풀어내는 것 같다. 푼다에서 물푸레나무가 다시 떠올랐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공포는 존재감의 상실과 반복되는 직업과 소외감이라고 하는데 사내가 낚시를 통해 공포를 풀었으면 한다. [B-19-호수-1]

위의 학습자는 대상 내부의 변화를 몽상하며 이 변화가 시 텍스트를 통해 환기되는 다른 대상물에도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떠올려보고 있다. 학습자는 시의 '나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인 물푸레나무"를 떠올리고, "물푸레나무는 잘라서 물에 넣으면 물이 푸르러진다는 점"(㉠)을 환기함으로써 시의 '나무'가 '호수'의 물과 구름과 하늘의 푸르름과 연결되는 경이롭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의 푸르름과 하늘의 푸르름이 연결된다는 학습자의 언술은 주목함 직한데, 마인드맵에서 학습자가 호수 표면의 반사 현상을 떠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호수-반사-하늘>) 학습자는 이 반사된 물푸레나무의 내적인 푸르름으로 인해 세계의 여러 대상들이 합일을 이루는 풍경을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세계를 이루는 대상들의 관계를 푸르름이라는 색의 질료[25]로 재구성하고 있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 학습자의 읽기 양상에서는 물푸레나무가 만약 잘린다면 어느 정도만큼 잘리는지, 무엇에 의해(혹은 누구에 의해) 잘리는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나무'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의 부재는, 시 텍스트와의 대화가 부족한 양상이라기보다는 몽상 활동 그 자체의 특징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실제 물푸레나무는 잘라서 물에 닿아야만 푸르러지는 것이지만, 시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가 떠올리는 몽상적인 풍경 속에서는 반사 현상에 의해 호수와 물푸레나무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물푸레나무를 자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휘되어 세계 전체가 푸르러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 호수는 물푸레나무의 자르기라는 외향적인 일을 하는 주체이면서, 그 자신의 행동에 의해 내면적으로 푸르러지는 것이다.

---

25) 여기서 푸름 자체가 아닌 푸르러짐에 주목하는 것은 색을 형태보다는 질료로서 바라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절에서 호수를 통해 바다의 '푸르름'을 연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파이어에 달린 나무를 상상한 B-11 학습자와 달리, 위의 B-19 학습자는 '푸르러짐'에 주목한다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색(色)을 '형태'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나무에도 어떤 고정된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했다면, 후자는 색을 '변화'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색을 질료로 파악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색에 대한 주목은 윤곽선을 사라지게 하여 몽상하는 자에게 고요한 통일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색 역시 하나의 질료가 될 수 있다. 김융희(2006), 「바슐라르 이미지론에 나타난 색의 의미」, 『미학예술학연구』 24, 한국미학예술학회, pp.247-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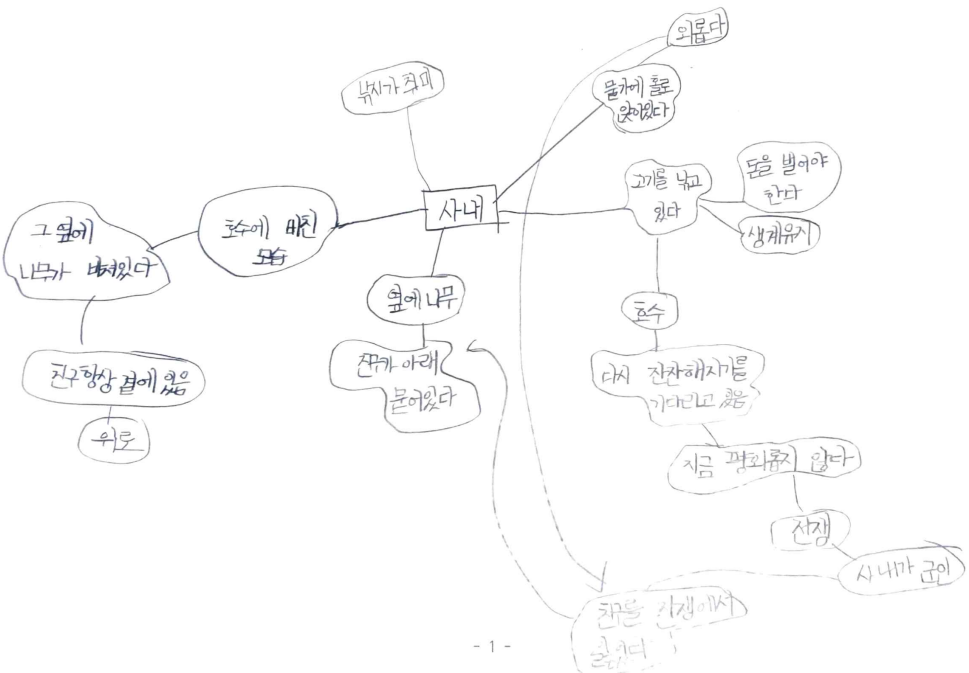
한편 위 학습자는 호수의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내의 행위를 “지루함과 고됨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소망을 자연에의 회귀로 풀어”내는 것으로 의미화하고 있는데, 이 “푼다에서 물푸레나무”를 다시 떠올린다(㉢). 이때 떠오른 ‘풀다’를 통해 학습자는 사내의 낚시 행위를 “존재감의 상실과 반복되는 직업과 소외감”에서 오는 공포를 푸는 행위로 의미화하기도 한다(㉣). 위 학습자에게서 물푸레나무는 존재감의 상실이나 소외감과는 대비되는 ‘세계의 합일’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단순 언어유희나 자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위 학습자는 이상의 내용을 ‘그 옆에서 높이로 서 있던 나무가/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라는 시의 중요 대목의 해석으로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나, 몽상의 과정을 시 텍스트와의 관련 속에서 성찰하도록 하는 발문이 제시된다면 이 대목 역시 충분히 의미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위 학습자에게서 ‘호수’의 내부에 푸르러짐이라는 운동성을 부여하는 몽상은, ‘나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 자체의 내부를 보고자 하는 시선보다는 물푸레나무 자체에 대한 지식을 통해 유발된 것이다. 이는 대상에 대한 기존의 경험에 다소 의존해 이루어진 몽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시의 ‘나무’와 관련하여 꼭 구체적인 물푸레나무를 떠올리는 것 이외에, 대상의 내부를 좀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발문이나 질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 생긴 나무인지 중요하지는 않으니 그 나무 내부에 어떤 미지의 대상물이 들어 있다고 상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학습자가 스스로 떠올린 물푸레나무의 속성이 변형된 나무, 예를 들어 이파리가 닿으면 물이 검어지는 새로운 나무를 떠올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색채의 질적 변화는 몽상가인 학습자 자신, 혹은 시 텍스트에 내포된 타자의 정신심리적인 가치(예컨대, 자연으로의 회귀 내지 합일로도 풀 길이 없는 ‘사내’의 공포)와 결부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학습자의 몽상을 심화하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덧붙여 위의 학습자에게서 세계의 푸르러짐이라는 몽상이 심화된다면, 이 학습자는 푸른 하늘과 푸른 호수의 관계를 일상적인 상하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역시 호수처럼 잔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파악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 부분에서 “경이롭게 떠다니는 구름”이라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데, 이 구름은 호수 내부의 ‘고기’와 모종의 대응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물의 푸르름과 동일한 질료로 된 하늘 역시 호수의 깊이와 고요한 운동성을 획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의미화

앞선 1) 항에서 시 읽기를 통해 활성화된 몽상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형상화한 학습자들의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이 항에서는 텍스트의 여러 언어 표현들을 좀더 상세히 의식하며 몽상의 과정을 의미화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B-17-호수-M]

오규원의 「호수와 나무—서시」를 읽어보니 사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사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니 고기를 낚고 있다는 구절과 연결해 호수가 연상되었고, ㉠호수가 다시 호수가 되도록 기다리는 이라는 구절에서 호수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났다. 이때 호수는 사회적 배경에 빗댄 것이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다시 평화롭게 변하기를 기다리는 사내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럼 ㉡사내는 군인일 가능성이 크고 잔물결(=불화)을 일으키는 고기를 잡는 것이 사내가 군인으로서 전쟁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라고 생각되었다. 또, 사내 옆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사내의 소중한 사람(아내/친구)이 전쟁통에 죽어 나무 밑에 묻어둔 것이 아닐까? 라고 추측되었고, ㉣마지막 줄에 나무가 호수에 서 있다라는 구절에서 나무와 호수는 서로를 보고 있지만 서로 만날(닿을) 수 없는 관계처럼 사내와 나무 아래 묻어 있는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한 것 같다. ㉤시에서 사내는 홀로 물가에 앉아 있는데 시인을 홀로 앉아 있는 사내의 모습을 연상되게 함으로써 사내의 외로운 모습을 강조시키는 것 같다. [B-17-호수-1]

위 학습자는 먼저 '호수가 다시 호수가 되도록 기다리는'이라는 시의 구절을 "호수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잔잔하지 않은 호수 표면과 관련해 평화롭지 않다는 의미를 떠올린 뒤 이것이 사회적 배경의 비유라고 해석한다(<호수-다시 잔잔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음-지금 평화롭지 않다-전쟁>, ㉠).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사내'를 외로운 군인으로 의미화해 본다(<사내-외롭다→친구를 전쟁에서 잃었다-사내가 군인>, ㉤). 이어서 학습자는 '호수'가 전쟁 중 상황의 비유라는 비유적 해석을 지각적인 수준으로 확장하여 '나무'에 내밀한 가치를 부여하는 데 이른다. 학습자는 '나무'의 아랫부분에 전쟁통에 죽은 '사내'의 아내 또는 친구가 묻혀 있는 것이라며 나무, 혹은 그 나무를 품고 있는 땅의 비가시적 내부에 가치를 부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사내-옆에 나무-친구가 아래 묻어있다←친구를 전쟁에서 잃었다>, ㉢).

한편 이 '사내'의 형상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위 학습자의 시 읽기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마

인드맵에서의 경우, 학습자는 호수 표면에 사내가 나무와 함께 비친 이미지를 떠올리고 '위로'의 의미를 떠올린다(<사내-호수에 비친 모습-그 옆에 나무가 비쳐있다-친구 항상 곁에 있음-위로>). 이 '위로'의 의미의 경우 학습자가 호수의 표면의 이미지를, 사내 및 그 사내의 죽은 친구가 함께 존재하여 서로의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상황으로 의미화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가 서술한 바 사내가 물가에 홀로 앉은 상황이 외로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위로'라는 의미는 '호수 표면에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은 산 존재들처럼 서로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와 같은, 호수에 대한 학습자의 특별한 가치 부여 속에서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호수'는 현실에서의 비가시적 한계,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 사내가 죽은 친구와 함께 존재하게 해주는 공간인 것이다. 이 경우는 호수라는 일상적 대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몽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26]

한편 감상문 작성 과정에서 학습자는 호수 표면이 아닌, 물가에 있는 현실의 사내 이미지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학습자는 '그 옆에서 높이로 서 있던 나무가/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을 "나무와 호수는 서로를 보고 있지만 서로 만날(닿을) 수 없는 관계처럼 사내와 나무 아래 묻어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표면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대상들이 실제적으로 "만날(닿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학습자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과 '사내'의 외로움이 '사내'가 "홀로 물가에 앉아 있는 모습"을 통해 강조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 경우에 학습자는 '사내'가 현재 서 있는

26) 학습자 스스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나무가/ 어느새 깊이로 다시 서 있다'라는 시구절이 이와 같은 호수에의 가치 부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내의 친구가 존재하는 나무의 비가시적인 영역은, 가시적인 표면과 비가시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호수라는 대상에서 깊이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사내'의 낚시 행위가 (감상문에서 "전쟁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로 제시되고 있는 것과 달리) '호수'의 표면 속에서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는 "나무 아래 묻어 있는 사람"을 또렷하게 보고자 하는 의지나 그리움과 관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와 관련된 발문이 제시되었다면, 학습자는 '어망'으로 '고기'를 잡는 '사내'의 행위를 '잔물결'이 없는 곳에서 죽은 아내/친구를 또렷이 보고자(또는 함께 있고자) 하는 행위로 의미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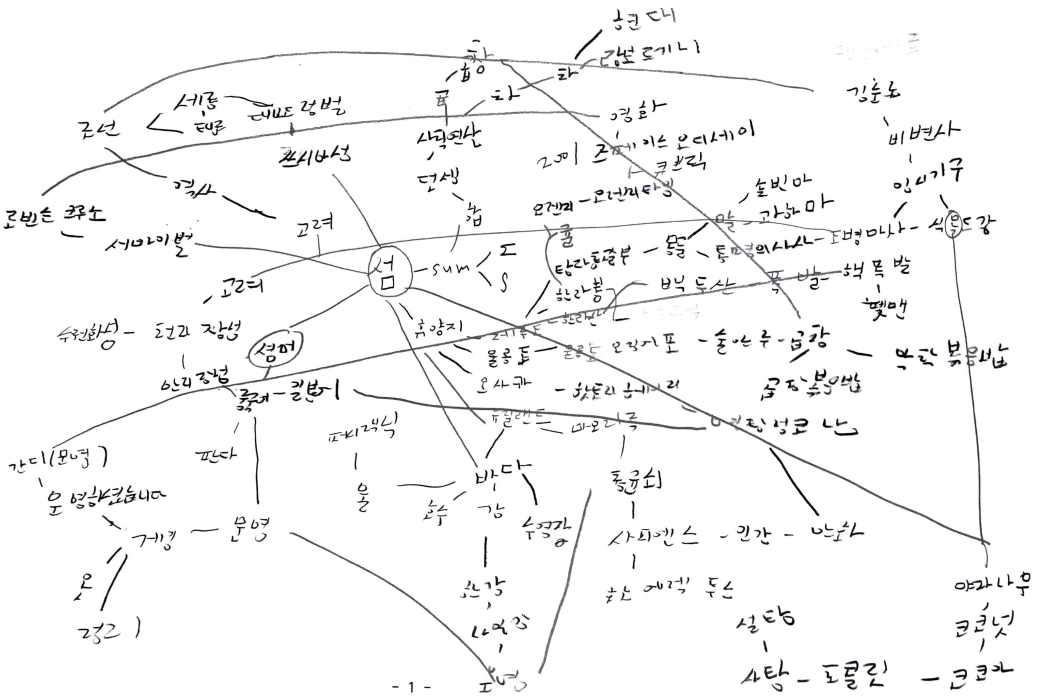
‘물가’라는 공간을, 표면 아래의 깊이를 가진 ‘호수’의 공간과 ‘나무’ 아래의 공간과 대조적으로 의미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시의 ‘물가’는 생명의 자리, 호수 또는 나무 아래는 비가시적 영역으로서 죽음의 자리, 호수 표면은 (그 아래에 깊이를 가지고 있지만 ‘고기’와 같이 생명체만을 품는 공간으로서) 생명과 죽음의 자리의 괴리를 극화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상의 두 가지 방식의 읽기 모두 학습자가 나름의 창조적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양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해석의 방향이 수정된 경우 교사는 학습자가 이전의 해석이 어떤 지점에서 부족한 해석이라고 느꼈는지, 혹은 기존의 해석을 새롭게 떠올린 의미와 종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등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27)]

한편 앞선 항에서 “구름 속에 어머니”가 있다고 상상한 A-16 학습자와 위의 B-17 학습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고 이를 시 텍스트의 의미화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의미를 떠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누군가의 죽음이란 어떤 것의 내부에 둘러싸여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안-밖의 지향성이 시의 의미 구성에 일차적으로는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학습자에게서 죽음이 ‘나무’, 혹은 그 ‘나무’가 자리잡고 있는 어떤 땅의 내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가닿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의미화된다면, A-16 학습자에게 죽음은 “어머니 눈물”이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듯 ‘여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상으로 위의 B-17 학습자가 나무의 비가시적 영역에 부여한 물질적 특성이 ‘죽은 사람’이라는 대상으로서 현실의 물리적인 세계 법칙과 그다지 모순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학습자는 시적 대상에 경험적 현실의 세계와는 모순될 수 있는 새로운 특질을 부여하고 있다.

---

27)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학습자는 감상문 작성 과정에서 현실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림으로써 호수 표면에서의 ‘함께 존재함’, ‘위로’와 같은 의미보다는 비극적인 의미들을 더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C-9-섬-M]

섬이라고 하자 다양한 휴양지와 발음이 같은 (Sum) 그리고 섬 앞에 펼쳐진 넓은 바다가 생각났다. 섬은 보통 시러 가는 곳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배지, 또는 삶의 터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섬은 어쩌면 휴양지의 섬이 아니라 유배지의 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섬마다 각각 역사와 격변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섬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신만의 역사가 담긴 방어막의 고체화된 기억이 아닐까 싶다. 또한 섬을 섬으로 만든 강과 바다는, 말장난인 것 같지만, 각자의 경험이 sum되어서 만들어진 지리인 것 같다. 또한 ㉢생존을 위해서 섬에서 사냥하고 사냥당하는 섬의 잔혹한 성격이 사람들의 관계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런 성격의 섬은 「로빈슨 크루소」보다는 「10명의 인디언」(뭐 대충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다.)의 서바이벌 같다. 또 「총균쇠」에서 나왔듯 섬은, 또 구체적으로는 무인도는 인간이 점령해 왔는 지역으로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아직 친밀한 관계지만 서로 나누지 못한 기억마저 공유하고자 하는 의리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현종 시인은 이에 대해서 어쩌면 그 섬에 가고 싶은 감정이 꼭 좋지는 않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당연히

시에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는 없다. 애초에 두 줄이기 때문에…) 또 섬의 야자나무에서 나는 코코넛 등 맛있고 독특한 종의 것이 자라나는 섬이기에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C-9-섬-1]

위 학습자의 경우 감상문의 초반부에는 대상에 대한 감각 경험에 기반해 시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나, 시 텍스트와의 대화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시적 대상의 형태적인 모호함을 감지하고 대상 내부에 인간적 가치와 관련된 새로운 물질적 조성을 부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위 학습자는 시의 '섬'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양한 휴양지와" "섬 앞에 펼쳐진 넓은 바다"와 같이 시적 대상의 구체적인 형태를 떠올려본다. 학습자가 1차시 활동에서 그린 마인드맵을 보면 <섬-휴양지>로 뻗어나가는 의미망이 아주 크고 상세한 의미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섬'과 관련해 휴양지와 관련된 의미를 감상문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역시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이 휴양지로서의 섬의 형태와 의미는 학습자가 '섬'이 '사람들 사이에'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유보된다. 학습자는 '섬'이 "휴양지의 섬이 아니라 유배지의 섬일" 가능성을 떠올리는데, 이 같은 생각의 전환에는 '휴양지로서의 섬'이 '사람들 사이'라는 시의 표현을 통해 환기되는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힘의 관계를 담지 못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학습자는 "섬마다 각각 역사와 격변의 시기가 있었"다는 점을 떠올린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유배지"를 통해 활성화된, 섬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한 인식이 학습자로 하여금 마인드맵에서 "대륙정벌", "서바이벌", "총균쇠"와 연결된 의미들을 참조하게끔 추동한 것으로 추측된다(<섬-쓰시마섬-대륙정벌>, <섬-서바이벌-로빈슨크루소>, <섬-휴양지-뉴질랜드-마오리족-총균쇠>).

이어서 학습자는 '섬'을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신만의 역사가 담긴 방어막의 고체화된 기억"으로 형상화하고 의미화하는 데로 나아간다(㉡). 이 부분은 '섬'을 통해 환기되는 대상물 내부 비가시적 영역의 물질적인 조성을 변화시킨 사례로서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학습자에게 ‘섬’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냥하고 사냥당하는 섬”으로 잔혹한 “역사와 격변”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로 공격하고 침입하는 운동은, 공격하는 쪽이 공격당하는 쪽의 고유한 기억과 역사를 말살하는 것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그에 대항해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운동을 유발한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호한다는 것, “방어막”을 형성한다는 것은 부드러움보다는 단단함이라는 물질적 특성과 관계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섬’을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물질적 특성을, 그에 연계될 수 있는 인간적 가치—방어하기, 기억과 역사 지키기—와 결부해 ‘섬’을 “방어막”, “고체화된 기억”으로 의미화했을 것이다. 이는 안-밖의 지향성 도식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학습자가 생각하는 시의 ‘섬’은 처음부터 고체적이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냥하는 공격적인 행동이 없을 때는) 사람들 간의 기억과 역사가 자유롭게 교환되고 흐를 수 있는 유동적인 질료로 구성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위의 학습자에게서 ‘섬’은 섬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어떤 힘 혹은 섬 내부에서 서로를 사냥하는 공격이 있을 때, 그에 대항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서부터 단단해지는 어떤 것으로 형상화하고 의미화되고 있다. 이처럼 ‘섬’을 통해 환기되는 대상물이 그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대상에 인간적 가치를 결부하여 대상의 물질적 조성을 변화시키는 양상은 몽상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습자는 이렇게 각자의 “방어막”이자 “고체화된 기억”으로서의 ‘섬’을 침입해서는 안 되는, 다가가서는 안 되는 공간으로 의미화하지는 않는다. 학습자는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시 구절을 의식하며 이 대목을 “친밀한 관계지만 서로 나누지 못한 기억마저 공유하고자 하는 의리”로 의미화한다(㉣). 즉 고체화된 유배적인 기억으로서의 ‘섬’은, 그 기억의 공유가 다소 불편한 감정을 낳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공유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한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 이 학습자에게서 시의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진술은 욕구의 차원보다는 그 불편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의리와 당위적인 차원의 ‘가야 한다’라는 진술

로 의미화된다.

한편 이 학습자의 몽상이 심화되기 위해서는 ‘섬’과 ‘바다’의 질료적 차이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습자는 “섬을 섬으로 만든” 것은 “강과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의미는 감상문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학습자는 “강과 바다”가 “각자의 경험이 sum되어서 만들어진 지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섬’을 둘러싼 “바다” 역시 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물질화된 지리로서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섬’이 “서로 나누지 못”(㉣)하여 고체화된 기억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학습자에게 ‘바다’는 각자의 경험이 합쳐진 지리이지만 서로 나누고 연결될 수 있는 공통된 역사 차원의 기억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이 본디 ‘강과 바다’와 같이 흐르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의 ‘섬’ 역시 진흙 같은 것이 고체화한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기억의 질료가 고체화한 얼음 같은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는, ‘만약 섬이 타인에 의해 방문 가능하고, 기억의 공유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더 이상 유배지적 섬이라기보다는 ‘강과 바다’와 유사한 질료성으로 변화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인가?’ 와 같은 물음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문제 상황 및 원인

앞선 절들에서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대표적 양상을 통해 각 양상에서의 특성과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시적 몽상이 잘 활성화되지 않은 사례들을 살펴보며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개별 시 수용물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실제 교육 상황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적 몽상의 활성화에 실패한 학습자들은 합리주의적 사고로 시 텍스트를 실제적 경험으로 환원하여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시적 대상에 대한 심미적 거리가 지나치게 멀거나 가까워 몽상이 일어나지 않거나, 자신의 상상

과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텍스트와의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본 절에서는 이를 1) 합리주의적 태도로 인한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 실패, 2) 시적 대상에 대한 심미적 거리 조절 실패에 따른 몽상의 비활성화, 3) 상상 과정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와의 대화 실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시를 읽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보였는데, 세부적인 양상을 살피기 전에 텍스트 변인을 지적해두자면 다음과 같다. 오규원의 「호수와 나무—서시」와 달리 강은교의 「햄버거와 구름」, 정현종의 「섬」에서는 몽상의 과정이 텍스트의 의미 구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호수와 나무—서시」는 시의 마지막 행을 제외하고는 평이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시인의 몽상이 나타난 마지막 행 역시 호수의 반사 현상과 관계된 경험을 떠올린다면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한 것이다. 이와 달리 다른 두 시의 경우 텍스트 초반부터 생소한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미지의 등장 배경이 「호수와 나무—서시」와는 달리 쉽게 유추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 학습자 수준에서 시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현종의 「섬」을 읽은 학습자들에게서는 시적 몽상이 전반적으로 잘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나머지 두 시와 달리 「섬」에서는 학습자가 대상과 관련해 떠올리는 고정된 형태를 상상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도록 돕는 대상(‘구름’, ‘호수’의 표면)이 시 텍스트 자체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섬」에서는 이미지가 구성된 배경, 즉 시인의 몽상을 가능케 한 배경을 다른 두 시와 달리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시인의 몽상을 가능케하는 배경을 추측하기 어려울 경우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있어 독자의 몽상 활동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학습자들은 이에 과중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 합리주의적 태도로 인한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 실패

시적 몽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시 텍스트를 읽고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을 감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이 형태적 모호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에서 제시되는 대상이나 현상을 경험적인 대상 또는 현상으로 환원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아래의 학습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사물들을 객관적이고 분별적으로 파악하는 학습자의 합리주의적 태도[28]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 (전략) "잔물결 일으키는 고기를 낚아채 어망에 넣고"라는 문장에서 물이 튀기는 생각이 들었고, 낚시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 "호수가 다시 호수가 되도록 기다리는"이라는 다음 문장에서는 호수가 다른 지형으로 변했다고도 생각했고, 호수에 대해서는 물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내가 물가에 앉아 있다"라는 문장에서는 사내에 대해 낚시를 하여 물고기를 먹을 예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옆에서 높이로 서 있던 나무가"라는 문장에서는 나무가 사내 옆에 서 있다는 생각과, 높이라는 단어가 나무의 높이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있다"라는 문장에서는 나무가 호수에 빠졌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깊이라는 단어에 의해 호수의 깊이도 깊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B-4-호수-1]

위의 학습자는 시를 비유적으로 읽지 않고 형태적 상상을 동원하여 읽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의 언어 표현을 대부분 합리주의적인 태도로 사고하며 시 텍스트를 경험으로 환원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위의 학습자의 경우 '호수가 다시 호수가 되도록 기다리는'라는 시의 구절을 "호수가 다른 지형으로 변"한 것으로 추측한 점이 독특하다(㉠). 이는 다른 학습자들의 감상 내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이러한 해석에는 일견 호수의 감각적 성질을 과장하거나 변형하는 몽상이 작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마인드맵에서 살펴볼 수 있듯 학습자는 자신이 떠올린 해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호수가 다른 지형으로 변한 듯>), '호수의 지형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학

28) 여기서 말하는 '합리주의적 태도'란 주체가 대상과 분리되어 대상을 객관적이고 외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태도를 말한다.

습자가 말하는 '호수의 지형 변화'는 시행의 모호한 형상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적으로 정당화하는 시도에 가까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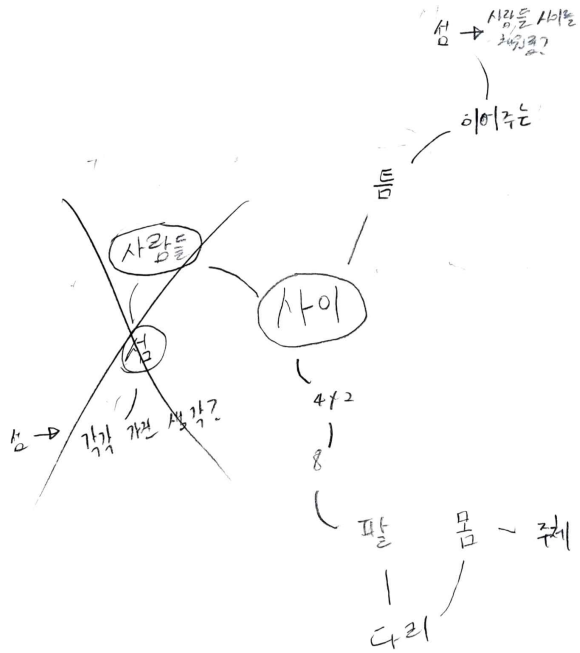
이 같은 해석 경향은 B-4 학습자 감상문의 다른 부분에서도 엿보인다. 학습자는 낚시를 하며 '호수가 다시 호수가 되도록' 기다리는 '사내'의 행위를 "물고기를 먹을 예정"이라고 의미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호수와 나무—서시」를 읽은 다른 학습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시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고기'를 바라보기보다는 물고기를 단순한 영양학적 섭취 대상으로 보는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학습자는 '나무가/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 구절을 나무가 호수에 빠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나무가 호수에 빠져 버렸다는 해석 역시 다른 학습자들의 감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이나, 시 텍스트에서 형태적인 모호함을 감지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시의 상황을 환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텍스트에서 '사내'의 지향이 어떤 활발하고 거대한 움직임보다는 고요함 속에서 나타나는 내밀한 변화의 포착에 있음을 고려할 때. '나무가 호수에 빠지'는 이미지는 텍스트의 맥락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합리주의적 태도에 의해 시적 대상이나 상황을 경험으로 환원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먼저 시적 대상을 인간에 의한 사용재나 도구로서 바라보는 태도로부터 거리를 두고 시적 대상을 구체적인 형태와 내면적인 깊이를 가진 대상으로서 바라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시의 언어 표현에 조금 더 몽상적인 태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텍스트 읽기 활동 전에 형태적인 모호함을 유발하는 여러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그 시각적인 풍경들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 역시 생각해볼 수 있다.

2) 시적 대상에 대한 심미적 거리 조절 실패에 따른 몽상의 비활성화

시 읽기의 과정에서 심미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감각과 의미화를 연결지어 주는 자신의 삶 기저에 있는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것, 그리

고 이로부터 나오는 거리감을 인식한다는 것을 말한다.[29] 시적 몽상의 활동은 학습자의 몽상을 통한 시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의 하나로서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을 객관적인 인식의 대상으로 대하거나, 시의 기호를 주관적 의미로만 덧씌우는 극단적인 사유 과정을 지양한다. 다음의 사례는 시적 대상에 대한 심미적 거리를 조절하는 데 실패하여 몽상이 활성화되지 않은 학습자 양상들이다. 먼저 시적 대상에 대한 심미적 거리가 먼 경우를 먼저 살피기로 한다.



[C-4-섬-M]

㉠"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 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틈이라고 생각을 해보니 각각 개별의 존재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떠올랐다. 그런데 섬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말을 듣자니 ㉡섬이 사람들 사이의 빈틈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로 묶어주는 그런 매개체인 것 같이 느껴졌다. [C-4-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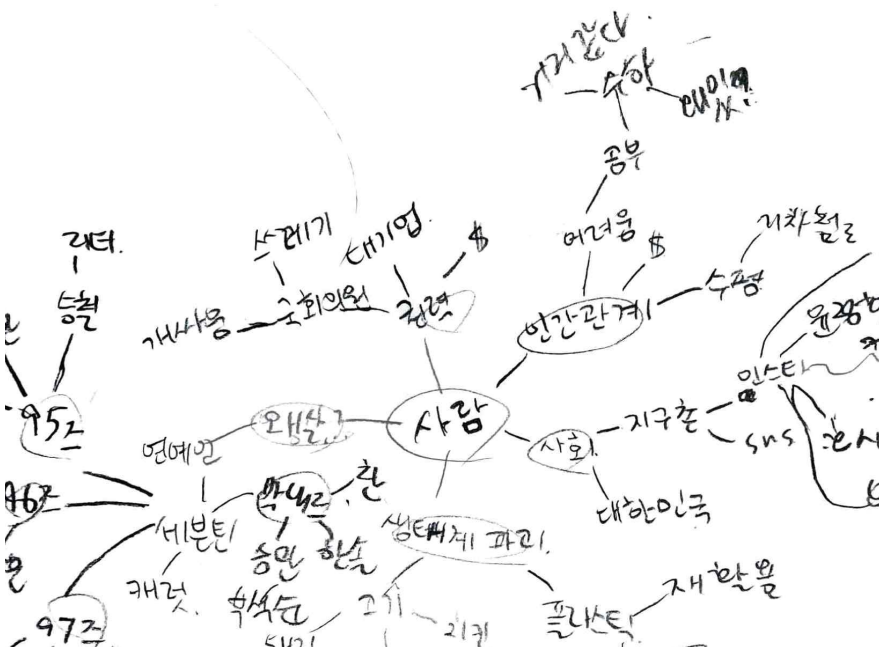
29) 김민재(2021),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19.

C-4 학습자는 먼저 시의 '섬'이 "사람들 사이의 빈틈을 채워주"고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로 묶어주는" 매개체라고 말하고 있다(㉡). '채워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학습자가 '섬'을 어떤 구체적인 영역을 점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시선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로 묶어주다'라는 표현 역시 포함과 배제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서, 학습자는 시의 '섬'을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구체적인 힘이 작용하는 영역을 가진 어떤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섬'을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촉각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안-밖 지향성 도식이 작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로 묶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섬을 형상화하지는 않으며,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시의 두 번째 행의 해석 역시 유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는 시 읽기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를 활성화하기 힘들었으며, 그 이유가 자신이 "상상력이 깊""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상상력이 깊은 사람에게는 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시어에 대해 여러 생각을 떠올리기 힘들었고, 그것만으로는 화자가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파악하기 힘들었다. [C-4-섬-3] (밑줄: 연구자)

하지만 위의 학습자의 경우 상상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화자가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에 몰두하여 시의 언어에 대해 자신의 관여 정도를 제한한 것이 몽상이 비활성화된 원인으로 보인다. 학습자는 시에서 와닿았던 시어인 '사이'와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느낌과 경험을 기술하기보다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이 학습자의 경우 '사이'라는 시어를 포함한 시 텍스트를 심미적인 경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객관적인 의미를 담은 무엇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시적 대상에 대한 심미적 거리가 먼 학습자의 경우에는 먼저 "독자 스스로의 경험에서 다뤄지지 않는 작품의 자질들은 하나의 정보일 뿐, 심미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30] 못한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와 같은 시어가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파고든 이유를 탐색하게끔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28-섬-M] 일부

㉠정현종의 「섬」 이라는 시에서 '사람'이라는 시어를 보고 연예인이 먼저 생각났다. 연예인하니 아이돌, 그 중에서도 세븐틴이 생각났다. (…) 이 중에 (…)이 컴백한다. (…) 2월하면 2월 20일 6시에 캐럿랜드 티켓팅이 있다. 캐럿랜드 티켓팅을 성공하면 3월에 있는 캐럿랜드에 뉴뉴럿봉을 사서 가야한다 작년에 재계약하고. 첫번째 캐랜인데 입덕하고 두번재 캐랜인 만큼 이번에는 꼭 가보고 싶고, 무한 아나스도 듣고 싶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고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건 캐럿랜드가 있고 캐럿랜드에 가고싶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 [C-28-섬-1]

앞선 학습자와는 반대로 위의 C-28 학습자는 시의 언어와 관련하여

30) 문선영(2019), 「관조를 통한 현대시 심미적 태도 교육 방향 연구」, 『문학교육학』 63, 한국문학교육학회, p.166.

정서적인 의미를 충분히 연상하였으나, 그에 대한 거리두기가 일어나지 않아 시의 언어를 주관적 의미로 덧씌운 경우이다. 학습자는 감상문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고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건 캐럿랜드가 있고 캐럿랜드에 가고싶다”는 의미로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서 ‘캐럿랜드’는 학습자가 시어 ‘사람’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연상한 의미인,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팬미팅을 뜻한다. 학습자는 이 ‘캐럿랜드’에 가고 싶다는 욕망을 감상문 속에서 반복하여 피력하며 ‘섬에 가고 싶다’라는 시구의 해석으로까지 이어간다. 위의 학습자의 경우, 시의 언어를 통해 활성화되는 다양한 정서적 의미와 욕구들을 활성화한 것은 시 텍스트 해석과 몽상의 기반으로서 유의미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반을 ‘섬’이라는 기호를 통해 환기되는 감각적 특성과 연결짓지 않은 점, 그리하여 ‘섬’과 ‘캐럿랜드’ 간의 심층적인 연결성이 약하다는 점에서[31] 몽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습자는 마인드맵에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라는 시행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원들을 풍부하게 형성하고 있는데,[32] 만약 감상문 쓰기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였다면 학습자는 ‘섬’에 대한 심미적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여 몽상을 진행해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3) 몽상 내용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와의 대화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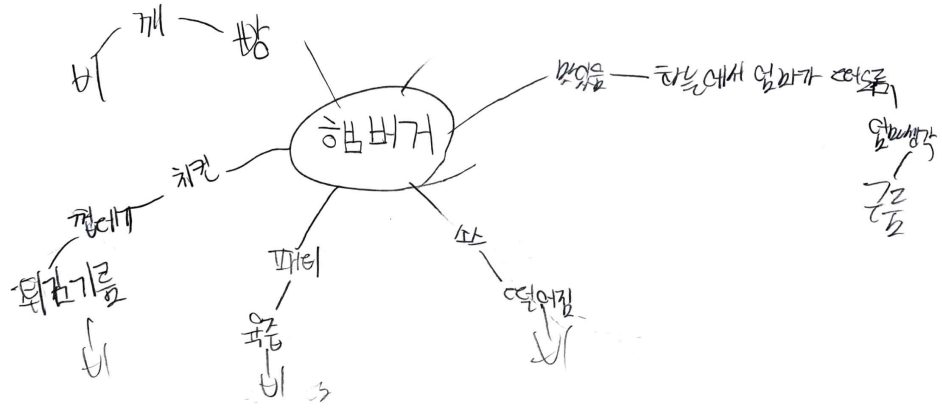
어떤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에 주관적인 가치를 투사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텍스트의 다른 언어 표현에 비춰 몽상의 내

---

31) ‘섬(island)’과 ‘캐럿랜드(carat land)’ 사이에 성립하는 음성적 동일성이 “캐럿랜드에 가고싶다”라는 학습자의 진술과 ‘섬에 가고 싶다’라는 시구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32) 위의 학습자의 마인드맵에서는 시어 ‘사람’과 관련하여 ‘왜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의미가 ‘연예인’, ‘세븐틴’보다 앞서 떠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사람-왜살..?-연예인-세븐틴>), 학습자에게 사람은 대부분 부정적인 행동 양태를 보여주는 대상들로서(<권력-국회의원-개싸움>, <사람-생태계 파괴> 등) 실존적인 물음을 낳게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학습자에게 ‘캐럿랜드’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원동력을 주는 곳, 환멸감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공격적 환경 속에서의 안전한 은신처와 같은 곳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용을 형상화 및 의미화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다른 언어 표현을 자신의 몽상을 심화할 수 있는 자원이라기보다는 해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부담을 느끼고, 이에 따라 몽상 내용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확신을 잃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래의 학습자는 앞서 「햄버거와 구름」을 읽고 '구름' 속에 '여자'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을 가능성을 떠올린 A-16 학습자와 유사한 상상 과정을 보여주나, 이를 텍스트와의 대화 속에서 의미화하지는 못한 사례이다.



[A-22-햄버거-M]

햄버거를 생각하니 빵이 생각이 났고 빵을 보니까 깨가 생각났다. 또 소스가 생각났고 그래서 소스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패티를 생각하니 뽀로로의 패티가 생각났고 패티의 얼굴이 생각났다. 그리고 치킨이 생각났다. 치킨을 생각하니까 치킨의 껍데기가 생각났다. 그리고 껍데기의 기름이 생각났고 기름이 빗물같다 생각했다. [A-22-햄버거-1]

위의 학습자는 마인드맵에서 <햄버거-맛있음-하늘에서 엄마가 떠오름-엄마생각-구름>으로 이어지는 사고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의 첫 행인 '그 여자는 정오에 구름을 보며 햄버거를 먹었다.'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는 '여자'가 먹는 햄버거가 맛있어서 그 맛에 의해 '여자'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그 어머니가 생각나서 ‘여자’가 ‘구름을 보’고 있다는 가설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습자는 ‘여자’의 어머니가 하늘에 있다고 할 때, 하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구름’이 여자의 어머니와 관련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살폈던 A-16 학습자는 구름 속에 ‘여자’의 어머니가 있다는 내향적 몽상을 시 텍스트의 다른 언어 표현으로까지 확장하여, ‘빗방울’을 구름 속에 있는 어머니의 눈물로 의미화한 바 있다(<하늘에 계신 엄마-구름속에 어머니-어머니 눈물>). 시의 다른 언어 표현을 자신의 몽상을 심화하는 자원으로 적극 운용한 A-16 학습자와 달리, A-22 학습자는 마인드맵에서 연상했던 의미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시 해석의 중요 자원이 될 수 있는 ‘구름’과 관련한 사고 과정을 감상에서 아예 삭제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는 시에서 ‘햄버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빵’, ‘패티’, ‘소스’ 등을 모두 <비>와 관련짓기도 했지만, 시의 ‘빗방울’과 ‘구름’ 간의 기호 관계를 자신의 몽상과의 관련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몽상 과정을 시 해석에 활용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습자는 ‘구름’과 ‘여자’의 어머니가 관련 있다는 자신의 상상 과정이 지나친 상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둘째, 시 텍스트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상 과정을 시 텍스트에 투과시키는 데 인지적인 부담을 느껴 흥미를 잃었을 수 있다.[33] 어떤 경우에든 학습자는 자신의 몽상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해석 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적 몽상의 과정에서 자신의 몽상 내용이 시 텍스트에 백 퍼센트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어떤 몽상이라도 시 해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않는다면 위의 학습자와 같이 텍스트를 통해 활성화된 상상 과정 전반을 폐기해버릴 수 있다. 이

33) “시… 어렵다…” [A-4-햄버거-3]와 같은 학습자 감상들로 미루어볼 때, 학습자들은 「햄버거와 구름」 시 텍스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난해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기한 시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A-6-햄버거-3]라는 감상 역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텍스트의 난해함 자체가 텍스트와의 대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를 고려하여 실제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시 텍스트의 불확정적인 의미 공백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학습자의 상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 텍스트의 난해함으로 인해 학습자가 몽상의 의미화 과정에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구조 및 양상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적 설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1.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목표

1) 상상력의 신장과 세련화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은 학습자 상상력의 신장과 세련화를 목표로 한다. 사고력의 한 범주로서 상상력은 창조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1)]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형상화된 이미지의 형성 과정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형상화하고 이에 대해 가치 부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형태적인 모호함의 느낌을 감지함으로써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그 대상들을 질적으로 변형하도록 추동된다. 학습자는 대상들을 뚜렷한 윤곽을 가진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려는 태도에서부터 벗어나 형태적 상상에 기반한 자유로운 연상을 하기도 하고, 대상의 내부 내지는 비가시적 영역을 인식 불가능한 것으로 남겨놓는 데서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대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상상적인 변형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 자체 또는 대상들 간의 관계가 그 대상(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식과 어긋나는 경우에도 시의 언어를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텍스트의 맥락에 비춰 자신의 상상적인 변형 활동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

1) 김창원(2011),『문학교육론—제도화와 탈제도화—』, 한국문화사, p.319.

형태적 상상의 경우에도 분명히 학습자 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몽상하는 능력 즉 서로 다른 대상들을 질적으로 분리하는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해체하고, 신체적 한계로 인해 파악이 불가능한 대상의 내부 또는 비가시적인 영역까지도 응시하고 만지며 감각하려는 상상적 활동은 대상을 양적·질적으로 분별하려는 기계적인 시각에 반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체적 체험 능력의 신장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체험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상상이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인 인간이 가치 있는 사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때, 문학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주체성 즉 “자신의 안목으로 판단하는 가치 척도와 태도를 지니고 그에 근거하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성향”[2]은 상상의 경로를 주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길러진다고 할 수 있다.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보이지 않는 영역인 ‘내적 지평’[3]을 상상적 변형 과정을 통해 새롭게 형상화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은 기존의 시 교육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면이 있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학습자는 이러한 몽상 활동의 단위가 될 대상과 그 방향성을 스스로 선정해 나감으로써 시적 체험의 주체로 서게 된다. 학습자는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내부 또는 비가시적 측면을 투시적으로 보려 하고, 대상의 변화를 새롭게 정의하려 하면서 대상에 인간적인 가치와 역동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 같은 몽상의 경험은 학습자의 감각과 정서가 만나는 체험[4]의 자리가 된다. 이처럼 학습자는 몽상 활동을

---

2) 김대행 외(2000), 앞의 책, pp.49-51.

3) 메를로퐁티는 후설(E. Husserl)의 용어를 빌려 사물들의 표층적이고 가시적 측면을 사물들의 ‘외적 지평’으로, 볼 수 없음으로 인한 어둠으로 가득 찬 측면을 사물들의 ‘내적 지평’으로 부른다. 이는 꼭 공간적인 비가시성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며, 시간적인 비가시성 역시 포함될 수 있다. M. Merleau-Ponty(1964), 남수인·최의영 역(2004),『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동문선, p.212.

4) 시 교육에서 ‘체험’은 크게 신체적 존재로서 작품에 참여하는 독자의 감각과 정서라는 두 측면에 초점을 둔다. 시 교육에서 체험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로는 박주형

통해 상상의 경로를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시 텍스트의 언어 표현에 비춰 이를 조정해가는 경험 속에서 주체적인 체험 능력을 신장하게 된다.

3) 창의적 사고의 발달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은 창의적 사고의 발달을 목표로 한다. 창의성 또는 창의력(creativity)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창의성이 당면한 구체적인 제약 속에서 문제를 새롭고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5] 이는 창의성이 개인만의 것이라거나 무한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구체적인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다는 관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특히 초점을 두는 국어적 창의성은 “추론과 상상을 통해 텍스트가 직접 표상하는 정보 이상의 정보를 구성해 내는” 언어적 이해와 표현의 문제와 관련된다.[6] 이때 의미의 공백이 큰 시 텍스트의 경우, 학습자의 창의적인 이해와 표현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유발하는 창의적 텍스트[7]라고 할 수 있다. “시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무수한 지

(2021)과 김혜진(2023)을 들 수 있다. 박주형(2021)이 ‘감각적 체험’의 개념을 통해 시적 체험에 있어서 독자의 상상적인 감각 작용에 좀더 주목했다면, 김혜진(2023)은 학습자의 신체가 텍스트의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는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움직임인 ‘정동’ 개념을 통해 시적 체험에 있어서 독자의 정서적 면을 좀더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박주형(2021), 앞의 글; 김혜진(2023),「정동 중심의 시 창작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대표적으로 스턴버그와 루바트(R. J. Sternberg & T. I. Lubart)는 창의성이 ‘새로움’과 ‘적절함’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여기서 ‘새로움’은 독창적이고 예상치 못한 것을, ‘적절함’은 특정한 과제 제약에 유용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과제의 제약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는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창의성이라는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Creativity is the ability to produce work that is both novel (i.e. original, unexpected) and appropriate (i.e. useful, adaptive concerning task constraints)" R. J. Sternberg & T. I. Lubart(1999), The concept of creativity : prospects and paradigms. In R. J. Ster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3.

6) 김창원(2004),「창의성 중심의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국어교육학연구』18, 국어교육학회, pp.103-109.

7) 국어교육에서는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창의성인 ‘언어 창의성’이 ‘창의적 문제’와 ‘창의적 텍스트’, 그리고 독자에 의한 이해와 표현 행위인 ‘창의적 소통’ 세 요소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때 ‘창의적 문제’는 학습자의 창의적 발상에 의해 발견되는 것으로, 이는 “학습자가 겪거나 학습자에게 주어진 ‘경험’이 있을 때” 발견

연과 번복을 거쳐서 일어나는" 행위로서 자기 주도성, 의미 확정의 지연, 반성적 사고 등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사고의 내면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이다.[8)]

특히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에서의 경우, 시인의 상상적 변형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상의 경로를 설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학습자는 시적 대상에 대한 깊은 참여 및 대상의 일상적인 특성에 대한 상상적인 변형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 확정을 지연시키며, 창의적인 시 텍스트와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몽상 활동을 끊임없이 반성 및 심화해 나간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경험은 이와 같은 누적적인 창의적 소통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2.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시 읽기에서 시적 몽상의 구조와,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양상에서 드러난 한계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1) 친모호성을 통한 시적 대상의 형태 형성 지연

시 읽기에서 학습자의 시적 몽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호한 시적 표현과 관련해 시적 대상의 형태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으려는 미적 태도[9)]가 필요하다. 즉 학습자는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익숙한 형태적, 물질적, 운동적인 특성을 시 텍스트의 모호한 표현에 곧바

될 수 있다. 제민경·구본관(2013),「언어 창의성 발현을 위한 교육적 체계의 구성 방향」,『국어교육』143, 한국어교육학회, pp.317-326.

8) 우한용 외(2013),『국어과 창의·인성 교육』, 사회평론, pp.54-56.

9) 예술 감상에서 '미적'이라는 용어는 대상을 지각하는 특정한 방식을 말하는데, 미적 태도는 이러한 미적 지각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자 그 방향을 조절하는 방식이 된다. 문선영(2019), 앞의 글, pp.169-175.

로 적용하여 형태를 구체화하기보다는, 자신이 떠올린 대상의 특질들이 시적 몽상의 과정 속에서 현실의 그것과는 다르게 변화해나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형태적 모호함에서 오는 불편함을 견디는 태도가 필요하다. 최지현의 경우 문학 텍스트 읽기 상황에서 모호하거나 양가성을 지닌 의미와 표현을 참아내는 심리적 태도를 '친모호성'으로 부르는데,[10] 이 용어를 빌려 '친모호성을 통한 시적 대상의 형태 형성 지연'을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친모호성은 우선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들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물리적 특성—크기, 외부 윤곽과 같은 형태적이고 가시적인 특징을 비롯하여 물질적 특성이나 운동적 특성 등—또는 대상들 간의 시·공간적인 거리가 변화할 수 있으며, 서로 관련 없는 대상들 간에 연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명제적 지식으로만 제시되기보다는 학습자의 자발적 수행 속에서 체득되어야 한다.

대상의 형태 형성이 지연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자가 시어를 통해 떠오르는 이미지들과 떠오르는 느낌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연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이를 위해 학습자에게 마인드맵 도구를 제공하였는데, 분석 결과 마인드맵 도구를 모호한 시적 표현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시적 대상의 형태 형성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학습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도 많았다. 학습자들은 시어를 통해 다양한 의미 또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이를 떠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 욕구나 문제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시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 욕구나 문제를 떠올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거리두기가 잘 일어나지 않아 몽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 외에 시 텍스트와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의식의 흐름을 통해 시어와 관련해 끝말잇기식의 연상을 한 경우도 많았다.

이상의 지점들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의 발산적인 연상 과정이 시적

10) 최지현(2008), 「언어문학영재성에 대한 정량적 판별 준거」, 『문학교육학』 27, 한국문학교육학회, p.199.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와 형태 형성 지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상 활동이 시적 몽상의 과정에서 갖는 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 표현을 통해 어떤 이미지나 의미를 떠올린다는 것이 감각, 인지, 정의가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어떤 특정한 표현 또는 대상에 대해 강렬함을 느꼈다는 것은 “그 이면에 무언가 추상화된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감각 기저에 있는 가치로서의 욕구를 표면화하는 지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11] 즉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학습자의 연상은 텍스트로부터 느껴지는 ‘정서적 분위기’[12]를 충분히 표현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의 언어를 통해 형태적, 물질적, 운동적 유사성을 갖는 다른 대상을 떠올리거나, 시 텍스트 속에서 그러한 유사성을 갖는 대상들을 연결짓는 시도에는 감각과 인지가 동원된다. 한편,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이와 같이 대상과 다른 대상을 연상적으로 연결짓는 시도는 대상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인지나 의식의 흐름에 의해 무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습자는 끝말잇기식 연상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떠올린 이미지와 의미들에 대해 메타인지를 활성화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심층적인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은유의 활용을 통한 몽상의 방향 설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는 시적 대상에 대한 깊은 참여가

---

11) 김민재(2021), 앞의 글, p.49.

12) 김민재는 시 텍스트의 자질이 정서적 분위기(emotional atmosphere)의 환기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시 텍스트는 독자에게 실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명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서 자질이 상상을 거쳐 분산적으로 정신적 과정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김민재(2020b), 「경험적 독자 연구로서의 문학교육학에 인지시학 도입의 쟁점과 가능성 – ‘문학적 경험’에 대한 이론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pp.121-122.

이루어지지 않고 피상적인 연상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또한 대상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특정한 물질적·운동적 특성과 연계짓지 못한 경우가 존재했으며, 몽상 활동이 대상 내부의 영역을 현실에 존재함 직한 공간으로 구성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몽상의 방향성과 깊이는 학습자의 대상에 대한 가치 부여의 양상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해지긴 하나, 이와 관련해 교육적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몽상 활동이 학습자에게 지속성을 갖는 상상 경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시 텍스트와 같은 보다 큰 언어 단위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몽상의 방향 설정과 관련한 보편적인 교육의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시 교육에서 비유와 관련된 지식은 상상력과 관련해 핵심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 왔다. 상상적 변형은 우선 어떤 대상의 특성을 다른 대상의 특성과 연계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이는 특정한 은유 도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에서도 비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비유는 시의 수사법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고활동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13] 학습자의 이미지 연상 및 작품 감상에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에서 비유적 표현은 몽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바슐라르는 몽상가가 어떤 사물 또는 현상에 대해 아주 관습화되고 부동화된 이미지, 혹은 빈약한 감각상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가치를 기술하는 경우에도 그 빈약한 감각상의 의미를 과장하고 정교화하는 방식을 통해 몽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14] 관련하여 그는 ‘은유의 현실화’나 ‘실재적인 은유’[15]와 같은 표현들을 자주 사용한다. 여기서 ‘현실화’나 ‘실재’는 ‘사실적’의 의미가 아니라, 부동적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13) 노철(2006), 「시 교육에서 이미지·비유의 교육과정과 교재의 설계 방향」,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p.298.

14) “모든 객관적 인식 밖에서 모든 의당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권리를 되찾은 상상력은 가장 부동적이고 가장 무기력한 이미지들에 움직임[운동]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것은 하늘의 질료를 흐르게 만든다. 데카르트가 “하늘은 액성이다”라면서 박식한 우주발생론을 내세웠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도 잊힌 어떤 몽상의 합리화를 보게 되는 것이다.” G. Bachelard(1943), 앞의 책, p.353.

15) G. Bacehlard(1948), 앞의 책, p.101; G. Bachelard(1943), 앞의 책, p.246 등.

언어 표현을 움직임과 생기를 가진 다른 대상의 운동성과 연계하여 소생시킨다는 것, 그리고 몽상가의 심리적 현실(진실)에의 충실성을 말한다.

이를 고려할 때, 학습자는 먼저 시의 언어를 통해 떠오르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과 관련해 아주 관습화되었거나 빈약한 감각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느낌을 비유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몽상 활동의 출발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구름'과 관련해 '흐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관습화된 표현이지만 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는 구름을 액체에 비유하는 은유로서 경우에 따라 하늘 전체를 흐르는 물과 같이 역동화하는 몽상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A는 B이다'라는 단순한 서술 외에도 학습자가 표현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은유에 기반한 것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은유에 대한 교육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은유의 확장이 시 텍스트 속 대상들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관점[16]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은유의 확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역 간의 전이에 있어서 대상의 고정된 형태적인 특성보다는 물질적 조성이나 운동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시 텍스트 전체의 창조적인 형상화 및 의미화까지를 가져오는 몽상 활동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즉 몽상 활동에서의 은유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어떤 대상의 운동적 특성을 변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활용될 때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름'과 관련해 '흐른다'라고 기술하는 반응 역시 구름이라는 대상과 관련한 몽상가의 심층적인 심리적 가치 부여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반응보다는 구름에 '오르고 싶다'라는 표현이 몽상가의 가치 부여 작용을 잘 드러내준다. 이와 같은 '오르고 싶다'라는 표현 역시 구름을 사다리와 같은 것으로 보는 은유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데,[17]

---

16) 박주형은 '은유 확장' 현상을 "특정 은유가 영역 간의 전이를 바탕으로 다른 표현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박주형(2022),「은유 확장 중심의 시 읽기 교육 연구 – 정지용의 「유리창 2」 읽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178, 국어교육학회, p.196.

17) 이 예시는 다음의 대목에서 나온다. "시인에 의해 실현된 모든 이미지의 시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운동을 부가해야 한다. 이리하여 응집된 구름은 [누가] 그것을 기어오르고자 하는 경우에만, 더 높이 올라가기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소망하는 경우에만 사다리가 될 수 있다." G. Bachelard(1943), 앞의 책, p.88.

이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을 기술함에 있어서 대상 자체의 측면과 몽상가의 심리 층위, 즉 대상을 통해 욕망하게 되는 행동의 방향성이나 운동성 등을 기술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은유적 표현에 대한 지식의 이해가 몽상 활동의 방향성 설정과 연계하여 수행적으로 이루어질 때 은유는 “자신의 삶의 체험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활용”[18] 가능한 수단이자, 창조적 시 해석의 개연적 논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과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는 몽상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텍스트와의 대화를 위한 동기화

시적 몽상 활동의 대상이 되는 시 텍스트에는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이루어진 대상 관계의 구체적인 변형 과정이 텍스트 문면에 면밀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빈자리는 독자로 하여금 몽상 활동을 통해 시 텍스트의 형상화와 의미화라는 과업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도록 추동하지만 학습자에게 몽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거나, 텍스트와 유의미한 대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연상의 연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실제 학습자들의 시 읽기에서 이러한 양상이 많이 나타난 바, 텍스트와의 대화를 위한 동기화를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해볼 수 있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시 텍스트와의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학습자는 먼저, 시 텍스트의 언어 표현들을 통해 활성화하는 일련의 가치들이 시와 관련 없고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시 텍스트의 창조적 의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햄버거와 구름」에서 시인이 물신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햄버거의 크기를 극적으로 과장하는 몽상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어떤 학습자의 경우 ‘햄버거’는 개인적 층위에서의 각별한 그리움의 정서적 느낌과 가치를 활성화하는 기호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18) 정재찬 외(2017), 『현대시 교육론』, 역락, p.118.

비록 창조적 오독에 그친다 할지라도, 한번 창조적 오독을 해봄으로써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몽상의 활동이 시 텍스트라는 타자와 관련 없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되지는 않는 것임을 알고, 몽상의 과정을 성찰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때, 그 변화는 시 텍스트 전반의 형상화와 의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학습자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는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내부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 시 텍스트를 통해 암시되는 시적 대상의 물질적이고 운동적인 특성에 관한 정보들을 만족시킨다는 조건하에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습자가 몽상을 텍스트와의 대화 속에서 의미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시적 언어는 일상어와 "동일한 언어 운용의 원리인 문법을 따르"면서도 문법의 논리를 "의식적으로 넘어서려"[19] 한다는 것이다. 즉 일상어와 시어는 서로서로 역동적 영향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시 교육에서는 시 읽기에서 학습자들의 상상과 의미화가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의 언어 구조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20] 학습자들의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상상의 양상을 다수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시 교육에서 이루어져 온 것과 같이 어조를 비롯한 기본적인 문법 지식, 시어와 시어, 행과 행, 연과 연, 운율 등 시적 언어와 구조의 특성을 교육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문법 기능이나 시 텍스트의 구조에 의한 상상의 제약이라는 측면 외에도, 학습자의 몽상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기반으로서 시적 언어의 특성에 대한 교육 내용 역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문법교육의 조경순(2020)[21]은 중의적 표현이 문학 작품의 풍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19) 구본관(2015), 「문법과 문학 영역의 통합」, 『국어교육』 148, 한국어교육학회, p.86.
20) 일례로 최병해는 한국어 문법 요소를 시적 화자의 의도, 상황, 심리, 어조, 청자와의 관계라는 시 교육적 기능에 대응시키며 문법 요소를 활용한 시 감상이 감상의 정밀성과 시 해석 근거의 명확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병해(2013), 「문법 지식을 활용한 시 감상 방법 연구」, 『국어교육연구』 53, 국어교육학회.

고 말하고 있다. 앞선 시적 몽상의 구조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은교의 「햄버거와 구름」의 (햄버거에서 구름이) '떨어졌다'라는 시행은 어떤 것으로부터 떼어짐(detach)이라는 의미로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짐(fall)의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이렇게 시 텍스트에 존재하는 중의성은 시적 대상의 질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방향의 상상을 추동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겉/ 속', 보조사 '-은/는'처럼 시 텍스트에 대조의 의미[22]를 환기시키는 어휘 요소 또는 문법 요소가 있을 때 몽상의 방향 설정 및 심화 근거를 찾는 데 유의미하다는 교육 내용 역시 제시될 수 있다.

> 독자의 변증법적 상상력을 너무나 신뢰하는 한 시인은 때로 이미지의 첫 부분만을 제시한다. 그래서 트리스탕 차라는 '물로 자신의 백색을 헹구는 백조'를 묘사하고 나서, 곧이어 단지 "겉은 희다"라고 첨언한다(『어림잡아 본 인간 L' Homme approximatif』 제 6권). 이 짧은 문장을 단순 긍정문으로 읽는 것, 그래서 백조가 희다는 것을 배우는 것, 그건 바로 꿈 없는 독서다. 반대로, 어떤 부정화 독서, 시인의 모든 자유로운 모색들을 향유하기에 충분히 자유로운 독서는, 우리를 상상적 심층차원으로 이끈다. '겉은 희다'라면, 그건 바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백색을 밖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작용한 부정화는 어둠을 환기한다.
>
> (중략)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의 이와 같은 도치들이 구식 몽상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금술사들과 마찬가지로 시인들 또한 이 심층차원적인 도치들에 매료되었으며, 이들 '뒤집기들'이 정선되어 이루어질 때, 그것들은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문학적 이미지들을 생산한다. 그리하여 프랑시스 잠Francis Jammes은 피레네 산중 여울의 바위들에 의해 찢어진 물살들 앞에서 '물의 이면(裏面)을 본다고 믿는다 (밑줄: 연구자)[23]

---

21) 해당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중의성에 따라 시 작품의 해석이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세 유형의 중의성이란 동음어나 다의어에 의한 어휘적 중의성(lexical ambiguity), 문장 내 문장성분의 구조 또는 통사적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 중의성(structural ambiguity), 어떤 단어가 문장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권 중의성(scope ambiguity)을 말한다. 조경순(2020), 「의미와 해석의 다양성을 통합하는 문법 교육에 대한 고찰」, 『어문론집』 83, 중앙어문학회.

22) 이와 관련해서는 성창익(2021), 「대조 의미 기능에서의 보조사 '은/는'의 내포절 주어 제약에 대하여」, 『어문론집』 86, 중앙어문학회를 참조.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의 내적 영역에 대한 몽상은 생소한 상상 활동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몽상 활동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학습자들이 많을 것인데, 위의 인용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대조 의미 요소를 내포한 시 텍스트를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여 대화를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우유가 희다'라는 표현만이 주어질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유가'와 '희다' 사이에 '겉은' 또는 '겉이'라는 어휘가 생략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속이 검다고 몽상하도록 교사는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미 기능들이 무조건적으로 상상의 풍부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의한 제약이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덧붙일 필요가 있다.

3.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방법

1) 대상의 형태 형성 지연을 위한 시각 자료의 제공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시적 대상으로부터 형태적인 모호함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의 언어를 통해 떠오르는 대상의 형태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으려는 미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일상적인 사물의 형태(색채·윤곽·크기 등), 구성 물질, 운동적 특성, 그리고 대상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비계로 제공하여, 그 시각 자료를 통해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들을 표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환영적 모티프'[24], 즉 현

23) G. Bachelard(1948), 앞의 책, p.34.

24) 환영적인 모티프란 반사하는 표면을 지닌 물이나 거울과 같이 현실 세계와 그 현실 세계의 법칙이 왜곡된 다른 세계가 한 장소 안에 동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예시해 주는 장치들을 말한다. 잭슨은 환상문학을 대상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전유하려는 시각(vision)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장르로 설명하면서 거울이나 유리잔, 반사, 초상화, 혹은 문, 구멍과 같은 장치들이 시각의 변형 내지는 해체의 작업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환영적인 모티프는 그것을 응시하거나 접촉하는 사람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 현실과는 다른 변형된 세계가 있다는 느낌, 세계가 이중화될 수 있다는

실 세계와 그로부터 변형된 세계의 동시적 존재를 예시해주는 시각 자료를 비계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호수 표면에 의한 반사와 잔물결로 인해 나무의 형상이 약간 해체되어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이미지[25]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환영적 모티프(잔잔한 호수)

한편 시 텍스트에는 현실 세계와 그 현실이 변형된 세계가 동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곧바로 변형된 세계만 제시되기도 하고, 가시적으로 큰 유사성이 없어 보이는 시적 대상 간에 연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는 호수의 반사 현상과 같이 큰 어려움 없이 변형된 세계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각 자료를 먼저 제시하되, 그 이후에는 꼭 반사 현상이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학습자의 몽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느낌을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환영적인 모티프와 그 효과를 인지함으로써, 학습자는 시 텍스트 속에서도 대상 및 대상들에 대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R. Jackson(1981), 앞의 책, p.63.

25) 사진의 출처는 「왜 호수에 비친 모습이 거울처럼 보일까?」, 『위즈덤시드 네이버블로그』, 2020년 8월 18일 작성, 2023년 8월 2일 접속,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131487&memberNo=50314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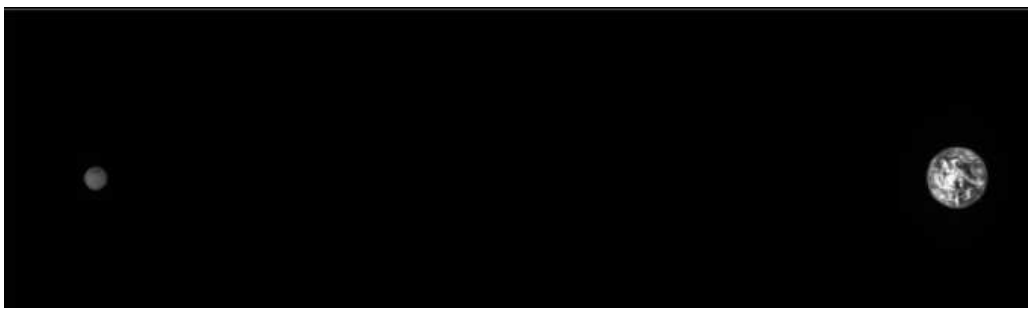
[그림 2] 질료적 변환을 유도하는
이미지(구름과 눈)

위의 자료[26]는 색의 유사성에 의해 눈이 구름 같기도 하고, 구름이 눈 같기도 해 모호한 느낌을 준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는, 시 텍스트 읽기에 앞서 위와 같은 모호한 느낌을 주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느낌을 다양하게 발표해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학습자는 단순히 “구름과 눈의 색이 유사하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색의 유사성에 의해 구름의 운동성을 눈의 운동성으로 전이시켜 “이 사진 속의 눈은 가만히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구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떠다닐 것 같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눈을 구름의 질료성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교사는 “눈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마도 봄을 만나고 싶어서일 것이다”라며, 전이된 운동적 특성에 정신심리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몽상에 대한 의미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또 어떤 학습자는 ‘하늘의 구름과 지상에 쌓인 눈’이라는 관념에 내재된 상하의 구도를 정반대로 반전하여, “비행기가 눈 속을 뚫고 날아갔다”와 같은 몽상적인 반응을

26) 2023년 1월 일본 홋카이도 비에이 지역의 눈 쌓인 풍경을 직접 촬영한 것이다. 아래쪽의 선은 발자국과 차가 지나간 자국이다.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이와 같은 반응을 교실 내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공유하도록 유도할 때, 학습자들의 시적 몽상이 보다 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상의 원근[27]과 관련한 시각 자료 역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같은 풍경을 같은 시점에서 광곽렌즈 및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을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사물의 크기에 대한 일상적인 관념을 흔드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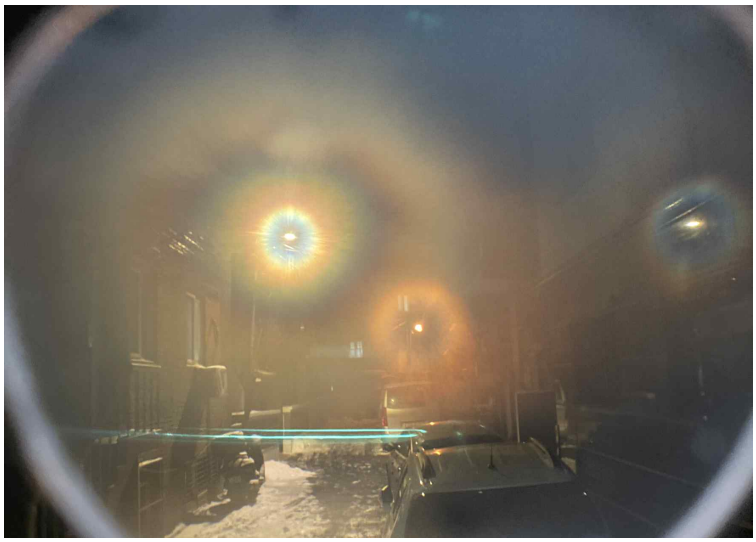
[그림 3] 원근감과 크기의 모호함을 유발하는 이미지

그러나 위와 같은 시각 자료[28]의 경우 여전히 보는 주체와 대상 간의 분리가 다소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 간의 모호함을 유발하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도 좋을 것이다.

---

27) 원근법(Perspektive)은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자의 위치를 한 점에 고정시키고 그 시점을 중심으로 사물의 멂과 가까움을 묘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파노프스키(E. Panofsky)에 따르면 이러한 원근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화면의 공간묘사가 그 시대나 지역의 고유한 공간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는 원근법이 중앙투시원근법(Zentralperspektive)과 같이 “이성과 객관주의의 방향으로 이용되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우연성과 주관주의의 방향으로 이용되고 해석”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이든 원근법은 시각적 현상을 나름대로 질서지운다고 말한다. 이는 즉 대상의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는 방식자체에 주관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E. Panofsky(1927), 심철민 역(2014), 『상징형식으로서의 원근법』, 도서출판b, pp.12-27.

28) 지구로부터 약 124만km 거리에서 촬영한 지구와 달의 사진이다. 사진의 출처는 「[윤병훈칼럼] 우리미래 어쩜이래」, 『머니투데이』, 2022년 9월 27일 수정, 2023년 8월 2일 접속,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714375881040.



[그림 4]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 간 구분의
모호함을 유발하는 이미지

위의 사진[29]은 안경에 김이 서린 풍경이다. 입김이 낀 안경으로 풍경들을 바라볼 때, 빛나는 대상 주위로 빛 번짐이 생긴다. 그 둥그런 광채는 안경을 쓴 사람의 입김에 따라 천천히 잦아들고 다시 천천히 커진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나'의 입김에 의해 빛나고 잦아들며 변화한다는 점에서, 어떤 학습자는 '세계는 나의 입김이다'라고 풍경에 대해 전능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다. 한편 어떤 학습자는, 이러한 변화하는 풍경에 대해 사람이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오히려 저 세계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또 가로등이 나의 숨결에 의해서만 빛번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로등 그 각각에 내재된 생명이 자신의 불빛 주위로 입김을 뿜어내는 것이라고 몽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 간의 모호함이 발생하는 것이다.[30]

대상의 형태를 성급히 확정지으려는 학습자들의 태도는 이러한 시각자료들을 접하고, 그 반응을 공유함으로써 유보될 수 있을 것이다.

---

29) 직접 촬영하였다.

30) 바슐라르는 이렇게 빛이 나는 대상 또는 무언가를 반사하는 대상과 관련해 생명력을 부여하는 현상을 '봄의 나르시시즘'으로 칭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G. Bachelard(1942), 앞의 책 참조.

2) 사물 내부의 상상적 지각을 위한 '되기'와 현미경 체험

시를 읽고 몽상을 한다는 것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어떤 대상을 고정된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이고 운동적인 특성의 변화 가능성을 내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과의 거리를 좁혀 그 대상의 보이지 않는 내밀한 영역을 인간적으로 투시하고자 하는 적극적 시각이 요구된다. 이 항에서는 사물 내부의 상상적 지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신체적인 한계로 인하여 어떤 열리지 않는 경계를 가진 대상 내부, 혹은 아주 작은 틈새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상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이는 '되기'를 통해 가능하다. 되기(devenir)는 들뢰즈의 문학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들뢰즈는 신체를 유기체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도(longitude)와 위도(latitude)의 변화를 통해 차이를 실현하는 어떠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경도'란 신체의 외적 운동으로서 운동/정지의 관계들 전체와 빠름/느림으로 제시되는 속도를 말하며, '위도'란 신체의 내적 운동으로서 매 순간 일어나는 내포적인 힘 즉 정서적 변용(Affect)을 말한다.[31] 이 '되기' 개념의 핵심은 주체를 고정된 어떤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주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늘 변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시 읽기의 국면에서 이러한 '되기'는 기존 시 교육에서 자주 이야기되어 왔던 '시적 화자-되기' 외에도 '작은 사람-되기', '동/식물-되기', '무생물-되기' 등 다양한 층위로 나타날 수 있다. 작은 사람-되기란 바슐라르가 질료적 상상력의 주요 기능으로 지적했던 '작아지기'와 관련이 있는데,[32] 이는 인간이 자신의 몸의 크기를 줄여 대상물의 내밀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33] 작은 사람-되기와 마찬가지로

31) G. Deleuze, 박정태 역(2007),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이학사, p.117.

32) 바슐라르는 어떤 물질의 내부로 들어가 보는 상상력과 관련하여 상상적으로 꿈꾸어진 사물들은 본래의 특정한 크기로 고정되지 않으며, 인간에게 '작아지기'라는 상상적 기능을 작동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이는 다른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도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력을 포함한다. G. Bachealrd(1948), 앞의 책, p.24.

동/식물-되기, 무생물-되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몽상가의 신체적인 변형으로 이루어지는 사물 내부의 지각은, 외부 세계의 대상을 표층적으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신체의 상상적 변형인 '되기'를 통하여 학습자는 시의 언어를 통해 상상적으로 환기되는 대상의 내부로 침투하거나,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하며 대상을 주관적인 경험의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상상력의 본질이 지각을 통해 '받아들인' 이미지를 '변형'하는 데 있다고 할 때, 대상의 내부 또는 비가시적 영역과 관련된 지각 경험 역시 변형의 토대로서 중요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대체로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상의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혹은 대상의 내부로부터 퍼져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전혀 다른 대상 또는 현상과 연관짓는 등의 사물 내부에 대한 경험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바슐라르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상상력의 기본 법칙임을 강조하면서 사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유사하게 강은교 시인은 보이는 현상 속에 감추어진 이면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미렌즈로 보기', 즉 아주 작은 대상에 시선을 초점화하여 그것을 크게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질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물의 내부 또는 비가시적 영역에 대한 지각 체험의 기회를 실제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교육 상황에서 해볼

---

33) 다른 사물들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몽상가는, 어떤 역설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 섬세한 내밀성들에 대한 이러한 몽상적 정신세계는 우리가 보기에 철학자들의 전통적 직관과는 아주 다르다. (…) 모든 달콤한 존재들이 그러하듯, 호두는 자기 자신에게는 아픔을 준다. 카프카 같은 작가가 그 이미지들에 절대적 공감을 느끼며 괴로워했던 것은 바로 그 고통 때문이 아니겠는가? : "나는 요 며칠 동안의 밤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 매일밤이 지나 잠에서 빠져나올 때마다 호두껍질 속에 갇혔다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내밀일기Journal intime」, 『퐁텐Fontaine』 1945년 5월호, 192쪽)." 위의 책, p.27.

34) 앞선 「햄버거와 구름」의 분석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여자가 햄버거를 먹고 있는 전체적 모습보다는 햄버거를 먹고 있는 입술이라는 극미한 영역을 현미경의 렌즈로 보듯 초점화함으로써 햄버거의 빵껍질과 입술 간의 유사성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현미렌즈'와 관련해서는 강은교(1996), 『허무수첩』, 예전사, pp.83-84를 참조.

수 있는 활동으로는 사물의 겉면 또는 내부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학습자가 직접 주변에 있는 사물, 예컨대 식물의 일부를 자른 단면을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관찰된 대상의 모습에 대해 연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느낌에 대해 학습자가 자유롭게 기술해보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5] 백합꽃의 싹을 자른 단면

위의 사진[35]은 백합꽃의 싹을 자른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이다. 이러한 대상 내부의 이미지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학습자는 “사람의 입 안 같다”, 혹은 “꽃 속에 꽃이 겹겹이 들어가 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혹은 “백합은 자신의 싹 속에 미래 피어날 꽃을 품고 있다”와 같이 대상의 내부와 외부를 연

35)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S. Walker, Digital Image. *Smithsonian Magazine*, created Dec 16. 2013, accessed Aug 2. 2023, https://www.smithsonianmag.com/science-nature/the-startling-beauty-of-the-microscopic-180949245.

결지으며 작은 대상물의 내부가 크다는 식의 반응을 기술할 수도 있다.

한편 모든 사물의 내부가 위의 백합꽃과 같이 비교적 분명한 형태나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물의 내부 또는 비가시적 영역은 암흑일 수도 있고, 대개 미지의 것들이 우글거리며 운동하는 불명확한 이미지일 수 있다.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의 실행 과정에서 교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을 학습자에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도록 하고, 그 느낌을 표현해보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로르샤흐 테스트(Rorschach Test)에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그림의 해석에 감상자의 심리가 투영되듯, 바슐라르는 사물 내부의 이러한 우글거림이 오히려 몽상가에게 가치 부여된 상상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말한다.[36]

이처럼 주변의 사물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육안으로 아주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때 학습자들은 주변의 흔한 사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체험적으로 친숙한 대상의 내부가 새로운 특질이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한다면, 학습자들은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을 초점화하여 그 대상이 표면뿐 아니라 내밀하고 신비로운 깊이, 미지의 우글거림을 가지고 있다고 더 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사물의 내부에 관해 지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질적으로 변형하거나, 미지의 암흑 또는 우글거리는 풍경에 적극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

36) “내가 애석해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동사 우글거리다fourmiller의 문학적 이미지들을 제때 연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근본적 이미지가, 유동성의 한 원칙으로서 우리들 내부에서 반응하는 한 이미지가 우글거림 현상에 결부된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 이 어휘의 명백함 속에 그 얼마나 미묘한 확신이 있는가! 이 단어는 또 얼마나 다양하게 적용되는지! 구더기가 끓는 치즈로부터 거대한 밤하늘에서 웅성대는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동요하고, 모든 것은 우글거린다. 그 이미지는 혐오이며 찬탄이다. 그 이미지는 이와 같이 반대되는 가치들로 쉬이 둘러싸인다. (…) 많음은 동요이다. 문학에는 움직이지 않는 혼돈은 하나도 없다. (…) 여기에는 상대적인 역설이 있다. 사방으로 흔들리는 물체들의 총체를 쳐다보는 것으로, 혹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을 훨씬 넘어서는 수(數)를 그 물체들에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요는 많음이다. (…) 이미지는 소박하기 짝이 없다 : “엉성하게 감싸고 있던 부분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유효 성분들은,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스스로 기어나오는 개미들과 같다.” 이와 같이 우글거리는 운동성의 이미지는 설명 방법의 반열에 오른다. 발효 현상의 ‘유효’ 성분들은 상상된 질료로서 그야말로 개미 무리를 만들어내고 잇는 것이다.” G. Bachelard(1948), 앞의 책, pp.75-76.

몽상의 활동에 좀더 참여적으로 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 텍스트와의 대화 가이드 활용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텍스트와의 대화를 위해 동기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 스스로가 시적 몽상의 과정에서 텍스트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의 내부에 대한 가치 부여 과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모든 연상이나 대상과 관련해 떠오르는 가치들이 시 텍스트의 의미화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시 텍스트에 비춰 성찰하는 태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발문을 비계로 제공할 수 있다.

[텍스트 읽기 전 발문]

- 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의 성질이나, 대상들 간의 관계가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매우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세계에 대해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만이 세계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에 의해 혹은 표면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의 이면에 주관적으로만 파악될 수 있고 은밀하게 숨겨진 어떤 진실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시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상들이 그 대상을 보는 우리와 동떨어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 한편, 어떤 시의 경우 이러한 대상 자체 또는 대상들 간의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시인의 상상력이 일어난 과정을 분명하게 남겨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의 해석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적 대상 및 대상들 간의 관계를 변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 상상적인 변형 활동을 해보고, 시에 비춰 그 변형 활동들을 조절·성찰하고 의미화할 때 시에는 시인이 생

각한 것과는 또 다른 창의적인 의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읽기 가이드라인]

- [1] 이 시에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이 시에서는 어떤 대상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그 대상들은 어떤 형태적이고 물질적인, 운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들 간의 관계는 어떤가요?
- [3] 이 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관계는, 내가 위의 [2]에서 적은 대상들 간의 관계와는 어떻게 다르게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적어봅시다. (예: 거리가 변형된 것 같다/ A라는 대상이 B라는 대상의 재료가 된 것 같다/ 두 대상 사이에는 원래 빈 공간만 있는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생겨난 것 같다/ A라는 대상은 원래 a라는 특성만 가지고 있는데 b라는 특성을 가진 B 대상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b라는 특성을 함께 가지게 된 것 같다)
- [4] 위에서 적은 시적 대상들의 특징, 관계에 대해 나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다음 질문을 참조하여 작성해 봅시다.
  [4-1] 시적 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이 떠오르나요? 감각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떠오른다면 그것을 써주세요. 이를테면 '숨겨진 것이 없다/ 많다' 보다는 '투명하다/ 불투명하다'로 써봅시다.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관습적인 표현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예: ○○하게 움직인다, 강(인)하다/ (나)약하다, 성장한다/ 멈춰있다(고여있다), 단단하다/ 부드럽다/ 흩어지기 쉬울 것 같다, 무겁다/ 가볍다 등)
  [4-2] [4-1]에서 적은 키워드 단어의 물질적 특성과 관계된 사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에 언급되지 않은 대상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의 경도, 무게, 운동 방식은 어떠한가요?
- [5] [3]번에서 내가 적은 변형들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는, 대상 자체 또는 대상들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야 할까요? 앞서 대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 내부의 구성이나 물질적 특성, 운동적 특성이 일상적인 대상과는 다르게 변화했다고 상상해 답해봅시다. (생각하기 어려울 경우: 내가 아주 작은 사람이 되거나 미생물이 되어 그 대상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속에서 무엇이 보

이나요? 혹은 무엇이 있을 것 같나요? 내부에서 무언가가 우글우글거린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우글우글거리는 풍경은 나에게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하며, 이 대상 내부의 우글거리는 풍경은 그 대상이나 시 텍스트의 다른 대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 [6] 앞선 질문에서 내가 상상한 내용을, 시 텍스트의 다른 언어 표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시의 의미를 써봅시다.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도 써봅시다.

4) 질문 및 해석 기반의 교실 내 대화 활성화

> 같은 시를 읽고도 각자 떠오르는 생각이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 나와 비슷하거나 같게 연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의 상상이 달라서 전체적인 시의 심상은 나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3-호수-2]
>
> 나랑은 다르게 소스와 빗방울의 차이를 생각한 것이 인상깊었다. [A-6-햄버거-2]
>
> '호수'하면 잔잔하고 어둡고 넓다는 형용사를 쓴 게 나랑 비슷했다. 호수 -> 바다 -> 잔잔 -> 투명 -> 물 -> 어둡 -> 밤거리로 내용을 전개했는데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이 달라서 신기했다. [B-9-호수-2]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동료 학습자와의 대화는 학습자의 치우친 시 읽기 경향을 조정하고 의미소를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으로 몽상을 활성화하는 데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자신과 동료 학습자의 감상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지하고 인상적인 부분을 기술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이를 시 텍스트의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가지는 못했다.

> (전략) 외로운 섬, 내가 지켜주고 싶다. 섬을 지리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크고 외로운 장애물로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멀어짐을 느꼈다. ㉠또 섬하니 화산이 생각났고 지금 우리나라의 두려움인 백두산이 생각났다. 백두산하면 무엇인가? 폭발이다. 역시 무서운 섬이다. [C-8-섬-1]

(전략)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아직 친밀한 관계지만 서로 나누지 못한 기억마저 공유하고자 하는 의리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현종 시인은 이에 대해서 어쩌면 그 섬에 가고 싶은 감정이 꼭 좋지는 않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기도 하다. (후략) [C-9-섬-1]

㉢섬을 하나의 폭발성이 기인된 커다란 공포로 느끼며 이를 백두산에 연결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관계를 파국에 다닫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즉 건너야 마땅한 섬으로 느꼈다는 사실이 재밌고(물론 "웃음 의 재미"는 아니었다), 흥미로웠다. [C-9-섬-2]

한편 위의 C-9 학습자와 같이 동료 학습자(C-8)의 시 읽기 과정에서 단편적인 연상에 그친 부분(㉠)을 재발견하여, 동료 학습자의 감상이 가지고 있는 해석적 풍부함을 끌어내는 학습자 역시 있었다. C-8 학습자의 감상문에서의 '섬'을, 개인 간의 관계를 "건너야 마땅한 섬"으로(㉢) 해석하는 것은 C-9 학습자의 감상문 속에도 나타나지만(㉡), 이 건넘의 행위가 "관계를 파국에 다닫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은 동료 학습자 감상문과의 대화 속에서 역동적으로 도출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료 학습자와의 대화 경험이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에서 상호 간에 유의미한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동료 학습자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렇게 발견된 차이를 자신의 맥락으로 전유하여, 자신의 시적 몽상의 과정에서 잘 활성화되지 않았던 지점을 보충하는 데 활용한다면 시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어떤 대상의 외적 형태를 차별적으로 구체화하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보다는, 경험적인 대상의 내부나 비가시적인 영역을 응시하고 접촉하고자 하는 상상, 대상 내부를 질적으로 변형하는 능력으로서의 상상에 주목하여 이를 '몽상'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몽상의 활동이 시 텍스트 읽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시적 몽상'의 개념을 시 텍스트와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몽상 활동을 의미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적 몽상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구조를 밝혀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학 언어의 수사성과 오독의 문제를 다루었다. 함축적인 언어의 사용 및 실재의 상상적 변형이라는 시 텍스트의 특성은 커다란 의미 공백을 만드는데, 이는 시인과는 구별되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상상과 오독을 추동하는 기반이 된다. 그런 한편 이 커다란 의미 공백은 시 텍스트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며, 독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지평 자체가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상상력의 확대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해나가며 창조적 오독을 하기 위한 구체적 상상 방식으로 몽상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는 어떤 대상의 가시적인 측면에 대한 상상보다는 비가시적인 영역 및 특성에 초점을 둔 상상으로서, 시의 언어를 통해 환기되는 대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가치 부여 및 형상화의 기반이 된다. 이와 관련된 학습자의 상상 및 의미화 활동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시적 몽상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시적 몽상은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을 감지하고,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과 주관적 가치를 결부시키며 대상에 운동성을 부여하고,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몽상을 의미화하는 방식의 시 읽기로 정의된다. 그리고 시적 몽상의 구조의 경우 상상력을 형태적 상상력과, 질료적 상상 내지는 몽상으로 나누어 살핀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과 존슨의 신체적 의미 이론 등에 기반하여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형태적

상상에 기반한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에 대한 주관적 가치의 투사와 대상의 역동화', '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의미화'로 제시하였다.

시 읽기에서 시적 몽상의 구조를 실제 학습자의 반응에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시 수용물을 수집하였으며, 현상학적 체험연구 방법을 활용해 이를 분석하였다. 학습자 자료 분류는 이론에서 논구한 시적 몽상의 구조에 근거하여 상위 범주를 도출하되, 실제 양상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공통적인 감상 경향을 분석하여 분류 체계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에 따른 대상 관계의 연상적 탐색 양상의 경우,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 감지, 형태적 유사성에 기반한 대상 관계의 탐색, 이미지의 자유 연상과 의미 구성 양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학습자의 감상 과정에서 활발한 형태적인 연상 작용이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의 여부 및 그 의미화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학습자들은 합리주의적 태도로 인해 시적 대상의 형태적 모호함을 감지하는 데 실패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친모호성을 통한 시적 대상의 형태 형성 지연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의 형태 형성 지연을 위한 시각 자료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시적 대상의 내부 영역과 가치의 결부 및 대상의 역동화 양상은 촉각적 특성 환기와 이미지의 연상, 대상의 내부에 대한 가치의 은유적 투사, 대상의 경계선과 주변 영역에 대한 운동성 부여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의 비가시적인 특성 및 내부 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가치 부여 또는 몰입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시적 대상에 대한 심미적 거리를 조절하는 데 실패하여 학습자들은 몽상의 활성화에 실패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은유의 활용을 통한 몽상의 방향 설정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 사물 내부의 상상적 지각을 위한 '되기'와 현미경 체험을 교육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형상화 및 의미화 양상은 시 텍

스트 전체의 언어 표현을 의식하며 의미화하는 과정의 유무에 따라 텍스트의 맥락에 기반한 몽상의 형상화,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몽상의 의미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몽상 내용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해 텍스트와의 대화에 실패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와의 대화를 위한 동기화를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 텍스트와의 대화 가이드를 활용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시의 언어를 통해 활성화되는 경험적인 대상의 비가시적인 영역에의 가치 부여와 변형 활동을 통해 시 텍스트를 의미화하는 시적 몽상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대상의 비가시적인 측면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정신심리적인 가치를 투사함으로써 대상의 내적 지평을 풍부화한다는 측면은 시 교육에서 상상력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시 읽기를 통해 시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상상적 사고를 추동하고,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를 확대하며, 텍스트의 창조적 의미화 능력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첫째, 조사 대상 학습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시 텍스트를 대부분 짧은 길이로 선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긴 길이의 시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시적 몽상 양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의 면담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자들이 시적 몽상의 실행 과정에서 느낀 구체적인 어려움과 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셋째, 대상 시 텍스트들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텍스트와 대화 속에서 몽상을 의미화하는 양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적 몽상의 개념을 제시하여 기존 문학교육에서 제한되어 다루어져 왔던 학습자의 상상 활동의 폭을 확대하고, 이를 시 읽기의 과정으로 연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자료

강은교(1974),『풀잎』, 민음사.
강은교(1996),『어느 별에서의 하루』, 창비.
오규원(2005),『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문학과지성사.
오장환(1989), 최두석 편,『오장환 전집 1 詩』, 창작과비평사.
정지용(1935), 박용철 편,『정지용시집』, 시문학사.
정현종(1978),『나는 별 아저씨』, 문학과지성사.

2. 국내 논저

강민규(2015),「이미지즘 시의 공간 연출(演出)과 시 읽기 교육」,『문학교육학』47, 한국문학교육학회, 9-47.
강민규(2016),「현대시 학습 독자의 해석 가설 구성에 관한 연구」,『문학교육학』52, 한국문학교육학회, 9-50.
강은교(1996),『허무수첩』, 예전사.
강은교(2022),『꽃을 끌고』, 열린원.
구인환 외(1996),『문학교육론』(제2판), 삼지원.
구본관(2015),「문법과 문학 영역의 통합」,『국어교육』148, 한국어교육학회, 55-91.
김대행 외(2000),『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미혜(2007),「지식 구성적 놀이로서의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혜(2008),「시 교육에 있어서 이미지 이해의 문제에 대한 고찰 : 박목월 초기 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문학교육학』25, 한국문학교육

학회, 377-404.
김민재(2016),「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체험 표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재(2020b),「경험적 독자 연구로서의 문학교육학에 인지시학 도입의 쟁점과 가능성 - '문학적 경험'에 대한 이론화를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46, 국어교육학회, 89-132.
김민재(2021),「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병욱(2010b),「'바슐라르- 뒤랑- 마페졸리' 3자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프랑스문화예술연구』33, 프랑스문화예술학회, 33-87.
김융희(2006),「바슐라르 이미지론에 나타난 색의 의미」,『미학예술학연구』24, 한국미학예술학회, 227-257.
김정우(2004),「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종갑(2000),「기호와 지시대상의 교환 ; 드 만의 경우」,『안과 밖』9, 영미문학연구회, 215-240.
김창원·정재찬·최지현(2000),「문학교육과 상상력」,『독서연구』5(5), 한국독서학회, 131-193.
김창원(2004),「창의성 중심의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국어교육학연구』18, 국어교육학회, 97-127.
김창원(2011),『문학교육론—제도화와 탈제도화—』, 한국문화사.
김태희(2014),「발생적 현상학에서 시간의식과 연상」,『철학과 현상학연구』62, 한국현상학회, 41-70.
김한승(2004),「모호성의 다양성」,『철학』79, 한국철학회, 211-235.
김혜진(2023),「정동 중심의 시 창작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나희덕(2009),「김춘수의 무의미시와 환상」,『문학교육학』30, 한국문학교육학회, 9-28.
노철(2006),「시 교육에서 이미지·비유의 교육과정과 교재의 설계 방향」,『문학교육학』19, 한국문학교육학회, 297-326.

문경자(2013),「'몽상'의 의미 변동과 문학적 기능에 관한 고찰」,『프랑스어문교육』44, 프랑스어문교육학회, 303-327.
문선영(2019),「관조를 통한 현대시 심미적 태도 교육 방향 연구」,『문학교육학』63, 한국문학교육학회, 163-201.
박윤우,「존재탐구로부터 존재인식으로 이르는 길」, 유성호 편(2005),『강은교의 시세계—허무와 고독을 넘어, 타자를 향한 사랑으로』, 천년의 시작, 128-144.
박주형(2021),「시 교육에서 감각적 체험의 구조와 활성화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주형(2022),「은유 확장 중심의 시 읽기 교육 연구 - 정지용의 「유리창 2」 읽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78, 국어교육학회, 157-204.
성창익(2021),「대조 의미 기능에서의 보조사 '은/는'의 내포절 주어 제약에 대하여」,『어문론집』86, 중앙어문학회, 35-72.
소래섭(2001),「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자연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예희(2011),「시 교육에서 상상적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예희(2015),「문학 작품 오독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연구」,『국어교육학연구』50(1), 국어교육학회, 348-375.
안지영(2017),「한국시에 나타난 샤머니즘의 재인식을 위한 시론 — 강은교 시를 중심으로」,『인문논총』74(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89-323.
오규원(2005),『날이미지와 시』, 문학과지성사.
우문영(2012),「오독이 비평교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학교육을 중심으로—」,『청람어문교육』45, 청람어문교육학회, 409-440.
우신영(2017),「창의적 시 해석 방법 연구」,『문학교육학』55, 한국문학교육학회, 245-285.
오연경(2009),「'날이미지'와 사건의 시학」,『문학·선』2009년 봄호.

오정훈(2013),「문학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시교육 방법」,『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3(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53-79.
우한용(1997),「문학교육에서 문화와 상상력」,『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우한용 외(2013),『국어과 창의·인성 교육』, 사회평론.
윤여탁(1999),「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 시의 표현과 이해 과정을 중심으로」,『문학교육학』3, 한국문학교육학회, 241-260.
윤여탁 외(2011),「현대시 교육에서 지식의 성격과 교육의 방향」,『국어교육연구』27, 국어교육학회, 215-260.
이경배(2018),「존재의 언어와 대화의 언어 : 하이데거(M. Heidegger)와 가다머(H.-G. Gadamer)의 언어개념의 차이」,『범한철학』88, 범한철학회, 123-154.
이남인(2014),『현상학과 질적 연구 :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이상오(2009),「Gaston Bachelard의 "상상력 철학"의 교육학적 의미」,『교육철학연구』46, 한국교육철학회, 163-188.
이성은·우미라(2007),「원형의 관점에서 본 초등문학교육」,『한국초등국어교육』3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15-142.
이은희(2009),「모더니즘 시의 수사학적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훈(2004),『예술과 연금술 — 바슐라르에 관한 깊고 느린 몽상』, 창비.
정재찬 외(2017),『현대시 교육론』, 역락.
제민경·구본관(2013),「언어 창의성 발현을 위한 교육적 체계의 구성 방향」,『국어교육』143, 한국어교육학회, 311-348.
조경순(2020),「의미와 해석의 다양성을 통합하는 문법 교육에 대한 고찰」,『어문론집』83, 중앙어문학회, 455-484.
조은혜(2014),「이미지 내러티브를 통한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봉희 편저(1985),『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pp.31-38.

최미숙(2012), 「기호·해석·독자의 문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 38, 한국문학교육학회, 125-154.
최병해(2013), 「문법 지식을 활용한 시 감상 방법 연구」, 『국어교육연구』 53, 국어교육학회, 441-480.
최지현(2007), 「문학교육의 '교육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167-191.
최지현(2008), 「언어문학영재성에 대한 정량적 판별 준거」, 『문학교육학』 27, 한국문학교육학회, 187-230.
최지현(2012), 「문학교육과 인지심리학-문학적 이해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125-156.
최지현(2014), 『문학교육심리학』, 역락.
한귀은(2007), 「이미지를 경계하는 이미지 교육」, 『배달말교육』 28, 배달말학회, 237-260.
한우섭(2000), 「동서양의 근원존재 : 메를로-퐁티의 '살' 개념과 동양의 '기'론」, 『동서철학연구』 95, 한국동서철학회, 225-256.
황현산(2020), 「섬의 상징 섬의 서사」, 『황현산의 현대시 산고』, 난다.

3. 역서 및 국외 논저

Bachelard, G.(1942), *L'eau et les rêves,* 김병욱 역(2020), 『물과 꿈』, 이학사.
Bachelard, G.(1943), *L'air et les songes,* 정영란 역(2020), 『공기와 꿈』, 이학사.
Bachelard, G.(1947),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la volonté*, 민희식 역(1982), 「대지와 의지의 몽상」, 『불의 정신분석·초의 불꽃·대지와 의지의 몽상』, 삼성출판사, 183-451.
Bachelard, G.(1948), *La Terre et les rêveries du repos*, 정영란 역(2002),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 문학동네.

Bachelard, G.(1958), *La poétique de l'espace*, 곽광수 역(2003),『공간의 시학』, 동문선.

Bachelard, G.(1960), *La poétique de la rêverie,* 김현 역(1989),『몽상의 시학』, 기린원.

Buzan, T.(2007), *The Ultimate Book of Mind Maps*, 부잔코리아 역(2008),『생각의 지도 위에서 길을 찾다』, 중앙북스.

Collot, M.(1986), *La Poésie moderne et la structure d'horizon*, 정선아 역(2003),『현대시와 지평구조』, 문학과지성사.

De Man, P. 이창남 역(2010), *Allegories of Reading*,『독서의 알레고리』, 문학과지성사.

Deleuze, G. 박정태 역(2007),『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이학사.

Dewey, J.(1934b), *Art as experience*, 박철홍 역(2016),『경험으로서의 예술 2』, 나남.

Goldstein, E.(2007), *Sensation and perception*, 김정오 외 역(2007),『감각과 지각』, 센게이지러닝코리아.

Iser, W.(1976), *(Der) Akt des Lesens*, 이유선 역(1993),『독서행위』, 신원문화사.

Jackson, R.(1981), *Fantasy : the literature of subversion*,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2004),『환상성 :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Johnson, M.(1987), *The body in the mind,* 노양진 역(2000),『마음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McQuillan, M.(2001), *Paul de Man*, 이창남 역(2007),『폴 드 만과 탈구성적 텍스트』, 앨피.

Merleau-Ponty, M.(1945), *Phenomènologie de la perception,* 류의근 역(2002),『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Merleau-Ponty, M.(1964), *Le Visible et l'invisible*, 남수인·최의영 역(2004),『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동문선.

Panofsky, E.(1927), *Die Perspektive als symbolische Form*, 심철민 역(2014),『상징형식으로서의 원근법』, 도서출판b.

Rosenblatt, L. M.(1978),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김혜리·엄해영 역(2008),『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론』, 한국문화사.

Sternberg, R. J. & Lubart, T. I.(1999), The concept of creativity : prospects and paradigms. In Sternberg. R. J.(Ed), *Handbook of creativit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기타

「왜 호수에 비친 모습이 거울처럼 보일까?」,『위즈덤시드 네이버블로그』, 2020년 8월 18일 작성, 2023년 8월 2일 접속,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131487&memberNo=50314517.

「[윤병훈칼럼] 우리미래 어쩜이래」,『머니투데이』, 2022년 9월 27일 수정, 2023년 8월 2일 접속,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714375881040.

Walker, S. Digital Image. *Smithsonian Magazine*, created Dec 16. 2013, accessed Aug 2. 2023, https://www.smithsonianmag.com/science-nature/the-startling-beauty-of-the-microscopic-180949245.

부록 1 : 학습자 대상 활동지(예비조사)

반: ____ 이름: _____

[활동1] 다음 글은 어떤 시의 일부분입니다. 읽은 뒤 물음들(1~5)에 답해봅시다.

한번 나오기 시작한 웃음이
멈추지 않아
웃음에서 깔깔 까르르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나
바퀴 달린 웃음이

- 1 -

1. 앞의 글과 관련하여,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퀴 달린 웃음'의 형태를 아래 빈 공간에 간단히 그려봅시다.
(2분 이내 / 꾸미지 말고 중요한 요소만 표현해봅시다. 뒤의 4. 번 활동이 더 재밌을 것입니다.)

2. '한번 나오기 시작한 웃음이/ 멈추지 않'는 상황은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써주세요. 아래에 제시된 틀을 ①활용해도 되고, ②활용하지 않고 빈 공간에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분량 자유)

나는 이 상황이 [긍정적인 / 부정적인 /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상황처럼 느껴진다.
(셋 중 하나에 자유롭게 체크)

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형식에 맞춰 쓰기 어려우면 이를 삭제하고 자유롭게 쓰세요.
쓰기 어렵다면, 칸을 비워두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세요.)

- 2 -

3. 아래의 글을 읽어보고, **‘(□ 첫 번째 / □ 두 번째)’** 중에서 한 가지를 체크해봅시다.

시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상상의 방식은 크게 두 방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대상의 특성을 고정**시켜놓고, 그와 관련된 풍경 또는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게 진열대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팔리지 않아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을 생각해볼까요? 이 장면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에 이르기까지, 반지에 **형태나 물질(재료) 등 특성의 변화**가 없었다면 상상의 첫 번째 방식대로 상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상의 두 번째 방식은 **대상이 주어진 특성을 벗어나 다른 무언가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주목**하고, 그와 관련된 풍경 또는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열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다이아몬드가, 물거품이 되었다가 수증기로 증발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상상의 두 번째 방식대로 상상한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상상의 방식 중에서 나는 **(□ 첫 번째 / □ 두 번째)**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이 방식에 따라 ‘바퀴 달린 웃음’의 풍경 또는 이야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4. 아래의 [생각거리]를 참고하여, 1페이지에서 읽은 시 뒤에 이어질 나만의 이야기를 써봅시다. (4문장 이상 / 앞의 1. 에서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써도 좋습니다.)

[생각거리] 모든 항목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글을 완성하는 데에 우선 집중합시다.

- '바퀴 달린 웃음'(혹은 '바퀴'와 '웃음')은 현재 어떤 물질(재료)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나요?
- 그 물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바퀴 달린 웃음'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바퀴 달린 웃음'은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나요?
- '바퀴 달린 웃음'의 움직임이 변화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나는 '바퀴 달린 웃음'의 물질(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싶나요?
- '바퀴 달린 웃음'의 형태나 물질(재료)이 변화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5. **[마지막 질문]** 위에서 쓴 글에 주제(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빈칸에 한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활동2] 아래의 글은 앞에서 읽었던 시의 전체 글입니다. 읽어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한번 나오기 시작한 웃음이
멈추지 않아
웃음에서 깔깔 까르르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나
바퀴 달린 웃음이
언덕을 내려가고 있어
웃음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웃음 끄는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어
달리는 웃음을 멈추게 하는
빨간 신호등도 있으면 좋겠어

– 김기택, 「웃음에 바퀴가 달렸나 봐」

1. 위 시에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바퀴 달린 웃음'이 처한 상황은 다음의 셋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되나요?

(긍정적인 상황이다 / 부정적인 상황이다 /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상황이다)

2. 위의 시를 읽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앞 활동에서 내가 완성했던 이야기와 비교해보며, 위의 시에 대한 감상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3문장 이상, 공간이 부족하면 뒤에 이어서 씁시다.)

부록 2 : 학습자 대상 활동지(본 조사)

[개인정보] _____ 중학교 ____ 학년 ____ 반 이름: _____

안녕하세요, 서울대 국어교육과 대학원 석사과정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시적 몽상 중심의 시 읽기 교육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성실히 응답해주시면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연구자의 개인 식별 용도로만 사용되며, 실제 연구에는 익명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활동은 시를 읽고, 시어와 관련해 떠오르는 여러 이미지와 생각들을 마인드맵으로 자유롭게 펼쳐보는 활동입니다.

시는 참 다양합니다. 의도/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시가 있는가 하면, 의도/ 주장을 흐릿하게 하고 **공간을 살짝 열어 보여주며 천천히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는 우리의 상상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시를 읽을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상이 곧 시에 대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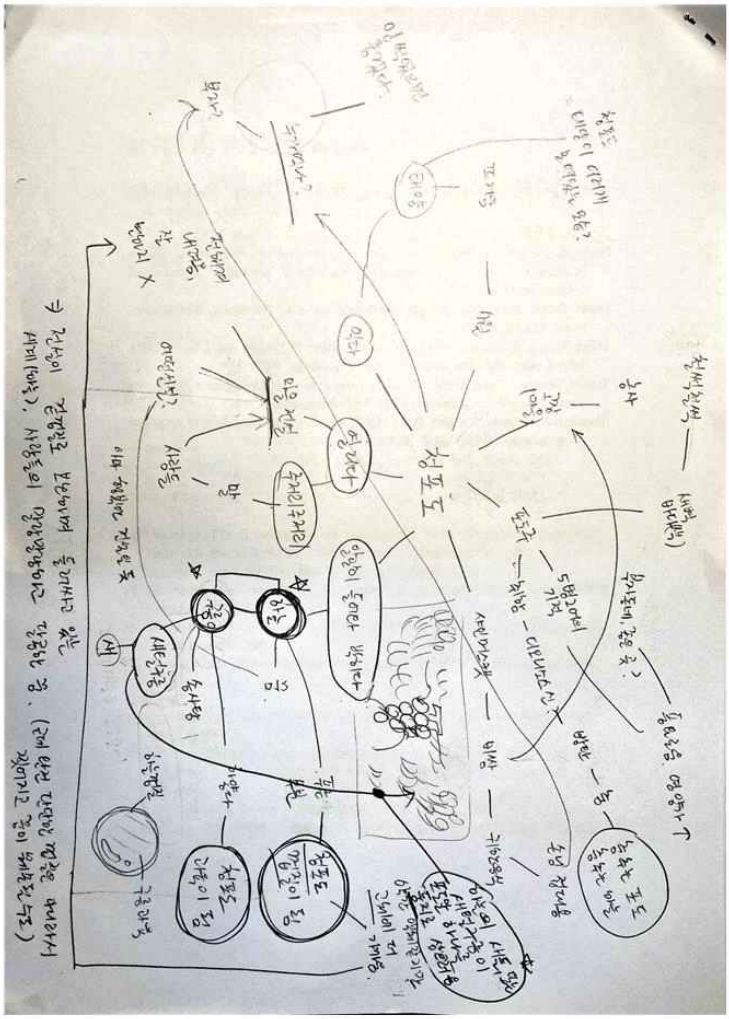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상상해보더라도 끝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시인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으며 일상 속의 움직임을 기억해두고, 그렇게 단어들을 긴 세월 동안 아주 많이 모으고, 모은 단어들을 서로서로 소통시키면서 시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즉, **시 속의 어떤 언어**는 독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멈춘 느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수한 움직임과 시간의 축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과 시간의 두께를 좀더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 독자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저는 그 방법으로 **'시어 마인드맵 만들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시어의 여러 측면들을 곱씹어 보며, **시 텍스트의 맥락은 잠시 떠나도 좋으니 시어 그 자체와 관련해 내 생각의 가지를 뻗어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시 전체를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으니 큰 맥락에서 나와서 **시어와 1:1로 대화하며 친해져보**는 것이죠. 그런 대화를 통해 **시어에서 움직임을 연상해보고, 내 기억 속 풍경과도 연결시켜 보고, 어떤 비슷한 형태를 떠올려보는 등 키워드를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시 읽기 과정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시어가 가지고 있는 생동감이 좀더 살아나면서 풍경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마인드맵 및 감상문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상상할 때는 **풍경 전체를 한꺼번에 휙 그리기보다는, 아주 작고 사소한 모퉁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살아 있는 무언가들을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한다**고 생각해봅시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 생명이 생겨나기가 조금 더 쉬운** 것처럼 생각되니까요. 예) '청포도'를 생각할 때도, 청포도밭부터 그리기보다는 아주 작은 청포도알 하나에 어떻게 생명을 줄지 고민해보세요.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생각을 점차적으로 옮겨가며 시어와 시어, 그리고 시행과 시행간의 연관 고리를 조금씩 찾아 나가보세요.)

[예시]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 이육사, 「청포도」 부분



(변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들은 마인드맵 속에 동그라미 테두리로 표시했음)

'청포도' 하니 먼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과 샤인머스캣도 떠올랐다. 샤인머스캣 하면 떠오르는 건 '비싸다'인데, 포도청은 도둑을 잡는 곳이라는 걸 떠올리니 뭔가 말하기 어려운 연

결성이 생기는 것 같았다. 지금 시와 관련해서 이 연결성을 풀어내 보자면, (물론 당시에는 샤인머스캣이 없었겠지만) 이육사 시인은 가난한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고 하니까 청포도도 정말 가끔씩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든다. 시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 포도가 아니고 청포도라고 한 걸 보면 당시에 도둑맞은 사람들의 언어(한국어), 꿈같은 걸 펼칠 공간이 없어서 작은 포도알 속으로 도망가는? 그렇지만 도망이라기엔 그

ㄴ 포도알 하나에 집중하기

것들이 너무 값지다는 걸 표현했을 수도 있을 거 같다. (이렇게 쓰고 나니 그럴듯한 해석이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다. 포도청은 너무 말장난 하는 것 같아서 적으려다 말았는데 적기를 잘한 것 같다.)

시로 돌아가자면, 청포도와 관련된 동사는 세 가지로 '익다', '열리다', '알알이 들어와 박히다'인데 모두 역동적인 느낌이었다. '열리다'와 관련해서 나오는 시어는 '전설'인데, 전설은 전해져 내려오는 거니까 비교적 형태가 잡혀있고 잘 안변하는 무언가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주저리주저리'라고 하니까 살아 있는 말 같고 흐르는 액체 같아서 대비감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주머니들의 수다 같기도 한데, 한편 한국 아주머니들의 파마머리도 이 포도알이랑 형태가 비슷한 것 같다. 갑자기 '뽀글뽀글 부풀어난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은 다 청포도 한 송이를 제 머릿속에 이고 있다' 이런 시적인(?) 구절이 떠오른다. 이 생각을 이 시와 연결시키자면, 이 청포도는 꼭 과일이 아니라 머리에 꿈을 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비유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에서 알알이 들어와 박히는 게 '하늘'이라고 말했는데, 이 하늘은 구름 없는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이 있는 하늘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난 구름이 좋아서 구름 있는 하늘이라고 상상했다. 그런데 구름 있는 하늘은 구름 부분과 푸른 부분의 색이 구분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포도의 껍질, 과육에 대한 생각으로 자연스레 이어진 것 같다. 푸른 하늘은 청포도의 겉껍질이 되고 반투명한 흰 구름은 그 속의 몰캉몰캉한 과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ㄴ 포도알 하나에 집중하기

청포도 껍질은 액체와 고체의 반쯤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앞에서 말한 '마을 전설'의 형태감 있으면서도 액체 같은 느낌과 잘 통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 시의 청포도가, 전설이 겉껍질로 보호하면서 둘러싸고 있는 세계(하늘)이자 마을 사람들의 꿈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단단한 껍질은 아니니까 찢어지고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하늘이 청포도에 박히는 순간의 모습은 대체 어떻게 박힌다는 건지 잘 상상이 안 됐다. 구름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뭔가 느낌이 올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 뭉게구름이랑 새털구름이 떠올랐는데, 새털구름이 새랑 관련해서 가볍고 빠르게 휙 날아와서 꽂히는? 박히는? 느낌이 시와 어울리는 것 같았다. 하늘도 구름도 들어오는 마당에 새라고 못 들어올까. 새도 이 둥근 포도알을 둥지 삼으러 들어올 것 같았다.

ㄴ 포도알 하나에 집중하기

그 외에 청포도를 생각하니 포도주와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가 생각났다. 방탄소년단의 Dionysus가 머릿속에 자동재생됐다. 청포도가 알알이 함께 춤추는 모습이 떠올라서 웃음이 났다. 이 춤은 포도알의 외적 댄스일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내적 댄스일 것 같기도 하다. 포도알 안에서 마을 사람들의 술이 한잔, 두잔 부딪치는 소리가 날 것 같은 느낌도 든다.

ㄴ 크게 생각했다가(디오니소스) 포도알 하나로 다시 돌아가기

[1차시 활동] 다음의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그 여자는 정오에 구름을 보며 햄버거를 먹었다.

햄버거에서 구름이 떨어졌다.
그 여자는 구름이 맛있다고 생각하며 먹었다.
그 여자는 손가락을 쪽쪽 빨며 소스가 쳐 있는 햄버거의 고깃덩이를 씹었다.

순간
빗방울이 두 개의 빵껍질 사이에서
떨어졌다.

오, 햄버거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 강은교, 「햄버거와 구름」

1. 위 시에 나타나 있는 시어들 중, 나에게 인상적인 시어부터 시작해서 시어 마인드맵을 그려주세요. **(25분, 나누어준 A4용지에 그려주세요)**
- 이 시를 읽으면서 어째서 유독 그 시어가 인상 깊게 다가왔을지
- 그 시어에서 느껴지는 변화와 움직임은 무엇인지
- 그 시어와 관련해 연상되는 나의 행동은 어떤 것인지
- 그 시어와 다른 시어의 관계는 어떠할지… 등을 곰곰이 생각하며 키워드 메모하기

- 4 -

[시 마인드맵 그리기] ___ 학년 ___ 반 이름: _____

*시에 나타난 모든 단어를 쓸 필요는 없으나, 가능하다면 시어를 한 번씩 써보며 그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 1 -

[2차시 활동]

2.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들었던 생각, 앞의 시(「햄버거와 구름」)와 관련하여 지금 떠오르는 느낌들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25분,** 가능한 만큼 많이 써주세요. 칸이 모자라면 뒷장에 마저 씁시다.)

3. 위 **3번** 감상문 내용을 앞/뒤 또는 옆의 친구와 교환해서 읽어보고, 감상문을 교환해서 읽은 소감을 말해주세요. **(8분)**

친구 이름:

감상문 교환 소감:

4. (시간이 남는 경우) 설문지 활동 소감을 말해주세요.

-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겨울방학 보내세요. -

Abstract

A study on Poetry Reading Education Focused on Poetic Reverie

Kim, Hyojeong

This study believes that poetry reading education should focus on the imaginative activities of learner who reads poetry qualitatively transforming the empirical properties of an object. As a concept that can explain these,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poetic reverie' and aimed to project poetry reading education focused on 'poetic reverie'.

In this study, the need for the concept of 'reverie' was derived by reviewing existing studies on learners' imagination in poetry education and discussions on the distance between signifier and signified, and misreading in literary language. The concept of 'reverie'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imagination' discussed in existing poetry education. However, in the existing poetry education, there is an aspect of paying attention to the imaginative activities of learners when the path of imagination suggested by the text is relatively specific. In other words, imaginative activities in which learners voluntarily activate various associations related to poetry or

give deep value to the poetic objects and qualitatively transform the internal have been relatively less dealt with, and the abundant possibilities of poetry reading that can occur in this regard also have not been noticed. In this regard,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Gaston Bachelard's discussion of imagination and conceptualizes 'reverie' as 'an imaginative activity of seeing an object as not fixed in form but as capable of transforming its material and dynamic properties, and qualitatively transforming the object including its surroundings, by giving subjective value to the internal area of the object'.

On the other hand, the process of reading poetry can be said to be a process in which the imagination of the poet, which is contained in the text, and of the reader meet each other, influence each other, and produce dynamic meaning.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activity of reverie in poetry reading education becomes a valuable literary experience only when it goes through a dialogue with poetry text, and sets the concept of 'poetic reverie' as the ability to reverie and make meaning of reverie in a dialogue with poetry text. Then, Based on Bachelard's discussion of imagination, the structure of poetic reverie was presented as 'detecting the formal ambiguity of the poetic object based on the formal imagination', 'projecting subjective values into the internal area of the poetic object and dynamizing it', 'realizing the meaning of reverie through dialogue with poetry text'.

The aspects of poetry reading of leaner focused on poetic reverie were categorized as follows by linking the structure of poetic reverie and the analysis of the learner's poetry reception data. First, 'the associative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according to the detection of the formal ambiguity of the poetic

object' appeared as 'detecting the formal ambiguity of the poetic object', 'searching for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based on formal similarities', 'free association of images and composition of meaning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formal associations by learners and their level of meaning. Seco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internal area of the poetic object and the value, and the dynamization of the object' appeared as 'the evocation tactile qualities of the object and the association of images', 'the metaphorical projection of specific values into the internal area of the object', and 'the endowment of dynamic quality to the boundary and the surrounding area of the object', depending on the learner's level of giving value to the invisible qualities of the object and the internal area of it. Third, 'the figuration and meaning realization of reverie through dialogue with text' appeared as 'the figuration of reverie based on the context of the text', 'realizing the meaning of reverie through dialogue with the text',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re is a process of making meaning with a detailed awareness of the language expression of the entire poem text. Lastly, the problem situations and causes that occurred in the course of learners' poetic reverie were analyzed as 'failure to detect the formal ambiguity of the poetic object due to rationalistic attitude', 'inactivation of reverie due to failure to control the aesthetic distance to the poetic object', and 'failure to dialogue with the text due to lack of confidence in the content of reverie'.

Through analysis, the content of poetry reading education focused on poetic reverie were suggested as 'delaying the figuration of the poetic object through familiarity with ambiguity', 'setting the direction of reverie through the use of metaphor', and 'motivating learners to have dialogue with the text'. As specific methods for

this, ‘the provision of visual materials to delay the figuration of the object’, ‘‘becoming’ and microscopic experience for imaginative perception of the internal area of the object’, ‘the use of guides for dialogue with the text’, and ‘activation of dialogue in the classroom based on questions and interpretations’ were sugges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poetry reading education focused on poetic reverie can promote learner-centered imaginative thinking, expand the learners' involvement in the language of poetry, and enhance their ability to creatively realize the meaning of poetry.

keywords : poetic reverie, poetry reading education, miss reading, reverie, imagination, internal area of an object, material imagination

Student Number : 2020-24662